

# HEALTH & WELFARE REVIEW

보건복지연구

Vol.8 No.1 / December 2023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ORIGINAL ARTICLE

- 5 자연스러운 영어발화를 위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축음 발화 분석  
임 운
- 17 외국인유학생 정책과 지방대학의 발전  
김규찬
- 29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세훈 · 백서연 · 오유나 · 조인영 · 조제현 · 지선주 · 최유정 · 전재희
- 41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관계  
유건규 · 김민지 · 김송아 · 박지현 · 신동윤 · 이태린 · 최선하
- 51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최주희 · 김도경 · 김진영 · 이승은 · 이원재 · 전찬호 · 최윤호 · 박선아
- 61 유아의 정서발달 지원 음악프로그램 개발 예비 연구  
박영미 · 김현정
- 77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  
김보미 · 김예진 · 박다운 · 송수연 · 조유진 · 최윤희 · 김현성 · 김은주
- 87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대학생의 관점  
이행옥
- 97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의 맥락-패턴 분석  
박수지
- 10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진로정체성간의 관계  
김예진 · 유수빈 · 이소윤 · 이수진 · 이슬기 · 조세은 · 편도준 · 장수정



## 자연스러운 영어발화를 위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축음 발화 분석

임 운(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변화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영어발화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하여 한국인의 영어발화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영어발화의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절음, 초분절음, 어휘음운론, 후어휘 음운론에 의한 자연스러운 발음 또는 유창한 발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Praat이라는 음향음성학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인 영어교사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과 대조분석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유형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한국인 교사의 발화를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절적 요소인 밝은-1로 발음되어야 할 환경에서, 초등 교사는 88.8%, 중등 교사는 76.5%가 밝은-1로 발음하였다. 그러나 어두운-1로 발음하여야 할 환경에서, 초등 교사는 4.2%, 중등 교사는 33.3%가 어두운-1로 발음하였다. 즉, 한국인 교사들이 음절성을 띠는 어두운-1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한국인 교사들이 어두운-1과 밝은-1이 발음되는 환경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1을 발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후어휘 음운현상의 하나인 축음화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 교사 72.2%, 중등 교사 90.9%가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축음과 관련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밝은-1과 어두운-1의 차이를 발음지도 초기에 청취적 차이를 통한 발화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후어휘적 발화상황에서도 밝은-1과 어두운-1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축음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어 음절조직과 영어의 음절조직의 차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음절조직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발화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음절조직의 차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주제어: 자연스러운 발화, 축음화, 밝은-1, 어두운-1, 후어휘 음운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변화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습자가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여 발화할 때, 원어민이 학습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학습자가 원어민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상의 차이, 음운상의 차이, 운율상의 차이와 음성-음운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김기섭, 1993).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여 발화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상의 차이, 음운상의 차이, 운율상의 차이와 음성-음운의 구조 차이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발화(natural pronunciation)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 6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1992)의 영어발음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음 교육목표 중의 하나는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소의 정확한 발화에 기초하여, 연접, 호흡단위, 강세, 억양, 리듬 등의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의 속도에 따른 음운 변화를 인지뿐만 아니라 분절음(segmentals)과 초분절음(suprasegmentals)의 정확한 발음에 기초하여 말의 속도와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즉 후어휘 음운현상을 잘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발음교육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발화는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과 강세, 억양, 리듬과 같은 초분절음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말의 속도와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즉 후어휘음운현상을 알맞게 적용한 발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Chastain(1971: 237)은 발음 지도 단계를 “초급단계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대신,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규칙에 있어서보다는 뜻의 전달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초급단계에 있어서 적절한 발음지도는 분절음소, 간단한 발화를 위한 서술과 질문, 그리고 강세와 리듬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중급과 상급 단계의 발음지도는 복잡한 문자의 이음과 억양, 그리고 모국어 화자가 회노애락을 표시할 수 있는 정의적 장치 등의 능력 배양하기까지를 포함한다.”와 같이 주장하였다. Chastain(1971)의 초급 단계에서는 분절음과 강세와 리듬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중급과 상급 단계에서는 복잡한 문자의 이음과 억양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분절음의 학습, 초분절음의 학습 그리고 후어휘음운론(Postlexical Phonology)적 발음의 학습을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Ladefoged(1993)는 원어민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의 발화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발음으로 취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약화, 탈락, 축약, 연음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강약에 의한 리듬이 있게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후어휘음운론적 음운 현상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약화, 탈락, 축약, 연음 등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강세에 의한 리듬이 나타나지 않거나, 후어휘음운론적 음운 현상을 알맞게 발음하지 못하면, 원어민에게는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절적 요소에서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축음과 축음화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현상을 살펴봄으로서 다문화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영어의 자연스러운 발화의 방안을 살펴보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후어위적 단위의 발음에서 발생하는 한국어의 축음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발음의 표시 차원

발음의 표시 차원은 <표 1>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 언어에 내재해 있는 기저형(Underlying Form) 차원과 어휘 규칙(Lexical Rule)이 적용되어 어휘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적 음운적 표시(Lexical Phonological Representation) 차원 그리고 후어휘 규칙(Post-lexical Rule)이 적용된 체계적-음성적 표시(Systematic Phonetic Representation) 차원이다. 마지막 차원은 체계적-음성적 표시를 수치(scale value)로 나타낸 추상적인 음성 표시의 차원을 벗어난 물리적, 음향음성적 표시(Physical Acoustic Representation) 차원이다(Jensen, 1993: 27).

이러한 표시 차원의 근거가 되는 어휘음운론, 후어휘적인 운율층위이론(Prosodic Hierarchy)과 음조단위(Tonal Unit)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음성적인 발음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들 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상 차이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음성적인 발음 변화에 연계하여, 이를 물리적-음향적 수치로 표시하기 위한 음향음성학의 일반 연구를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의 근거로 제시한다.

### 2. 어휘음운론적 현상

어휘음운은 음운규칙에 의하여 도출되고, 이것은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추상적인 발음 표시와 어휘음운적 규칙에 의하여 음운현상(phonological phenomena)으

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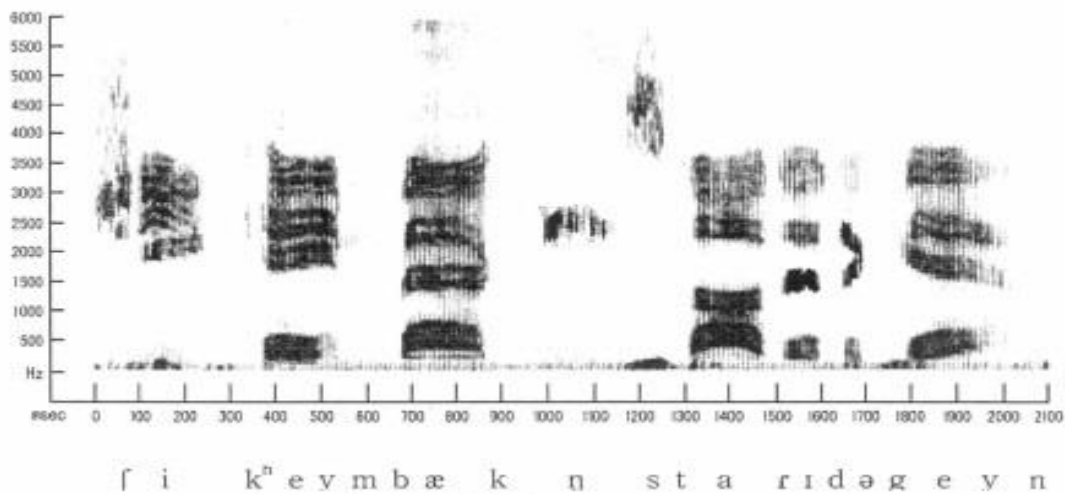
어휘음운론적 음운현상은 후어휘음운현상과는 달리 어휘 안에서만 일어나는 분절음의 변화, 탈락, 삽입 등을 말한다. 영어의 어휘음운현상으로는 강세규칙과 연계되는, 외율성(Extrametricality)규칙, 모음이완규칙(Vowel Laxing), 리듬규칙(Rhythm Rule), 모음변화(Vowel Shift), 유성음화와 무성음화(Devoicing), 비음동화(Nasal Assimilation), 구개음화(Palatalization), 마찰음화(Spirantization), 탈락(Deletion), 삽입(Insertion) 등이 있다.

### 3. 분절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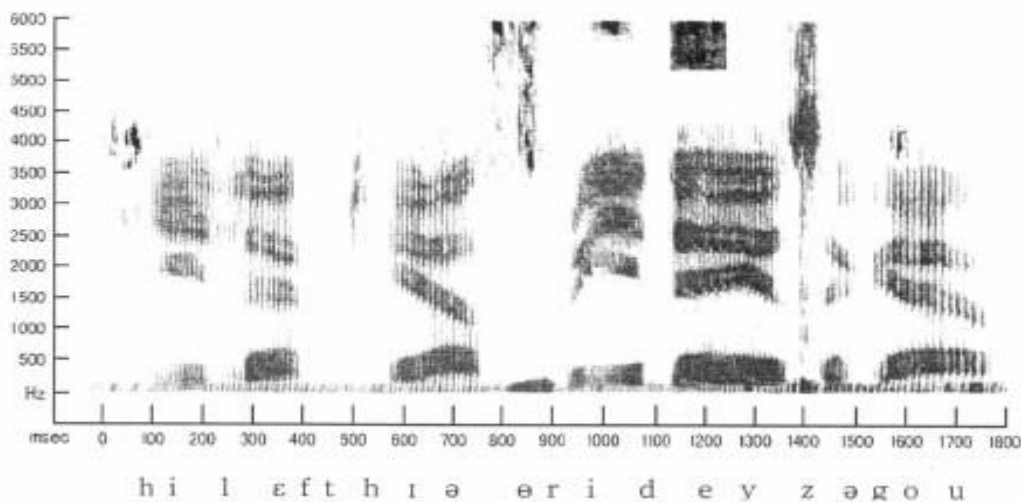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Ladefoged 자신의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ʃ/의 마찰소음 에너지 정점 주파수가 /s/보다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she/와 /back/의 모음 끝의 2, 3 포만트가 모아지고 있는데, 이는 모음 뒤에 연구개음 /k/가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림 1>에서 'came'의 /k/에서는 폐쇄구간과 파열과 함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보이고 있어 유기 파열음임을 알 수 있으나, 'started'의 /t/에서는 폐쇄구간만 보일뿐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보이고 있지 않아 무기파열음임을 알 수 있다. 'came'의 모음 끝의 포만트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은 뒤에 양순음이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back/의 모음 앞의 포만트가 올라가는 모습 또한 모음 앞에 양순음이 있음을 알려준다. /started/에서 3, 4 포만트가 내려가고 있지 않으므로 /r/을 발음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는 /three/에서 모음의 3, 4 포만트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r/을 발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발음 표시 차원

	차원	근거	특징
a	체계적, 음소적	목록화된 기저 표시	탄설음화, 성문음화, 이중모음, 연구개음, 비음 등이 없음
b	어휘적, 음운적	어휘 규칙에 의하여 (a)로부터 도출됨	이중모음, 연구개음, 어휘적 음운현상 등이 있음
c	체계적, 음성적	통사적 결합과 후어휘 규칙으로 (b)에 의하여 도출됨	성문음화, 기식음화, 탄설음화 등 음성적 현상이 도출됨
d	물리적, 음향적	음성적 실현과 비언어 요인으로 (c)에 의하여 도출됨	분절음이 불분명하고 무강세 모음이 선택적으로 탈락됨



〈그림 1〉 자음 분석의 예 1(Ladefoged(1993: 204))



〈그림 2〉 자음 분석의 예 2(Ladefoged(1993: 205))

〈표 2〉 자음의 특징

자음	특징
유성	성대의 진동에 따른 수직적 줄무늬
양순음	2, 3 포만트의 소재지(locus)가 상대적으로 낮다.
치구개음	2 포만트의 소재지(locus)가 1700-1800 Hz이다.
치경음	2 포만트의 소재지가 높다. 2 포만트와 3 포만트 변이(transition)의 출발점이 같다.
반전음	일반적으로 3, 4 포만트가 낮아진다.
파열음	무성 파열음은 갑작스러운 파열을 보이며 유성 파열음은 포만트의 시작이 빠르다.
마찰음	특히 높은 진동 영역에서의 갑작스러운 마찰이 일어나며, 조음 장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비음	모음과 비슷한 구조의 포만트를 나타내지만 250, 2500, 3250 Hz에서 포만트를 형성한다.
측음	모음과 비슷한 구조의 포만트를 나타내지만 250, 1200, 2400 Hz에서 포만트를 형성한다. 그러나 높은 포만트는 강도에 있어서 약해진다.
근사음	모음과 비슷한 포만트 형태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변한다.

Ladefoged(1993: 203)는 자음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로그램 상에 나타나는 자음의 특징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S시 교육연수원과 K도 K대학교에서 연수에 참가한 선생님들 40명을 대상으로 녹음하였다. 그리고 원어민은 북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3명이고 교재의 녹음 지역은 뉴욕이다.

40명을 대상으로 녹음을 하였으나, 잡음이 많이 들어갔거나, 녹음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경우와 발화 속도가 너무 느린 녹음 내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잡음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녹음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는 발화 속의 단어를 연결하여 발음하지 않고 낱말개를 발음하여 리듬이나 음운구 층위, 억양구

층위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발화속의 성대 진동개방시간보다 훨씬 길게 나오게 된다. 따라서, 잡음이 많이 들어갔거나, 발화 속도가 너무 느린 녹음 내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10명의 교사들은 영어 심화 연수 또는 외국어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 2. 녹음 내용 선정 기준

어휘음운론의 분절적 자질과 초분절적 자질 그리고 음운 현상, 운율 층위와 후어휘음운 현상, 음조 단위,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 조직 차이에 의한 측음화, 음운재구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녹음 내용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측음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3. 녹취 발화와 분석 요인

녹음자료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북미 영어로 녹음된 12개 문장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3>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분포(N은 원어민, E는 초등학교 교사, S는 중등학교 교사를 의미함.)

지 역	원어민			경북			서울						
				초등			초등			중등			
녹음 인원	3			20			10			10			
분석 인원	3			3			3			4			
구 분	N 1	N 2	N 3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성 별	남	여	여	여	여	남	여	여	여	남	남	남	여
나 이	30대	40대	20대	40대	30대	40대	30대	30대	20대	30대	30대	30대	30대

<표 4> 발화 선정 기준표

대항목	소항목	선 정 기 준
분절음	자음	① 유성음과 무성음
		② 어두운-1과 밝은-1
		③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 음소 (/p, t, k, b, d, g/)
		④ 치찰점과 치찰 영역 측정 음소 (/s, z, ʃ, ʒ, tʃ, dʒ/)
		⑤ r#, r + 활음, r + 모음, r + 자음, r을 포함한 자음군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
		⑥ 측음화

〈표 5〉 녹취 내용 및 분석 내용

발화 번호	녹취 발화	발화의 분석 내용
1	Well, her mother is your nephew Tony's sister-in-law.	어두운-1, 연결의 r, 구개음화, 복합어 강세, 중핵어 강세, 성대 진동개방시간, 측음화, 치찰성, 리듬, 등시성
2	Are you only having coffee for breakfast?	연결의 r, 측음화, 억양, 성대 진동개방시간
3	If we get it fixed up, the whole neighborhood will improve.	탄설음화, 중핵어 강세, 측음화, 어두운-1과 밝은-1, 삽입모음, 치찰성, 억양, 리듬, 비개방성

〈표 6〉 발화 1에 대한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발음 분석 요인표

발화	분석 내용	N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1	측음화											
	어두운-1											
	밝은-1											

〈표 5〉의 녹취 내용과 분석 내용을 예를 들어 발화 1에 대한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발음 분석을 〈표 6〉과 같은 요인표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 4.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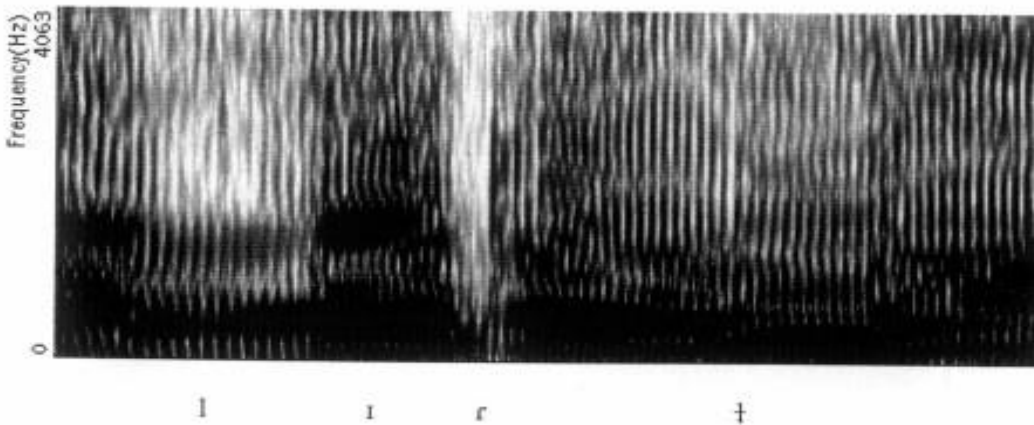
측음은 250, 1200, 2400 Hz에서 포만트가 나타난다. 특히 /l/은 어휘음운론적인 발음에서는 ll로만 표기되지 만 후어휘음운론적인 발음에서는 연구개음화된 어두운-1 과 연구개음화되지 않은 밝은-1로 실현되게 된다. 어두운-1은 모음과 같이 음절성을 띤 것이어서 인접 모음의 포만트와 비슷한 강도를 보인다. 반면 밝은-1은 인접 모음의 포만트보다 강도가 약한 포만트 구조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포만트가 인접 모음의 강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국인 교사들의 밝은-1과 어두운-1을 어떻게 발음하는 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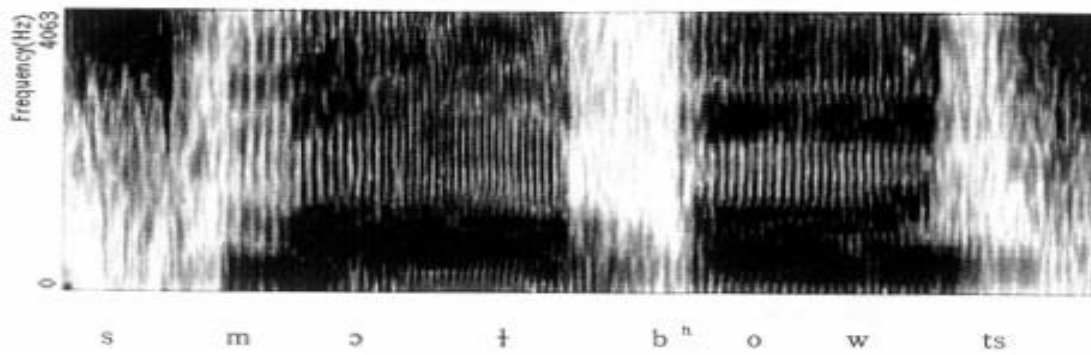
〈그림 3〉에서 /little/의 첫 번째 /l/은 밝은-1로 두 번째 /l/은 어두운-1을 발음되는데, 어두운-1은 모음에 가깝게 음절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밝은-1은 포만트만 나타내고 있다.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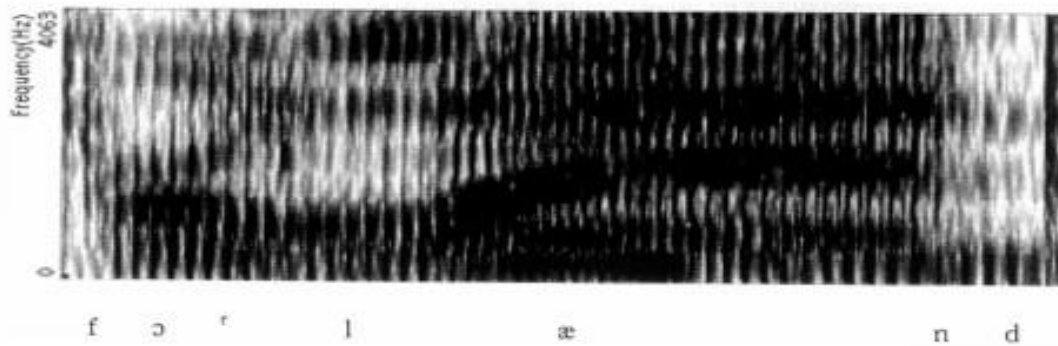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교사 10명(초등 교사 6명, 중등 교사 4명)의 3개 발화를 대조분석한 결과, 한국인 영어 교사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원인을 분절적 자질, 초분절 적 자질, 그리고 후어휘 음운현상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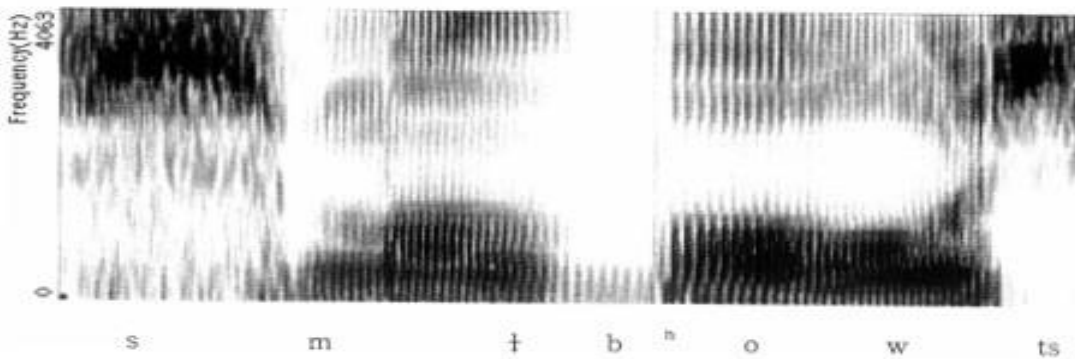
〈그림 3〉 ‘little’에서의 어두운-1과 밝은-1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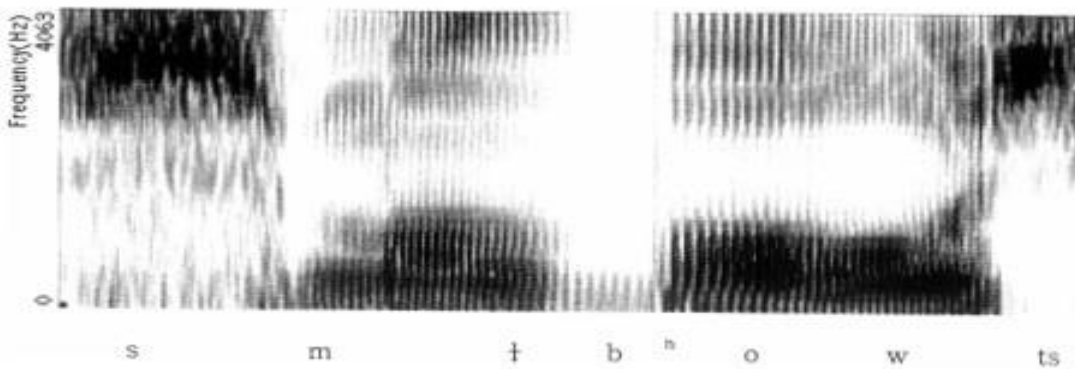
<그림 4> 원어민의 'small boats'에서의 어두운-



<그림 5> 원어민의 'for land'에서의 밝은-



<그림 6> S 1의 'small boats'에서의 어두운-



<그림 7> S 1의 'for land'에서의 밝은-

### 1. 분절적 자질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발음

측음 /l/이 환경에 따라 연구개음화 된 어두운-1과 연구개음화 되지 않은 밝은-1로 발음되는데, 한국인 교사들이 환경에 따라 밝은-1과 어두운-1을 구별하여 발음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측음 /l/은 환경에 따라 연구개음화된 어두운-1과 연구개음화 되지 않은 밝은-1로 크게 대별되어 발음되는데, 한국인 교사들은 환경에 따라 /l/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어두운-1과 밝은-1의 실현 상황을 스펙트로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 4>에서 <그림 7>까지와 같다. 원어민과 S 1은 'small boats'의 /l/을 어두운-1로 발음하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small'의 /l/은 모음과 같은 포먼트가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음과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림 5>와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원어민과 S 1은 'for land'의 /l/은 밝은-1로 발음하고 있다. 어두운-1과는 달리 밝은-1은 모음과 같은 포먼트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가 모음보다 작아 스펙트로그램에서 주위 모음보다 연하게 나타난다. <그

림 6>에서는 [s]의 3, 4 포먼트가 아래가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이 발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밝은-1과 어두운-1의 실현 상황을 살펴보면 <표 7>과 <표 8>과 같다.

<표 7>과 <표 8>에 의하면 한국인 교사들은 어두운-1과 밝은-1을 제대로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어두운-1을 거의 발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두운-1로 발음해야 하는 'small'의 경우에 있어서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3명이 밝은-1로 발음하고 있으며, 'well'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등 교사 모두가 밝은-1로 발음을 하였고, 중등의 경우에는 1명의 교사만이 어두운-1로 발음하고 있으며, 'whole'의 경우에도 'well'과 'mal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 교사 모두가 밝은-1로 발음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에는 단지 1명의 교사만이 어두운-1로 발음하고 있다. 그러나 밝은-1은 한국인 교사들이 거의 발음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in-law'의 'law'의 경우에는 초등 교사가 50%, 중등 교사가 33.3% 정도가 측음화<sup>1)</sup>를 적용하였고,

<표 7> 밝은 /l/의 상황에서 밝은 /l/로 발음한 경우(숫자는 밝은-1로 발음한 경우의 수를 의미함.)

단어	P												초등	중등
	N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Felicia	1		1	1	1		1	1	1	1	1	1	4/4	4/4
along	1		1	1	1		1	1	1	1	1	1	4/4	4/4
salad	1	1	1	1	1	1	1	1	1	1	1	1	6/6	4/4
law	1	[n]	[n]	1	[n]	1	1	[n]		[n]	1		3/6	1/3
only	1	1	[n]	1	[n]	1	[n]	[n]	[n]	[n]	[n]	[n]	3/6	0/4
land	1	1	1	1	1	1	1	1	1	1	1	1	6/6	4/4
immediately	1	1	1	1	1	1	1	1	1	1	1	1	6/6	4/4
chocolate	1	1	1	1	1	1	1	1	1	1			6/6	3/3
합계	8/8	5/6	6/8	8/8	6/8	6/6	7/8	6/8	6/7	6/8	6/7	6/7	38/44	22/30

<표 8> 어두운-1의 상황에서 밝은-1로 발음한 경우(숫자는 밝은-1로 발음한 경우의 수를 의미함.)

단어	P												초등	중등
	N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tables	‡	1	1	1	1	‡	1	1	1	‡	‡	‡	5/6	2/4
whole	‡	1	[n]	1	1	1	1	1	1	‡	1	‡	5/6	3/4
small	‡	1	1	1	1	1	1	‡	1	1	1	‡	6/6	3/4
well	‡	1	1	1	1	1	1	1		1	‡	‡	6/6	2/3
평균	0/4	4/4	4/4	4/4	4/4	3/4	4/4	3/4	3/3	2/4	2/4	2/4	22/24	10/15

1) 측음화는 /nl/에서 [ll]처럼 /n/이 /l/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l/이 /n/으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시켰음.

'only'의 경우에는 초등 교사가 50%, 중등 교사가 100% 정도로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표 8>에서 어두운-1로 발음하여야 할 'whole'의 경우에는 초등 교사 한 명이 /l/을 [n]으로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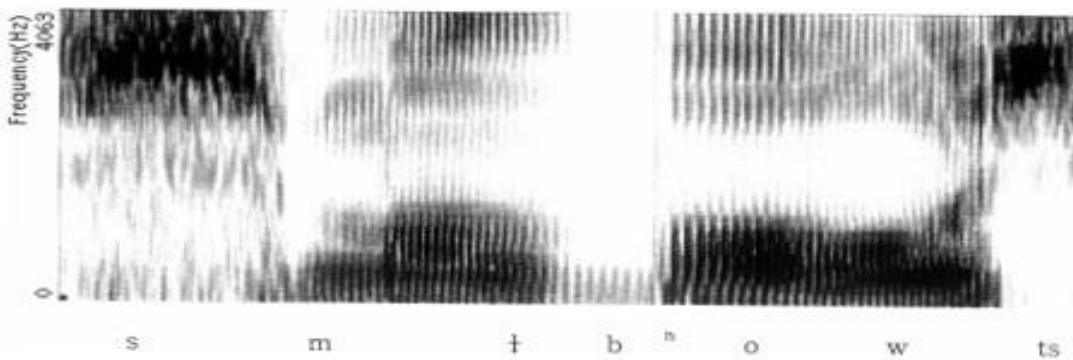
## 2. 후어휘 음운론적 측면에서의 축음화

본래 축음화는 /n l/을 [nn]로 발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nn]로 발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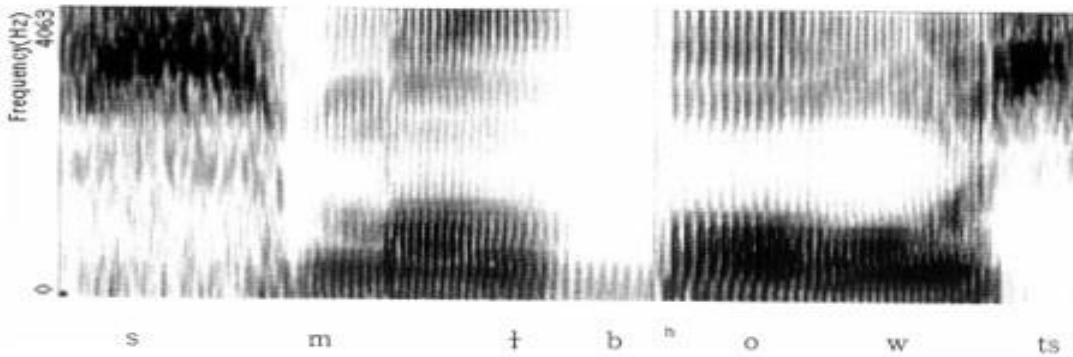
로 발음하는 경우도 축음화의 한 부류로 보고 분석하였다. 원어민의 'only'에서의 축음화 적용 유무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원어민의 /sister-in-law/에서의 축음화 적용 유무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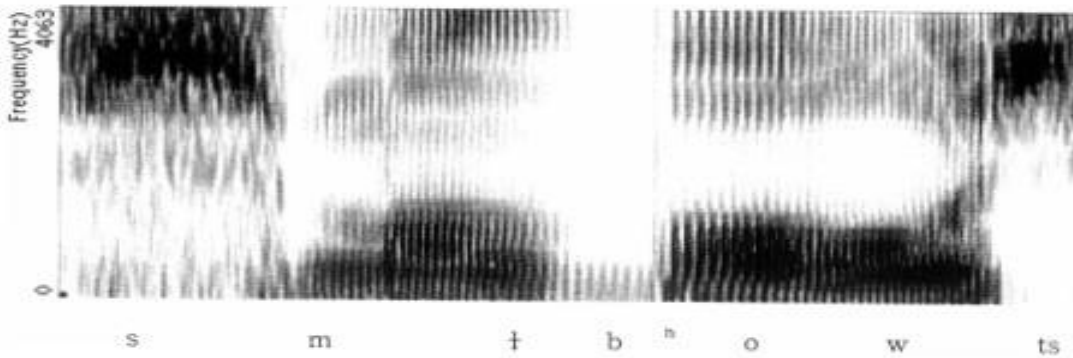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음운구 /whole neighborhood/에서의 축음화 적용 유무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는 축음화가 적용되지 않아 /n/과 /l/이 구별된다.



<그림 8> 원어민의 only에서 축음화 미적용



<그림 9> 원어민의 in-law에서의 축음화 미적용



<그림 10> S 4의 'whole neighborhood'에서 축음화 적용

〈표 9〉 축음화 적용 상황([nn], [ll]은 축음화를 적용하였음을 의미하고 [ln], [nl]은 축음화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숫자는 축음화를 적용한 경우의 수를 의미함.)

단어	P												초등	중등
	N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only	[nl]	[ll]	[nn]	[nl]	[nn]	[ll]	[nn]	[nn]	[nn]	[nn]	[nn]	[nn]	5/6	4/4
in-law	[nl]	[nn]	[nn]	[nl]	[nl]	[nl]	[nn]	[nn]		[nn]	[ll]		3/6	3/3
whole neigh	[ln]	[ll]	[nn]	[ll]	[ll]	[ln]	[ll]	[ll]	[ll]	[ll]	[ll]	[ll]	5/6	3/4
계		3/3	3/3	1/3	2/3	1/3	3/3	3/3	2/2	2/3	3/3		13/18	10/11

〈표 10〉 /l/의 실현(숫자는 밝은-이로 발음한 경우의 수를 의미함.)

단어	P												초등	중등
	N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밝은-이	6/6	6/7	8/9	9/9	7/9	6/7	8/9	7/9	7/8	6/9	6/8		44/50	26/34
어두운-이	4/4	0/4	0/4	0/4	0/4	1/4	0/4	1/4	0/3	2/4	2/4		1/24	5/15

〈표 11〉 축음화 적용 상황(숫자는 축음화를 적용한 경우의 수를 의미함.)

단어	P												초등	중등
	N	E 1	E 2	E 3	E 4	E 5	E 6	S 1	S 2	S 3	S 4			
only	[nl]	[ll]	[nn]	[nl]	[nn]	[ll]	[nn]	[nn]	[nn]	[nn]	[nn]	[nn]	5/6	4/4
in-law	[nl]	[nn]	[nn]	[nl]	[nl]	[nl]	[nn]	[nn]		[nn]	[ll]		3/6	3/3
whole neigh	[ln]	[ll]	[nn]	[ll]	[ll]	[ln]	[ll]	[ll]	[ll]	[ll]	[ll]	[ll]	5/6	3/4
계		3/3	3/3	1/3	2/3	1/3	3/3	3/3	2/2	2/3	3/3		13/18	10/11

음운구, 접어군, 음운단어에서 축음화 적용 상황은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음운단어 /only/에서는 E 3을 제외한 초등과 중등 교사 모두가 축음화를 적용하였고, 접어군 /in-law/에서는 E 3, E 4, E 5를 제외한 초등 중등교사 모두가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음운구 /whole neighborhood/에서는 E 5, S 3을 제외한 초등, 중등 교사 모두가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한국인 교사들은 운율층위에 관계없이 축음화를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의 실현에 관련하여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교사들이 위치에 관계없이 거의 밝은-이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은-이로 발음되어야 할 환경에서, 초등 교사는 50개의 경우 중 44개의 경우에서, 중등 교사는 34개의 경우 중 26개의 경우에서 밝은-이로 발음하였다. 그러나 어두운-이로 발음하여야 할 환경에서, 초등 교사는 경우에는 24개의 경우 중 1개의 경우에서, 중등 교사는 15개의 경우 중 5개의 경우에서 어두운-이로 발음하였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축음

화를 할 상황이 주어지면 자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단어 ‘only’에서는 E 3을 제외한 초등과 중등 교사 모두가 축음화를 적용하였고, 접어군 ‘in-law’에서는 E 3, E 4, E 5를 제외한 초등 중등교사 모두가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음운구 ‘whole neighborhood’에서는 E 5, S 3을 제외한 초등, 중등 교사 모두가 축음화를 적용하였다.

한국인 교사들은 운율층위에 관계없이 축음화를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변화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영어발화를 위하여 한국인의 영어발화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영어발화의 현상

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절음, 초분절음, 어휘음운론, 후어휘 음운론에 의한 자연스러운 발음 또는 유창한 발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Visi-Pitch, Multi-Speech, Praat 등의 음향음성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인 영어교사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과 대조·분석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유형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음된 3개의 원어민의 발화와 10명의 초·중등 교사에게서 녹음한 12개의 발화를 어휘 이전 단계(음절과 음보 층위), 어휘 단계(음운 단어 층위), 어휘 이후의 단계(접어군, 음운구, 억양구, 발화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초·중등 교사들의 부자연스러운 발화의 원인을 분절적 요소, 초분절적 요소 그리고 후어휘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어휘음운적 현상은 기저형에 어휘규칙이 적용된 사전적 발음이라 할 수 있고, 후어휘음운적 현상은 사전적 발음이 아니라, 실제 발화 상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발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어휘적 음운 현상은 모국어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나 외국어 학습 환경에서는 어휘음운 현상과 마찬가지로 학습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어휘음운적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어민에게 외국인의 발음처럼 들리게 된다.

한국인 교사의 발화를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절적 요소인 밝은-1로 발음되어야 할 환경에서, 초등 교사는 88.8%, 중등 교사는 76.5%가 밝은-1로 발음하였다. 그러나 어두운-1로 발음하여야 할 환경에서, 초등 교사는 4.2%, 중등 교사는 33.3%가 어두운-1로 발음하였다. 즉, 한국인 교사들이 음절성을 띠는 어두운-1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한국인 교사들이 어두운-1과 밝은-1이 발음되는 환경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1을 발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후어휘 음운현상의 하나인 측음화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 교사 72.2%, 중등 교사 90.9%가 측음화를 적용하였다.

측음과 관련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밝은-1과 어두운-1의 차이를 발음지도 초기에 청취적 차이를 통한 발화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후어휘적 발화상황에서도 밝은-1과 어두운-1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음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어 음절조직과 영어의 음절조직의 차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음절조직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발화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음절조직의 차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기섭(1993) 「영어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_\_\_\_\_(1996) 「영어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_\_\_\_\_(1998) 「영어음운론 응용」, 서울 : 한국문화사.  
 허웅(1983) 「국어학」, 서울 : 샘문화사.  
 황희영(1990) 「국어음운론 개설」, 서울 : 한국문화사.  
 Chastain, K.(1971) *The Development of Modern Language Skills : Theory to Practice*, Philadelphia : Center for Curriculum Development.  
 Jensen, J.(1993) *English Pho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Johnson, K.(1997) *Acoustic and Auditory Phonetics*,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_\_\_\_\_(1996) *Elements of Acoustic Phonetics*,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Ladefoged, P. & I. Maddieson(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 Abstract

# The Analysis of English and Korean English Teachers' Laterals for Natural Pronunciation

Lim, Un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unnatural pronunciation of Korean English teachers in situation of improving the importance of English and Korean communication. Unnatural pronunciations are caused of the differences between mother tongue and foreign language. For this study, 40 Korean English teachers' pronunciation, but actually 10 teachers' pronunciations was analyzed because of some problems. In this study, Praat Acoustic Analysis Program was used. Finding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even though English teacher pronounced dark-l and clear-l differently, Korean English teachers pronounced usually clear-l. Actually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dark-l and clear-l, because in Korean pronunciation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them. Second, Korean English teachers applied lateralization in their English pronunciation. In other words, they applied lateralization of Korean pronunciation rule in their English pronunciation. Through this study, we can guess the needs of teaching the differences lark-l and clear-l in the beginning of teaching pronunciation for natural pronunciation. And through understanding lateralization of Korean pronunciation, we need them not to apply Korean pronunciation rules in their English pronunciation.

**Key words:** Natural pronunciation, Lateralization, Clear-l, Dark-l, Post-lexical Phonology

**\*필자 정보**

**임 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분야는 영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영어듣기학습에서의 듣기전략 사용과 성별이 모의 TOEIC 듣기성적에 미치는 영향”(교원교육, 2019),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교원교육 2017), “TOEIC 듣기평가에서 성취도에 따른 듣기전략별 남녀 대학생의 사용정도의 차이에 관하여”(교원교육, 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음향분석을 통한 발음지도”(한국문화사, 2013),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도서출판 신정, 2019) 등이 있다.

\*E-mail: cloud@gwnu.ac.kr

# 외국인유학생 정책과 지방대학의 발전 :강릉원주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sup>1)</sup>

김 규 찬(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문초록

외국인유학생은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자원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의 의의, 구조 및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이어 강릉원주대학교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현황과 주요 전략을 분석한 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유학생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정착지원을 외국인정책(이민정책)의 주요 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편, 교육부, 지자체 및 강릉원주대학교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통합 강원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의 발전을 위해 유학생의 다양성 확대, 진로 유형별 유학생 관리,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지역 이주배경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민정책, 외국인유학생, 지방대학, 글로벌대학30, 강릉원주대학교

## I. 서론

내국인 입학자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국내 상당수 대학은 학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지역과 대학의 생존·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유학생의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글로벌 인재(두뇌)확보를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

방안을 동원하여 한국으로의 유학을 유도하고 있으며(김규찬, 2021), 그 결과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이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학생관련 정책을 고도화하여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자주 언급되는 강원도에 소재한 강릉원주대학교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별히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자원으로 외국인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이 고등교육을 지탱

1) 본 논문은 2023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정책연구보고서 「우리 대학의 국제화 현황 및 발전방안」의 제3장(필자 작성분)을 보완한 것임.

하는 현상은 이미 주요 유학 대상 국가들에서 폭넓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한국정부의 주요 외국인유학생 정책의 의의, 구조 및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이어 강릉원주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주요 발전 전략을 분석한 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II. 외국인유학생 정책: 의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1. 이민정책과 외국인유학생 정책

유학생을 전문인력이나 투자이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유치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에 대해 매우 통제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보여 온 한국의 이민정책의 역사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김규찬, 2022). 한국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서비스의 소비자(학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재학 중 및 졸업 후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우수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곽윤경 외, 2021; 김규찬, 2021).

이러한 다면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외국인유학생은 한국의 이민(정책)레짐에서 매우 선호되는 이주민의 유형으로 프레임된다. 교육정책 측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지탱하는 대안적인 자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며, 노동정책적 측면에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유학생이 준전문 혹은 전문인력으로서 졸업 후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자원으로 간주된다. 분명한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

업 문제로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비전문이주노동자에 비해, 외국인유학생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이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고 부른다.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차에서 제3까지 15년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법무부, 2008; 2018). 최근 종료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수립된 외국인유학생 관련 정책은 정책목표 1의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의 중점과제 1에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제1, 2차 기본계획에 담긴 외국인유학생 정책이 우수 유학생의 유치에 초점을 두어온 반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이들의 유학이후 취·창업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착까지를 고려하는 보다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었다(법무부, 2018: 25).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출신국을 다변화하며, 지역 산업 및 특성화된 학문 분야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법무부, 2018: 30).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국가와 대학을 확대하는 한편, 박람회 방식을 다변화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또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하고 외국대학에 대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추진해 왔다(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에 대해서는 후술하였다).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이들의 ‘유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우수 유학생들의 졸업 후 정착·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주 인프라 강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학생 정주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의 예로, 우수한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직비자(D-10)가 도입되었다. 외국인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정착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학과 취·창업의 연계를 확대(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협력)하고,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 선발하고 및 지방대학의 이공계 전문학사 트랙으로 유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유학생 채용박람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2.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유학’은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성공적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결과로 한국은 아시아 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주민이 유입되는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김규찬, 2022; Kim, 2017).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유형의 이주민 유형 중 외국인유학생은 선호되는 이주민 집단으로서, 2000년대 들어 정부는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Study Korea Project,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등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국내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해왔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외국인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주민이라는 전제로 이들을 국내로 유치,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 그리고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추진되고 있다(백성준, 2015).

이 중 ‘Study Korea Project’는 국내대학에 외국인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에 (1)국제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세계화 촉진 및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자원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에서 교육수출 경쟁력을 제고, 유학연수수지 적자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김선태, 2005), 이후 세 번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교육부보도자료,

2023).

수립 초기 설정된 Study Korea Project의 정책 영역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 개선, 유학관련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 유학 홍보 강화, 효율적 행정 지원체제 구축이다. 최근 Study Korea Project는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를 넘어 유입되는 유학생의 질적 수준 제고, 관리 및 정착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와 범위가 변화되고 있다(교육부, 2023c).

Study Korea Project의 대표적 성과로서 구축된 ‘한국 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정보제공)를 비롯하여 유학생의 입학·입국, 수학, 졸업, 출국의 전 과정에 걸쳐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비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였다. 한국 유학 홍보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내용은 한국유학박람회(Study in Korea Fair) 개최이며,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외에서 개최해 왔다.

주목할 점은 지자체도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의 생활·문화 정보와 특성을 집중 홍보하는 ‘지자체 특화 박람회’는 평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예비 한국 유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별관에 대한 온라인 홍보(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 문화유적, 관광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지역 대학과 함께 실시간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번역 채팅 상담(Uni-Talk, 다국어 번역)을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실시간 문답을 제공하기도 했다(교육부, 2023b).

최근 코로나19로 약화되었던 전 세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 유학생 유치

〈표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학위과정)

분야		세부지표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평가영역	전략 및 선발	1.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2.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3.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지원	1.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2.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3.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유학생 관리 및 성과	1. 중도탈락률
		2.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3.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재학/공통)
		4.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출처: Study in Korea, [https://www.studyinkorea.go.kr/ko/study/certified\\_intro.do](https://www.studyinkorea.go.kr/ko/study/certified_intro.do)

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2023c)는 2023년에 새로운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인 '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면서 외국 인유학생 유치목표를 30만명으로 설정하였다. 이 프로젝트 준비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대학,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련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안전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유학 후 국내 취업과 정착 등 유학생의 성장 경로, 대학의 유학생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한국교육원과 함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교육부보도자료, 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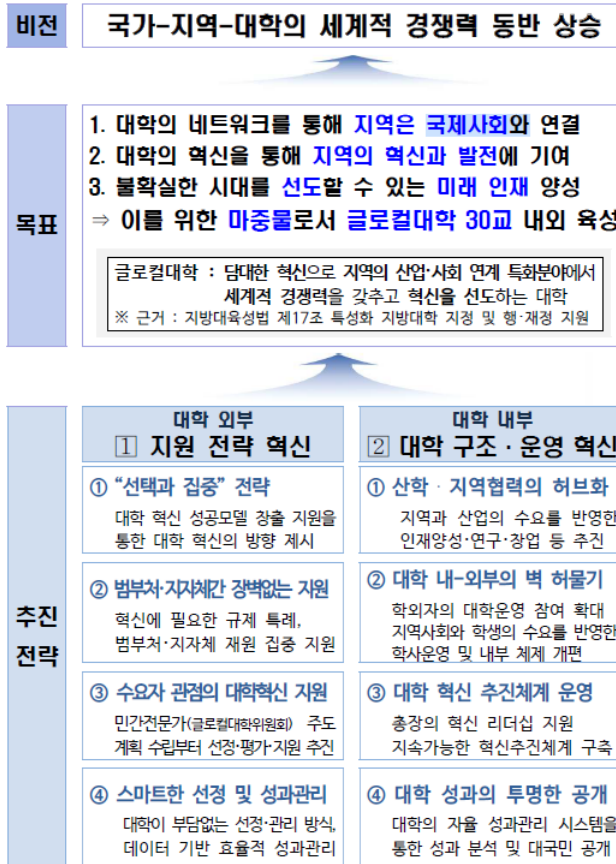
한편,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자 시도해 왔다. IEQAS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인증을 희망하는 대학(교육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는 제외)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심사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제재기간(1년) 이후 별도의 해제 심사없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차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인증 요건은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을 비롯하여,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등 '전략 및 선발' 영역, 유학생 학업 및 생활지원 등의 '유학생 지원' 영역, 중도탈락율 및 유학생 만족도 관리 등의 '유학생 관리 및 성과' 영역에 걸쳐 총12개의 지표에 달한다(표 1). 2023년 3월 기준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중 120개교가 인증을 부여받았고, 일반대학 중 우수인증대학으로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다.

### 3. '글로벌대학 30' 사업

교육부는 2023년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등의 심대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혁신 정책으로서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수립·추진 중이다(교육부, 2023). '글로벌대



〈그림 1〉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출처: 교육부(2023: 4)

학이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정의된다(법적 근거는 「지방대육성법」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행·재정 지원).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대학 혁신을 이끌 글로벌대학 30개(내외)를 선택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가, 지역,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외부적으로는 ① “선택과 집중” 전략 ②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③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④스마트한 선정 및 성과관리를 통해 지원하고, 대학 내부적으로는 ①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②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③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④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대학 구조와 운영의 혁신을 달성한다는 전략

을 제시하였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주 문제는 이 사업과 여러 측면에서 폭 넓은 접점을 가진다. 입학 자원과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방대학은 존립을 위협받고 지역은 경제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유학생의 유입(입국), 수학, 졸업 후 취업 및 지역 정착은 대학과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문제와 상당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글로벌대학 30’ 계획(안)에서 유학생 규모를 전체 학생의 50% 이상으로 유치하고 이중 언어 수업을 제공하는 일본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특화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어, 전문용어 훈련, 상호문화적응 훈련 등

외국인 유학생-지역특화산업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독일 미텔슈탈트대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

### III. 강릉원주대학교의 대응 : 현황과 전략

#### 1. 외국인유학생 현황

전국적으로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6,892명으로서 2004년(16,832명)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sup>2)</sup> 외국인의 국내 유학 증가는 국외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이 학교급(초, 중, 고, 대)과 무관하게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 경향이다. 예컨대, 대학의 학위·연수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9만1천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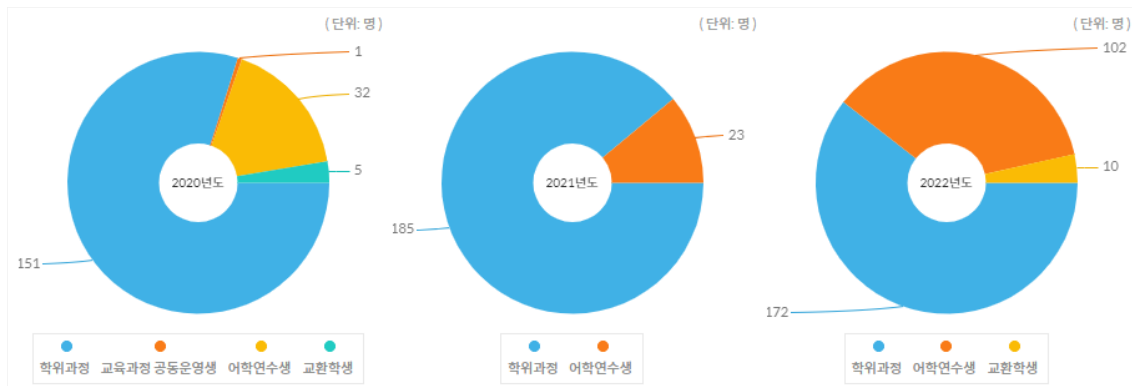
2020년 15만4천명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같은 과정으로 국외로 나간 한국인유학생은 21만4천명에서 19만5천명으로 감소하였다(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학이 중단되기 전 상황임).

강릉원주대학교의 지난 5년 간의 외국인학생현황을 보면 총 외국인유학생 수는 2018년 18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는 28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표 2), 최근 증가는 ‘어학연수생’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학위과정생은 97명에서 172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2018년 91명에서 코로나19영향으로 2021년 23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 112명까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학위과정 외국인유학생 중 어학연수생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4배 넘게 증가한 반면(그림 2), 교환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1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표 2〉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현황 연도별 추이

공시연도	총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대학)	비학위과정					
			소계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2018	188	97	91	2	56	33	0	0
2019	205	115	90	1	64	25	0	0
2020	189	151	38	1	32	5	0	0
2021	208	185	23	0	23	0	0	0
2022	284	172	112	0	102	10	0	0

출처: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lId=0000001>



〈그림 2〉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현황 연도별, 유형별 추이

출처: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lId=0000001>

2)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

〈표 3〉 강릉원주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공시연도	외국 재적학생(A)	총 탈락생수(B)	학위과정 (대학)	비학위과정	탈락율(B/A, %)
2018	143	5	5	0	3.5
2019	188	4	4	0	2.1
2020	205	4	4	0	2.0
2021	189	6	6	0	3.2
2022	208	14	14	0	6.7

출처: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Id=0000001>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도 탈락율’이라고 볼 수 있다(앞서 언급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를 참조할 것). 우리대학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학위과정에만 중도탈락 유학생이 발생했으며, 2021년까지 그 수가 4~6명, 총 유학생 대비 2~3.5%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총 탈락생 수가 14명, 6.7% 수준까지 높아졌다.

## 2.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전략

### 1)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25+’을 통한 전략

강릉원주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25+’는 ‘중부권 최고의 교육 산학 협력 선도대학’이라는 비전과 중부권 10위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코드 R)” 전략의 세부 과제로 ‘R.1. 지역중심 국립대학가치 제고’, ‘R.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R.3.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가 있다.<sup>3)</sup>

특히 ‘R.3.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교육, 관리·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대학의 대외협력실 국제교류팀(내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과제 R.3 달성을 위해 ‘국경없는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해외 자매대학교류 및 국제화프로그램 활성화’,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모집 확대’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 및 지자체 주관 유학박람회 적극 참여, 어학연수 수료생 본교 진학 확대, 교환학생 유치 및 파견 확대를 추진 중이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우수대학 인증을 목표로 제시했다. ‘해외 자매대학교류 및 국제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 확대,

〈표 4〉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화 과제 체계

구분	과제명	과제 목표	핵심 성과지표
과제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홍보 활동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li> <li>• 어학연수 수료생 본교 진학 확대</li> <li>• 교환학생 유치 및 파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학연수생 수</li> <li>• 학위과정 유학생 수</li> </ul>
과제 2	해외 자매대학교류 및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 확대</li> <li>• 재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li> <li>•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외국인 유학생 취업경쟁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 수</li> <li>• 외국인 유학생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수</li> <li>• 한국인 학생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li> </ul>
과제 3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모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li> <li>•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과 협력 체결</li> <li>•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수</li> </ul>

출처: 강릉원주대학교 대외협력실 국제교류팀(내부자료)으로부터 저자 취합

3) 강릉원주대학교, <https://www.gwnu.ac.kr/kr/7668/subview.do>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취업경쟁력 제고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특별히 국제화프로그램 활성화 과제는 후술할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밀접히 연계된 사항이다.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모집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과 협약을 체결하고, 어학연수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통한 전략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사업 대상교 선정을 위해 2023년 5월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서'에도 외국인유학생 유치확대를 포함한 대학의 국제화역량 강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강원1도1국립대(이하 '강원대')는 글로벌 대학도시 비전 구현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1만명'을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표로

제시하였다(그림 3). 외국인유학생 유치 규모의 대폭 확대는 통합 강원대가 내국인 입학정원을 6,283명에서 5,8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기간 내 강원대는 '국제교류혁신센터'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교류혁신센터'는 글로벌 강원대의 대표적 대학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해외에 KNU문화원 운영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입국한 유학생의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정주 지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림 4). 또한 유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림 4). 한편 지자체는 '지역특화형 비자'<sup>4)</sup> 지원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지역정주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그림 5).

아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생'은 국제공동연구, SDGs 및 ESG 성과와 함께 강원대의 '글로벌



<그림 3> 강원1도1국립대 사업 체계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4)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임.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을 참조할 것).

주요 추진 과제	학사운영		프로그램/인프라			
	학과중심 교육 탈피	무전공 입학 확대, 학생자율설계전공, JA제도 활성화	창업 미네르바스쿨	재학생 10% 교과이수, 캠퍼스 이동식 청색기술 연계 실전 창업교육 (창업실습 3천명, 실제창업 20건)	국제교류 혁신센터	외국인유학생 확대(현지 KNU문화원 운영), 일학습병행제 연계 외국인 지역정주 확대 (외국인 유학생 5천명)
	학생선택권 확대	전공이수제도 혁신, 미래융합기상학과,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탐클래스 통합학과	크리틱클래스 기반 캠퍼스 내/간 통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 50위권 진입	원격교육 센터	LRS 공유대학 플랫폼 활용 캠퍼스 간 온라인 부·복수 전공 및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학위과정생 5천명)
	기초 학문분야 지원강화	인문, 사회, 문화, 자연과학 기초분야 등 등록금, 생활장학금 지원, 인문학-디지털 융합 교육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산업체 매칭 지역산업 대응 계약학과, 지역 기업 연계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체험 오픈센터	혁신/기업도시 연계 문제해결형 교육 및 취업학기제 지원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구축 (표준형 현장실습 500명 등)
		KNU i-square 포털	지역사회 기여도 등 데이터 중심 평가, 성과관리, 상시공개 시스템	집중교육 센터	유학생 한국어 집중 교육, 재학생 몰입식 창업/외국어/자격증 교육, 프로젝트 집중학기 (창업사관학교 200명 등)	

〈그림 4〉 강원1도1국립대 사업 주요 추진과제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대학혁신 대표 프로그램 및 전략		대학의 역할	지자체/산업계 역할
강원1도1국립대	다층적 특성화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 지역균형 발전의 핵, 멀티캠퍼스 구축</li> <li>지역특화 산업 연계 학사구조 재구조화</li> </ul>	산업계 JA교원, 계약학과, 대학위원회/캠퍼스위원회
	KNU Expa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대-지역대학-혁신기관 연계 고등교육 체계 구축</li> <li>생애주기 맞춤 지역혁신 인재양성 평생학습 체계 구축</li> </ul>	재직자 재교육 지원, 학습소외지역 원격교육 시설장비 제공
KNU-창업밸리	청색기술 창업미네르바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색기술 연계 경험중심 창업 실습 교육(재학생10% 이상)</li> <li>캠퍼스혁신파크 입주기업 연계 실제창업</li> </ul>	지역산업/사회 현안문제 제공, 실제창업 멘토링
	현장체험 오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융합캠퍼스, 기업도시, 혁신도시 연계 취업학기제</li> </ul>	현장교수, 현장실습장 제공
지역혁신 국제도시	국제교류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지역정주</li> </ul>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일자리 연계
	원격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NU문화원 연계 글로벌 온라인 학위과정, 한국어 과정 운영</li> </ul>	자매도시 연계 KNU문화원 설립 지원
	집중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C기반 프로젝트 집중학기, 외국인 한국어·문화 집중교육</li> </ul>	학습운영비 지원, 공동 프로그램 지원

〈그림 5〉 강원1도1국립대 대학혁신 대표 프로그램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지역사회 기여도 투명한 공개	데이터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평가 연계 지원 강화
<p><b>i-square 포털시스템 내 글로벌 대시보드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정책 및 운영의 효율성과 영향력 제고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li> <li>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용이한 접근 및 성과공유</li> <li>인터랙티브 웹 기반 성과지표 대시보드 운영</li> </ul> <p><b>글로벌 대시보드 영역(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성공(교육성과): 총원율, 다전공학위취득률, 취업률 등</li> <li>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등록금 실질부담률, 입학생 다양성, 지역인재 입학, 편입학 등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회 확대</li> <li>지역사회 기여도 및 영향력: 산학협력 실적, 지역기업 취업률, 지역정주인재수, 구성원 연평균 지역소비액 등</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공동연구, 유학생, SDGs, ESG성과</li> </ul>	<p>명칭과 위상: 글로벌성과관리본부 : 총장직속 독립조직</p> <p>운영 방안: IR(Institutional Research)과 IT 협력기반 데이터 중심의 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p> <p>5대 핵심기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b>i-square 포털시스템 구축</b></p> <p>데이터 거버넌스/통합/분석, 글로벌 대시보드 운영</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b>대학 총괄 성과관리</b></p> <p>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 성과관리위원회 운영</p> </div> </div> <p><b>국내외대학/캠퍼스 평가</b></p> <p>글로벌대학/기관평가인증 대응, 캠퍼스 성과 계약 기반 평가</p> <p><b>한류체제 구축 및 운영</b></p> <p>대학 정책 효과성 검증, 성과지표별 달성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p> <p><b>대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강화</b></p> <p>데이터/자원 공유, 규제개선 발굴을 통한 대학-지자체 정책 제거</p>	<p>성과지표의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대시보드' 기반 핵심 정량지표 중심 성과관리</li> <li>지자체 협력기반 지속가능한 정성지표 발굴 및 성과관리</li> </ul> <p>핵심공통 성과지표: 단과대학/학과 자율성과 지표, 특성화지표, 지역사회 영향력지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핵심공통 성과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대시보드 영역별 핵심공통 성과지표 선정</li> <li>정부, 지자체, 대학 간 재정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로 관리</li> </ul> </li> <li><b>단과대학/학과 자율성과 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캠퍼스별 교육단위(단과대학/학과)의 자율성 지표 제시</li> <li>자율성과지표 기반 단과대학-본부 성과계약 형태 (예) 총원율, 다전공학위취득률, 취업률 등</li> </ul> </li> <li><b>캠퍼스 특성화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대학 간 성과계약 형태의 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예) 캠퍼스-기초지자체 간 지식산협력 지수 등</li> </ul> </li> <li><b>지역사회 영향력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지역산업, 사회 협력 기여도에 따른 영향력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예) KNU 직접고용, 학생 연평균 지역소비액, 경제적 영향력, 지역정주인재 수 등</li> </ul> </li> </ol> <p><b>평가결과 활용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캠퍼스별 인사·재정 재배정, 학사구조 재구조화, 적정규모화, 인센티브 등의 기초데이터로 활용</li> </ul>
<p>KNU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예): Dynamic Regional Economic Model</p> <p>KNU i-square(institutional insights) 포털시스템 운영</p>	<p>글로벌 성과관리본부 운영</p>	<p>캠퍼스 성과계약제도 운영</p>

〈그림 6〉 강원1도1국립대 성과관리시스템

출처: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2023)

경쟁력'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지역 유입과 정주 확대는 통합 강원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IV. 결론: 평가와 제언

정부, 지자체 및 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지역소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외국인유학생의 지역대학으로의 유치 및 정주는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내국인학생 감소에 대한 대체 자원 확보차원만이 아니라 대학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 달리 말해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최근 대학 혁신 요구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

아쉽게도 강원도 소재 강릉원주대학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소극적이었고 유치 규모도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어학연수생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어 정규 학위 과정 유학생 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질적 측면에서 강릉원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돼 인증대학 자격을 유지해온 바 있으며,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전체에서 '인증대학'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sup>5)</sup>

외국인유학생은 학생이자 지역민(소비자, 노동자)으로서 매우 다면적 성격을 지닌다(곽윤경 외, 2021; 김규

찬, 2021). 그러므로 단순히 학생 대체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인력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간, 지역 간, 대학 간 외국인유학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강릉원주대학교가 우수한 외국인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걸·입학, 수학 및 생활, 졸업 후 귀환 혹은 정착의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유학생의 다양성 확대이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편중된 외국인유학생의 출신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본부에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 유학생 발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자매결연 대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하는 전공·학과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통합 강원대가 실현되면 네 개 캠퍼스별 균형있게 유학생 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유학생 유치가 미미한 캠퍼스는 보다 공격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외국인유학생이 선호하고 입학 규모가 큰 전공·학과의 경우는 외국인유학생이 원활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 및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교 졸업 이후 경로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도 요구된다.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이 수학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유형, 강원도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하는 유형, 지역 범주를 넘어 전국 단위로 취업·활동하는 모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진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국으로 바로 귀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대학과 지자체 자원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는 외국인유학생(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전무하다. 기존의 가족센터는 성인 외국인을 위한 지원 기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외국인들 대상 지원서비스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International Students'(경

5) <https://www.gwnu.ac.kr/kr/790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3IIMkYxNjE2JTJGMjE5MjE4JTJGYXJOY2xWaWV3LmRvJTNG>

우에 따라 Men's or Women's Club' 같은 자조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도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대학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학생이 본교 졸업 후 본국으로 귀환하여 교수 등 전문직에 종사하며 한국의 지식, 기술, 문화를 역수출하는 소위 '사회적 송금' 기능을 수행하면 유학을 통해 양국이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모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 본교 출신 유학생(졸업생)들을 네트워크 하고 졸업 이후 한국을 떠난 경우에도 본교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가칭 KNU Global Alumni Network 운영을 제안한다).

끝으로, 기존에 학업 이외 목적으로 입국하여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동포, 기타 장기체류 외국인 및 그 자녀들의 본교 입학·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외국인유학생 신규 유치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들 역시 지역대학으로서 매우 귀중한 교육서비스 수혜자이자 기여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합 강원대학이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주배경 인구와 상호작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글로벌 캠퍼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2023). 「강원대학교 혁신기획서 -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교육부, <https://www.mo>

[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5&renew=72775&m=0316&s=moe&m=0316&s=moe](http://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5&renew=72775&m=0316&s=moe&m=0316&s=moe).

곽윤경, 이병재, 김기태, 김경환, 김규찬 (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741>

교육부 (2023).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 컬대학 30' 추진방안(시안)」, 교육부, <https://www.moe.go.kr>.

교육부 (2023b).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지자체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 보도자료(2023. 4. 14).

교육부 (2023c).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 <https://www.ne.go.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010&atchFileId=2e6870eb70094e2c82d5533b28bf1898&fileSn=2>

김규찬 (2021). '한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두뇌귀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4(3), 5-40.

김규찬 (2022). 「이민정책론」. 경기도: 공동체.

김선태 (2002).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Paper 2005-03.

백성준 (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직업과인력개발」 18(4): 66-79.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36942/download.do>.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

Kim, Gyuchan (2017).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

## Abstract

# Foreign student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y: a case of GWNU

Gyuchan Kim

Foreign students are increasingly being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sourc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higher education.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structure, and key components of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student policies. It then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regarding foreign students at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GWNU). Due to the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hem an integral component of immigration policie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and help them settle in Korea. Likewise, the Ministry of Education, municipal governments, and GWNU have also attempted to recruit foreign students and encourage them to stay local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s foreign student policy, the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he diversification of foreign students, tailored support according to after-graduation plans, global alumni networking, and active engagement with the local immigrant population.

**Key words:** migration policy, foreign student, local university, glocal university,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

### \*필자 정보

**김규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Bath에서 석사학위(MSc),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 이민정책이며 관심분야는 세계화, 국제이주, 이민·다문화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8), “Marriage 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Social Investment beyond the Nation State”(International Migration, 2018), “The patterns of ‘care migrantisation’ in South Korea”(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017) 등이 있으며, 최근 저서로는 「이민정책론」(2022, 공동체) 이 있다.

E-mail: gyuchankim@gwnu.ac.kr

##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세훈 · 백서연 · 오유나 · 조인영 · 조제현 · 지선주 · 최유정(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전재희(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 지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강원도 W시 소재 간호학과 재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9.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에게서 진로 결정 수준은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r=-.45$ ,  $p<.001$ )과 공감 능력( $r=.46$ ,  $p<.001$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7.290$ ,  $p<.001$ ).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감 능력( $\beta=.341$ ,  $p<.001$ ),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beta=.318$ ,  $p<.001$ ), 전공 만족도(보통) ( $\beta=-.267$ ,  $p=.001$ ), 연령군(23세 이상 24세 이하) ( $\beta=.185$ ,  $p=.008$ )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공감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간호대학생, 공감 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진로 결정 수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 자신의 직업을 결정 및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구영애, 2020).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는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업에 대한 고민 없이 간호사로 취업하게 되고,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인 진로 결정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로에 관한 정보탐색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박형숙, 2018). 하지만 대학생활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고 졸업 후 직업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 낮아지면서 이직으로 연결되어 직장 조기이탈을 초래하고 있다(송채은, 김명류, 김순영, 2020).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이외에 임상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과도한 학업량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Timmins & Kaliszer, 2002). 이러한 생활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간호대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학업성취도 저하 및 의욕 상실이 발생 되어 간호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송영숙, 2012). 또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공감' 능력은 환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부족한 공감 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Brunero, Lamont, & Coates, 2010).

꾸준히,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 공감 능력,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건강에는 통제 소재 위치, 본인 스스로 입학한 경우,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주연, 김계하, 2021). 공감 능력에는 자기 인식,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성별과 실습 유무가 간호대

학생의 공감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해진, 이명선, 2015). 진로 결정 수준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이 높을수록, 직관적 의사결정이 높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이 낮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김수을, 2016).

이처럼 각각의 요인들에 해당하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요인을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졸업 후 간호사로서 직무 역할과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김수을, 2016). 우리는 이를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의 측면에서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 수준에 따른 개별화된 도움을 제공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능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능력, 진로결정수준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능력,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능력,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강원도 W시 소재 4개 간호대학에서 편의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8세 이상인 자,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85, 예측변인 10개(일반적 특성 8개, 독립변수 2개)로 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131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10% 고려하여 141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설문조사 url에 160명이 접속하여 설문을 완료하였다. 완료된 설문 중 중복 설문을 하거나 연속적으로 한 번호만 기재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분석에 불충분하다고 파악한 25부를 제외하여 최종 1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현재 재학 중인 학년, 현재 거주 형태, 학점, 전공선택 이유, 전공 만족도의 8문항이다.

#### 2) 사회심리적 건강

본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건강은 Goldberg (1978)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수정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 PWI-SF)로 개별화된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hang, 2000). PWI-SF는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학적, 심리학적 증상과 일상적 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수행능력이나 일반 건강 측면이 포함된 측정 도구이다. 총 18문항으로 Likert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우울과 일반건강, 수면장애와 자기신뢰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 0점, '대부분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의 점수를 주었고, 부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의 점수를 주었다. 점수는 총 0점부터 54점까지 측정되며, 8점 이하는 건강군, 9~26점은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은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PWI의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541~.893의 범위에 있었으며 전체 PWI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3) 공감 능력

본 연구에서 공감은 Hojat 등(2001)이 개발했으며 홍현(2019)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보건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척도(K-JSE-HPS)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하위 영역으로는 관점 수용(perspective taking), 동정적 진료(compassionate care), 환자의 입장에서 서기(standing in the patient's shoes)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부정형으로 표현되어있는 10개의 문항(1, 3, 6, 7, 8, 11, 12, 14, 18, 19번)은 역채점을 실시한다.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보건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 능력(JSE-HPS)의 개발 당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7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3개월 간격으로는 .58, 6개월 간격으로는 .69로 보고

된 바 있다(Fields et al., 2011). 홍현(2019)이 국내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26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보건 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척도(K-JSE-HPS)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88로 원 도구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홍현, 2019),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 4) 진로 결정 수준

Osipow 등(1980)이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원 척도에서 자유보고식 1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원 척도는 학문분야 내지 구체적인 진로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문항들에 '간호사직' 혹은 '간호사'로 표기하여 간호사직으로의 진로 결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진로 결정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2문항(문항 1, 2)과 진로 미결정(문항 3~18)의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형으로 표현되어있는 문항 3~18은 역채점하여 사용한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아주 그렇다' 4점으로 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Osipow 등(1980)의 도구 개발 연구에서 .90이었고, 윤현숙(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 까지 실시하였다. 간호학과 학생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온라인으로 모집 공고문과 설문 링크를 게시하였다. 연구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은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접속 후 설문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설문 첫 페이지는 연구의 목적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유무를 먼저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설문에 필요한 시간은 총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모든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e-mail을 통해 원저자에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보호 및 중도 참여 철회의 자율성 등에 대한 설명문을 온라인으로 읽고 체크하도록 하여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부호화하였고, 연구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분석 후 영구 폐기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소정의 온라인 커피 쿠폰을 지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여성이 120명(88.9%)이었고, 평균 연령은 22.87±3.82세로 22세 이하가 82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52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34명(25.2%), 2학년 28명(20.7%), 1학년 21명(15.6%) 순이었다. 거주 형태는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5)

특성	구분	n(%)	Mean±SD
성별	남성	15 (11.1)	22.87±3.82
	여성	120 (88.9)	
연령	≤22	82 (60.7)	22.87±3.82
	23-〈25	18 (13.3)	
	≥25	35 (26.0)	
학년	1학년	21 (15.6)	22.87±3.82
	2학년	28 (20.7)	
	3학년	34 (25.2)	
	4학년	52 (38.5)	
	본가	28 (20.7)	
거주 형태	기숙사	52 (38.5)	22.87±3.82
	자취	55 (40.8)	
학점 (4.5 만점 누적학점)	〈3.5	37 (27.4)	22.87±3.82
	3.5~4.0〈	65 (48.2)	
	≥4.0	33 (24.4)	
전공선택 이유	성적	15 (11.1)	22.87±3.82
	주변의 권유	13 (9.6)	
	취업률	65 (48.2)	
	학업에 대한 흥미	42 (31.1)	
전공 만족도	만족	84 (62.2)	22.87±3.82
	보통	43 (31.9)	
	불만족	8 (5.9)	

M=mean; SD=standard deviation.

자취가 55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학점은 3.5 이상에서 4.0 미만인 6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3.5 미만 37명(27.4%), 4.0 이상 33명(24.4%)이었다. 전공 관련 특성으로 전공선택의 이유는 취업률이 높아서 65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 42명(31.1%), 성적 15명(11.1%), 주변의 권유 13명

(9.6%)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84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43명(31.9%), 불만족이 8명(5.9%)이었다(표 1).

## 2.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정도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은 45점 만점에 평균 21.67±8.98점이었다. 하위요인으로 우울증과 일반건강에 대한 항목은 3점 만점에 평균 1.48±0.63점이었고 수면장애와 자기 신뢰에 대한 항목은 3점 만점에 평균 0.77±0.52점이었다. 대상자의 공감 수준은 140점 만점에 평균 107.33±12.85점이었다.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바탕으로 건강군은 6명(4.4%),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60명(66.7%), 스트레스군은 39명(28.9%)으로 잠재적 스트레스군 이상이 전체의 95.6%를 차지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관점 수용에 대한 항목은 7점 만점에 평균 5.67±0.71점이었고 동정적 진로에 대한 항목은 7점 만점에 평균 5.22±0.85점이었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서기에 대한 항목은 7점 만점에 평균 4.41±1.37점이었다.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은 72점 만점에 평균 55.07±9.51점이었다. 하위요인으로 진로 결정 확신에 대한 항목은 4점 만점에 평균 2.69±0.80점이었고 진로 미결정에 대한 항목은 4점 만점에 평균 3.10±0.57점이었다(표 2).

〈표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정도

(N=135)

변수(범위)	구분	항목수	Min~Max	M±SD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0~3)	총점	18	0~45	21.67±8.98	
	우울증과 일반건강	11	0~33	1.48±0.63	
	수면장애와 자기신뢰	7	0~17	0.77±0.52	
	군별 비교	n (%)	-	-	
	건강군	6 (4.4)	-	0~8	5.00±3.03
	잠재적 스트레스군	90 (66.7)	-	9~26	17.98±4.95
	고위험 스트레스군	39 (28.9)	-	27~45	32.74±4.87
공감 능력 (1~7)	총점	20	69~132	5.37±0.64	
	관점 수용	10	30~70	5.67±0.71	
	동정적 진로	8	14~55	5.22±0.85	
	환자의 입장에서 서기	2	3~14	4.41±1.37	
진로 결정 수준 (1~4)	총점	18	27~72	3.06±0.53	
	진로 결정 확신	2	2~8	2.69±0.80	
	진로 미결정	16	21~64	3.10±0.57	

Min=minimal; Max=maximal; M=mean; SD=standard deviation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 $F=-2.62, p=.010$ ), 전공 만족도( $F=11.08,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스트레스)이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 만족도 만족보다 보통에서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스트레스)이 높았고, 전공 만족도 보통보다 불만족에서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스트레스)이 높았다.

대상자의 공감 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 만족도 ( $F=5.24, p=.00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 만족도 보통보다 만족에서 공감 능력이 높았다.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 $F=3.76, p=.026$ ), 학년( $F=2.83, p=.041$ ), 전공선택 이유 ( $F=3.36, p=.021$ ), 전공 만족도( $F=16.7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22세 이하보다 22세 초과 25세 미만에서 진로 결정 수준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 보통과 불만족에 비해 만족에서 진로 결정 수준이 높았다. 학년과 전공선택 이유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3>.

### 4.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은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r=-.45, p<.001$ )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의 차이 (N=135)

특성	구분	n (%)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	15 (11.1)	16.07±7.34	-2.62	5.45±0.68	0.53	3.31±0.49	1.95
	여	120 (88.9)	22.37±8.94	(.010)	5.36±0.64	(.060)	3.03±0.53	(.053)
연령	≤22 <sup>a</sup>	82 (60.7)	21.45±8.43		5.37±0.65		2.99±0.54	3.76
	23-〈25 <sup>b</sup>	18 (13.3)	19.89±11.18	0.81	5.43±0.53	0.14	3.35±0.40	(.026)
	≥25 <sup>c</sup>	35 (26.0)	23.09±9.05	(.446)	5.33±0.69	(.870)	3.08±0.52	a<b
학년	1학년 <sup>a</sup>	21 (15.6)	18.52±8.59		5.20±0.58		2.84±0.57	
	2학년 <sup>b</sup>	28 (20.7)	20.04±7.91	2.51	5.55±0.56	1.85	3.25±0.45	2.83
	3학년 <sup>c</sup>	34 (25.2)	24.65±9.66	(.062)	5.24±0.77	(.141)	2.95±0.50	(.041) <sup>1)</sup>
	4학년 <sup>d</sup>	52 (38.5)	21.87±8.82		5.42±0.60		3.17±0.54	
거주 형태	본가	28 (20.7)	21.21±8.26		5.48±0.60		3.19±0.54	
	기숙사	52 (38.5)	22.13±9.55	0.12	5.30±0.67	0.71	2.96±0.53	1.88
학점 (4.5 만점 누적 학점)	자취	55 (40.8)	21.45±8.92	(.887)	5.38±0.64	(.495)	3.09±0.52	(.156)
	〈3.5	37 (27.4)	21.46±9.71		5.33±0.75		3.08±0.56	
	3.5~4.0〈	65 (48.2)	22.11±8.43	0.17	5.31±0.62	1.11	3.01±0.55	0.77
전공 선택 이유	≥4.0	33 (24.4)	21.03±8.98	(.845)	5.51±0.55	(.333)	3.14±0.45	(.467)
	성적 <sup>a</sup>	15 (11.1)	21.47±7.62		5.40±0.76		2.83±0.50	
주변의 권유 <sup>b</sup>	주변의 권유 <sup>b</sup>	13 (9.6)	20.46±9.78	0.16	5.37±0.77	1.12	3.12±0.48	3.36
	취업률 <sup>c</sup>	65 (48.2)	21.52±9.05	(.923)	5.27±0.62	(.342)	2.98±0.54	(.021) <sup>2)</sup>
	학업에 대한 흥미 <sup>d</sup>	42 (31.1)	22.33±9.32		5.50±0.59		3.24±0.49	
전공 만족도	만족 <sup>a</sup>	84 (62.2)	19.62±8.08	11.08	5.50±0.58	5.24	3.24±0.49	16.75
	만족도보통 <sup>b</sup>	43 (31.9)	23.53±9.03	(〈.001)	5.13±0.69	(.006)	2.78±0.46	(〈.001)
	불만족 <sup>c</sup>	8 (5.9)	33.13±7.01	a<b<c	5.4±0.72	b<a	2.63±0.39	b,c<a

M=mean; SD=standard deviation; \*Scheffe. 1) 2) 사후검정 확인되지 않음

1) 사후검정 확인되지 않음

2) 사후검정 확인되지 않음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의 상관관계 (N=135)

변수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
	r (p)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1		
공감 능력	-.16 (.070)	1	
진로 결정 수준	-.45** (<.001)	.46** (<.001)	1

공감 능력( $r=.46,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 5.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진로 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학년, 전공선택 이유, 전공 만족도를 통제하기 위해 더미 변수로 전환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7.290, p<.001$ )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정하였다. 우선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한 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5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의 d 값이 1.70으로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점도

래프를 통해 선형회귀분석의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군(22세 초과 25세 미만)( $\beta=.185, p=.008$ ), 전공 만족도(보통)( $\beta=-.236, p=.001$ ),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beta=-.318, p<.001$ ), 공감 능력( $\beta=.341, p<.001$ )은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을 42.2%를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 능력( $\beta=.341, p<.001$ ),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beta=-.318, p<.001$ ), 전공 만족도(보통)( $\beta=-.236, p=.001$ ), 연령군(22세 이상 25세 이하)( $\beta=.185, p=.008$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연령이 22세에서 25세 이하일수록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이 높았고, 전공만족도가 만족보다 보통일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낮았다(표 5).

〈표 5〉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5)

변수	구분	Model 1				
		B	S.E	$\beta$	t	p
Constant		1.992	.333		5.984	<.001
연령군	22세 이하(ref.)					
	22세 초과 25세 미만	.286	.105	.185	2.713	.008
	25세 이상	.112	.082	.093	1.369	.173
전공 만족도	만족(ref.)					
	보통	-.267	.080	-.236	-3.348	.001
	불만족	-.237	.160	-.106	-1.1475	1.43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019	.004	-.318	-4.429	<.001
공감 능력		.280	.056	.341	4.966	<.001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p)				.448, .422, 17.290		<.001

S.E=standard error; B=Regression coefficient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감 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전공 만족도, 연령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감 능력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수준은 총점 45점 만점 중 평균 21.67으로 간호대학생은 잠재적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일한 측정도구는 아니지만, 선행연구(김주연, 김계하, 2021)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이 120점 만점 중 81.13(평균 3.38)으로 보통 수준의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전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가 남자 간호대학생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전공 만족도 만족보다 보통에서, 보통보다 불만족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정도가 높았다. 선행연구(김주연, 김계하, 2021)에서는 입학 동기, 전공 만족, 임상실습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만족의 경우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대상자가 사회적 건강 정도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수준은 총점 145점 만점 중 평균 107.33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김해진, 이명선, 2015)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5점 만점의 3.58점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Park(1997)의 변안한 척도의 '보통이다'의 3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왔으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높은 수준인 것을 보여주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일반적 특성 중에는 전공 만족도였으며, 전공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에 공감 능력 수준이 불만족 보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공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공감 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김해진, 이명선, 2015)에서는 성별과 학년, 전공 만족도, 실습 유무, 실습 만족도에 따라 공감 능력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공감 능력,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연령군이었다. 먼저, 공감 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공감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윤주희, 윤혜원, 2021)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 변화에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도 높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공 만족도가 만족과 불만족보다 보통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수을, 2016)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임상실습, 학교성적,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진로 선택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선택이 보통인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군에 있어서는 22세 초과~25세 미만에서 진로 결정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상과 22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보통 보다는 만족에서, 연령이 22세에서 25세의 경우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로 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W소재 4개의 대학교 간호대생 135명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과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대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 능력이 높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군과 전공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공감 능력이 진로 결정 수준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연령군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보통보다는 만족에서, 연령이 22세에서 25세의 경우 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진로 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의 비율이 참여한 여학생의 비율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

하여 추후 남학생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성별의 영향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심리적 건강, 공감 능력,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매개 변수들을 확대하여 요인을 재탐색해 볼 것을 제언한다.

## VI. 참고문헌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영애, 서명선, 안성식(202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4), 49-74.
- 김수을(201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결정 수준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2), 210-219.
- 김주연, 김계하(2021).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1), 101-109.
- 김정희(1999).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2), 304-313.
- 김해진, 이명선(2015).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2), 237-245.
- 박서아, 신경숙(2023).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2), 592-601.
- 송영숙(2012).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삶의 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71-80.
- 송채은, 김명류, 김순영(2020),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287-298
- 송현영, 신소홍(2016),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628-640.
- 이명준, 조영채(2013). “일부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수준과 그의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 2828-2838.

- 이향림(2020).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계획된 우연 기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현숙(2011).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2019). “한국판 보건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척도(K-JSE-HP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과 칭취유형과의 회귀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 Brunero, S., Lamont, S., & Coates, M. (2010).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17(1), 65-74.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thon Counselling and Press”.
- Timmins, F., & Kaliszer, M. (2002). “Aspects of nurse education programmes that frequently cause stress to nursing students-fact-finding sampl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22(3), 203-211.

## Abstract

#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Health and Empathy Skills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Nursing Students

Sehoon Kim\*, Seoyeon Baek\*, Youna Oh\*, Inyoung Joe\*, Jehyeon Jo\*, Sunzoo Ji\*, Yujeong Choi\*,  
Jaehee Jeon\*\*

\*Students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Associate Professor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psychosocial health and empathy ability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areer guidance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study targeted 135 nursing students in W-si, Gangwon-do,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y 16 to May 25, 2023.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9.0.1.0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among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health (stress) ( $r=-.45$ ,  $p<.001$ ) and empathy ability ( $r=.46$ ,  $p<.001$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ression model, the regression model was found to be significant ( $F=17.290$ ,  $p<.001$ ).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include empathy ( $\beta=.341$ ,  $p<.001$ ), psychosocial health (stress) ( $\beta=.318$ ,  $p<.001$ ),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Midium) ( $\beta=-.267$ ,  $p=.001$ ), followed by age group (23 to 24 years old) ( $\beta=.185$ ,  $p=.008$ ). **Conclusions:**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psychosocial health (stres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empathy,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areer guidance program to control the psychosocial heal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improve empathy.

**Key words:** Career decision level, Empathy ability, Nursing student, Psychosocial health

### \*필자 정보

**전재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에서 석사 및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 성인간호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만성질환 환자 삶의 질, 자가간호 증진, IT 기반 간호, VR, AR 관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등이다.

\*E-mail: jhjeon@gwnu.ac.kr



##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유건규 · 김민지 · 김송아 · 박지현 · 신동윤 · 이태린(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최선하(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신체활동이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 242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 Schffe 사후검정, 그리고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일주일 간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차례로 평균  $1.16 \pm 1.58$ 일,  $2.11 \pm 1.70$ 일,  $4.74 \pm 1.93$ 일 이었다. 고강도,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에서,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각각 72명(47.4%), 87명(48.1%) 이었다.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88명(37.3%) 이었으며, 30분 미만도 80명(33.9%) 이었다.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와 자기효능감( $r=.28, p<.001$ ) 및 회복탄력성( $r=.33, p<.001$ ) 은 관계가 있었다.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와 자기효능감( $r=.30, p<.001$ ) 및 회복탄력성( $r=.39, p<.001$ )도 관계가 있었다. 고강도( $r=.21, p<.001$ ), 중강도( $r=.18, p<.001$ ), 저강도( $r=.16, p<.001$ )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느낀 날이 많았다. 결론: 간호대학생은 대부분 일상생활을 포함한 걷기 위주의 저강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었다.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미만으로 하는 간호대학생에서 자아효능감 점수와 회복탄력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중강도 및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중강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호대학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중 학업뿐 아니라 임상실습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과중한 학습량과 실습 등으로 바쁜 생활을 보내며, 성적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업 부담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이들은 과제물과 시험공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답소나 인터넷 사용 등으로 좌식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활동과 운동 부족의 생활리듬을 갖기 쉽다. 또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높은 강도의 업무와 3교대 근무 등으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습관화하는 것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까지 좋은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신체활동이란 집안일, 걷기, 운동, 여가활동, 레크리에이션과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골격근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신체활동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병 예방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2013).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관여하는 요인은 사회적 상황 뿐 만 아니라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거주 형태, 경제 수준 등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이었다(이상준, 2017).

자기효능감이란 과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Bandura, 1997).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스로 수행한 행동의 결과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 시련의 경험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힘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을 갖춘 사람은 스트레스와 역경 상황으로 야기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균형 상태를 빠르게 긍정적인 상태로 돌이킴으로써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신체 건강 유지, 성공적인 성과 도출과 역할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회복탄력성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Wagnild & Young, 1993). 이에 간호대학생이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추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신체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극복에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관련되지만, 한 연구에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을 다룬 논문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신체활동이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과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수준,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이

다. 학생들의 단체 게시판에 대상자 모집 글을 올린 후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이 때, 유의수준  $\alpha=0.05$ , 검정력  $1-\beta=0.95$ 로 하여 210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15% 를 고려하여 24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고강도 신체활동을 의미하며,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이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중간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이다. 저강도 신체활동은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천천히 걷는 등 땀이 나지 않는 가벼운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신체활동의 범위는 직업과 관련된 신체활동, 교통수단과 관련된 신체활동, 레크레이션·스포츠·여가시간과 관련된 신체활동, 앉아서 보낸 시간을 포함한다(오지연 외, 2007).

신체활동 측정도구는 국제신체활동량 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의 한국어판 신체활동 설문지로서, 지난 7일 자가단축형 설문지(Short Last 7 Days Self-Administered form, IPAQ)이다(오지연 외, 2007).

#### 2) 자기효능감

Shere 외(1982)가 개발한 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써 평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이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8 이었다.

####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양영희 외(2015)가 개발한 간호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측정도구(Resilience Scale for Nursing College Students)이다. 이 도구는 자신감 3문항, 긍정성 4문항, 대처능력 2문항, 감정조절능력 3문항, 조직적 스타일 4문항, 관계성 4문항, 사회적 지지 4문항의 총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영희 외(2015)이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 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동의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 URL을 자의로 연결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목적을 확인한 후,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에서 체크를 한 경우에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수집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으로 데이터화 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 Scheffé 사후검정,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9세였고, 여성이 215명(88.8%)이었다. 학년은 3학년 83명(34.3%), 4학년 79명(32.6%), 2학년 65명(26.9%), 1학년 16명(6.2%)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자가 102명(42.1%), 자취 101명(41.7%)으로 거의 같았고, 기숙사 38명(15.7%)이었다. 학교와 집과의 거리는 도로나 교통수단 이용 시 30분 이내가

185명(76.9%)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203명(83.9%), 건강하지 않음 이하가 39명(16.1%)이었다. 7일 내 스트레스 인지 일 수는 3일 이상 6일 미만이 120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3일 미만 101명(41.7%), 6일 이상 7일 이하 21명(8.7%)이었다. 7일 내 스트레스 해소 일 수는 3일 미만 166명(68.6%), 3일 이상 6일 미만 63명(26.0%), 6일 이상 7일 이하 13명(5.4%)이었다. 우울감이 '없다'가 187명(77.3%)으로, '있다' 55명(22.7%)보다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2)

특성	구분	n(%)	Mean±SD
나이	18세 이상 35세 이하	242(100)	22.9±2.8
성별	남자	27(11.2)	
	여자	215(88.8)	
학년	1학년	16(6.2)	
	2학년	65(26.9)	
	3학년	83(34.3)	
	4학년	79(32.6)	
학점	3.0 미만	2(8)	
	3.0 이상 3.5 미만	67(27.7)	
	3.5 이상 4.0 미만	112(46.3)	
	4.0 이상 4.5	61(25.2)	
	기타	1(4)	
거주 형태	자가	102(42.1)	
	자취	101(41.7)	
	기숙사	38(15.7)	
	기타	1(4)	
	학교와 집과의 거리	도보 10분 이내	67(27.7)
	도보 10분에서 20분 이내	49(20.2)	
	도보 20분에서 30분 이내	22(9.1)	
	교통수단 이용 시 30분 이내	48(19.8)	
	교통수단 이용 시 30분 이상	56(23.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52(21.5)	
	건강	81(33.5)	
	보통	70(28.9)	
	건강하지 않음	36(14.9)	
	매우 건강하지 않음	3(1.2)	
7일내 스트레스 인지 일	3일 미만	101(41.7)	
	3일 이상 6일 미만	120(49.6)	
	6일 이상 7일 이하	21(8.7)	
7일내 스트레스 해소 일	3일 미만	166(68.6)	
	3일 이상 6일 미만	63(26.0)	
	6일 이상 7일 이하	13(5.4)	
우울감	있다	55(22.7)	
	없다	187(77.3)	

## 2.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정도와 관계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인지 일수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표 2>에 제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68 \pm .79$ 로 중간점수 보다 조금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86 \pm .64$ 로 중간점수 보다 높았으며, 자기효능감 점수에 비해 높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r=.84, p<.001$ ).

그 외,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 $r=.59, p<.001$ ) 및 회복탄력성( $r=.57, p<.001$ )이 높았다. 7일 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았고( $r=-.42, p<.001$ ), 회복탄력성도 낮았다( $r=-.38, p<.001$ ).

### 1) 신체활동 횟수

간호대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주당 평균  $1.16 \pm 1.58$  회,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2.11 \pm 1.70$  회,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4.74 \pm 1.93$  회로, 간호대학생은 주로 저강도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다. 신체활동 횟수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고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없었으며,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와 자기효능감( $r=.28, p<.001$ ) 그리고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와 자기효능감( $r=.30, p<.001$ )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중강도,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신체활동 횟수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고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회복탄력성과 관계가 없었으며,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와 회복탄력성( $r=.33, p<.001$ ) 및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와 회복탄력성( $r=.39, p<.001$ )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중강도,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결국 중강도,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았다(표 2).

### 2) 신체활동 시간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시간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72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이 38명(25.0%),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이 30명

<표 2> 신체활동 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 일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N=242)

특성	M±SD	자기효능감 r(p)	회복탄력성 r(p)
고강도 신체활동 횟수(일/주)	1.16±1.58	-.02 (.821)	-.06 (.398)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일/주)	2.11±1.70	.28 (p<.001)	.33 (p<.001)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일/주)	4.74±1.93	.30 (p<.001)	.39 (p<.001)
주관적 건강상태	3.59±1.02	.59 (p<.001)	.57 (p<.001)
7일내 스트레스 인지 일(일/주)	2.94±1.69	-.42 (p<.001)	-.38 (p<.001)
자기효능감	3.68±.79		.84 (p<.001)
회복탄력성	3.86±.64	.84 (p<.001)	

〈표 3〉 신체활동 시간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N=242)

특성	구분	n(%)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M±SD	F(p) Scheffé	M±SD	F(p) Scheffé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하루) (n=152)	30분 미만	38(25.0)	3.70±0.60	0.72 (.608)	3.88±0.43	1.33 (.255)
	30분-1시간 미만	72(47.4)	3.73±0.66			
	1시간-1시간 30분 미만	30(19.7)	3.60±0.81			
	1시간 30분-2시간 미만	9(5.9)	3.60±0.54			
	2시간 이상	2(1.3)	2.98±0.09			
	모름/확실치 않음	1(0.7)	3.22±0.00		3.88±0.00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하루) (n=181)	30분 미만	47(26.0)	3.69±0.57	1.59 (.166)	3.86±0.44	4.12 (<.001)
	30분-1시간 미만	87(48.1)	3.75±0.74			
	1시간-1시간 30분 미만	37(20.4)	4.02±0.87			
	1시간 30분-2시간 미만	7(3.9)	3.42±0.61			
	2시간 이상	1(0.6)	3.04±0.00			
	모름/확실치 않음	2(1.1)	3.56±0.49		4.06±0.26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하루) (n=236)	30분 미만 <sup>a</sup>	80(33.9)	3.62±0.78	9.16 (<.001) a,b,c,d,e<f	3.70±0.60	13.06 (<.001) a,b,c,d,e<f
	30분-1시간 미만 <sup>b</sup>	88(37.3)	3.65±0.64			
	1시간-1시간 30분 미만 <sup>c</sup>	32(13.6)	3.42±0.69			
	1시간 30분-2시간 미만 <sup>d</sup>	9(3.8)	3.73±0.77			
	2시간 이상 <sup>e</sup>	8(3.4)	3.59±0.73			
	모름/확실치 않음	19(8.1)	4.72±0.75		4.80±0.54	

(19.7%) 순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 역시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87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이 47명(26.0%),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이 37명(20.4%)이었다.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회복탄력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F=4.12, p<.001). 중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으로 하는 학생이 자기효능감(4.02±0.87)과 회복탄력성(4.25±0.69)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 역시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8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

이 80명(33.9%),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이 32명(13.6%)이었다.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에 따라 자기효능감(F=9.16, p<.001)과 회복탄력성에는 차이가 있었다(F=13.06, p<.001).

### 3. 신체활동 횟수와 스트레스 해소 일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횟수와 스트레스 해소 일 간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주당 고강도(r=.21, p<.001), 중강도(r=.18, p<.001), 저강도(r=.16, p<.001)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느낀 날도 많았다.

〈표 4〉 신체활동 횟수와 스트레스 해소 일 간의 관계

(N=242)

특성	M±SD	7일내 스트레스 해소 일 r(p)
고강도 신체활동 횟수(일/주)	1.16±1.58	.21(p<.001)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일/주)	2.11±1.70	.18(p<.001)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일/주)	4.74±1.93	.16(p<.001)

## IV. 논의

간호대학생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당 평균 1.2회, 중강도 신체활동은 2.1회, 저강도 신체활동은 4.7회 하였다. 즉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거나 훨씬 더 차게 하는 신체활동은 주당 1~2회로 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신체활동 시간에서, 고강도 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47~48%로 절반 정도이다. 즉 간호대학생은 고강도 혹은 중강도 신체활동을 주당 1~2회, 한 번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하였다. 대부분 저강도 신체활동(일상생활을 포함한 천천히 걷기, 땀이 나지 않는 가벼운 신체활동)을 주당 약 5회,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하여, 매우 부족한 신체활동을 한다고 고려된다.

WHO(2010)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성인의 신체활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걷기 포함) 또는 7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동등량의 중강도 및 고강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신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일수록 신체활동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이다(김예성, 김은정, 2021). 김소영 외(2011)의 연구에서, 신체활동정도를 비활동, 최소한의 활동, 건강 증진형 활동 그룹으로 범주화 시켰을 때, 신체활동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신체적 여가활동이 부정적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증명한 연구가 있다(현경선, 2001에 인용됨).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신체적 활동과 움직임으로 본인만의 고유한 신체활동 생활양식이 확립된다. 대학생은 다른 연령 대의 성인에 비해 생활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생활양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신의 능동적 선택으로 신체활동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대학생의 여가시간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김규리 외, 2021).

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68점 이었다.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3.33점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김덕진, 이정섭, 2014). 민소영과 정승교(2006)는 3.44점, 황성자(2006)는 3.52점, 김명숙(2011)은 3.44을 보고하여, 이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인지 탐색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정서적 진정, 긍정적 해석,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민소영, 정승교, 200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학업 및 과제수행과 사회구성원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연자 외, 2009).

이 연구에서 중강도,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또한 중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으로 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점수( $4.02 \pm 0.87$ )와 회복탄력성 점수( $4.25 \pm 0.69$ )가 가장 높았다. 이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규칙적으로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지속한 집단은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박재암, 202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점수는 5점 만점에 3.86점으로 중간 점수 이상이였다. 비록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김덕진과 이정섭(2014)은 5점 만점에 3.38점, 박완주(2009)는 3.43점, 박완주와 한지영(2011)은 3.46점을 보고하여, 이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다. 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진 것인지 탐색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그리고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 의사소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좋으며,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양영희 외, 2015에 인용됨).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기질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여겨진다(양영희 외, 2015에 인용됨). 이에 신체활동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r=.84$ ,  $p<.001$ ). 김덕진과 이정섭(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간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므로(김덕진, 이정섭, 2014), 이 두 변수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다고 고려된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느낀 날이 많았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장정윤, 2021). 또한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이חק권, 지준철, 2020).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활동이 높은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김예성, 2023),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므로, 신체활동을 포함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이용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주로 저강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었다.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미만으로 하는 간호학생의 자아효능감 점수와 회복탄력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중강도 및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중강도 신

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김규리, 김민주, 김세연, 김현지, 왕서영, 이지원(2021).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보건복지연구』, 6(1): 45-56.
- 김덕진, 이정섭(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44-254.
- 김명숙(2011).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59-167.
- 김소영, 윤지은, 김희진, 지선하(2011). "국제신체활동 설문도구로 측정된 신체활동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2): 15-25.
- 김예성, 김은정(2021).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아침식사, 수면,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01-209.
- 김예성.(2023). "COVID-19 시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32(1): 61-73.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서울.
- 민소영, 정승교(2006).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5(3): 299-307.
- 박완주(2009).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양식 및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8(3): 240-250.
- 박완주, 한지영(201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367-377.
- 박재암(2022).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한 청소년의 신체활동수준이 심리적웰빙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7): 218-228.

- 양영희, 김은만, 유미, 박승미, 이해영(2015). “간호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도구 개발”, 『성인간호학회지』, 27(3): 337-346.
- 오지연, 양윤준, 김병성, 강재현(2007). “한국어판 단문형 국제 신체활동설문(IPAQ)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28: 532-541.
- 이상준(2017). “대학생들의 축구동아리 활동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권, 지준철(2020).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과 정신건강 변인들의 관련성”,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411-421.
- 장정윤(2021). “초기 코로나19 위기 동안 청소년의 성별과 신체 활동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태의 관계”, 『한국 발육발달학회지』, 29(2): 181-187.
- 최연자, 이경완, 정춘화, 이애란(2009). “자기노출과 합리적 정서 훈련이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2): 186-196.
- 현경선(2001).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전호흡 운동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자(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ACSM)(2013), *ACSM's Resources for the Personal Trainer*,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 Caspersen, C. J., Powell, K. E., & Christenson, G. M.(1985), “Physical activity, exercise, and physical fitness: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for health-related research”. *Public Health Reports*, 100(2): 126.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Self-Efficacy Scale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01119-000>
- Wagnild, G. M.,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5-178.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10),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4399/9789241599979\\_eng.pdf?sequence=1](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4399/9789241599979_eng.pdf?sequence=1)

---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Yoo, Geon Gyu\*, Kim, Min Ji\*, Kim, Song Ah\*, Park, Ji Hyun\*, Shin, Dong Yun\*, Lee, Tae Rin\*,  
Choi, Sun-Ha\*\*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242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using on-line questionnaires from May 15th to May 20th, 2023 and analyzed using SPSS 26.0.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high-intensity, moderate-intensity,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was 1.2, 2.1, 4.7 days per week respectively. Seventy-two(47.4%) participants engaged in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30 minutes and less than 1 hour per day. Eighty-seven(48.1%) participants engaged in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30 minutes and less than 1 hour per day. In addition, 88 (37.3%) engaged i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30 minutes and less than 1 hour per day, and 80 (33.9%) engaged i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less than 30 minutes. There was an association between frequency of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per week and self-efficacy( $r=.28, p<.001$ ) and resilience( $r=.33, p<.001$ ). The more high-intensity( $r=.21, p<.001$ ), moderate-intensity( $r=.18, p<.001$ ), and low-intensity( $r=.16, p<.001$ ) physical activity per week, the more days they felt less stressed. Conclusion: Nursing students need to develop and conduct a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program.

**Key words:**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Resilience, Nursing student

---

\* 필자 정보

최선하 : 소속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지역사회간호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학교보건 등이다.

\*E-mail: choish@gwnu.ac.kr

##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최주희 · 김도경 · 김진영 · 이승은 · 이원재 · 전찬호 · 최윤호(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박선아(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과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W시, C시, S시, K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40 \pm 0.73$ 점, 직업정체성  $3.42 \pm 0.80$ 점, 임상실습스트레스  $2.82 \pm 0.52$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beta = .397, p < .001$ )과 임상실습환경만족 좋음( $\beta = -.308, p = .024$ )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약 41.5%로 나타났다( $F = 13.66, p < .001$ ).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무례함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상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간호대학생, 무례함, 임상실습스트레스, 직업정체성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 학생에게 임상 실습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받을 내딛는 큰 첫걸음이다.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이며, 이를 통해 간호 관련 전공 지식과 임상 실무능력을 학습하고,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기간 동안 실습 현장의 낯설고 어려운 환경, 미숙한 역량, 모호한 역할, 이론과 실습 사이의 괴리감, 실습 학생으로서의 위축, 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현주, 안효자, 2019; 오두남 등, 2016; 형희경 등, 2014).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김연정, 2018; 박광옥, 김영선, 2013; 이영신, 2021),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간호사, 환자나 보호자, 직원 등으로 부터 무례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옥, 김종경, 2017; 황윤영, 주민선, 2021). 무례함은 무례한 말, 경솔한 행동, 부정적인 몸짓을 포함한 은밀한 형태의 공격이나 폭력을 말한다(Babenko-Mould & Laschinger, 2014). 국외의 경우에도 간호대학생의 50%이상이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례함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였으며, 대부분 간호사에 의한 무례함으로 나타났다(Babenko-Mould & Laschinger, 2014; Anthony & Yastik, 2011). 이러한 무례함 경험은 소진을 초래하고, 임상실습 만족도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전미경, 오재우, 2017; 양희모 등, 2019),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궁화수 등, 2020; 곽은미 등, 2021)에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간호

대학생의 무례함 경험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직업 정체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심리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자아상에서 자신의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말한다(유홍준 등, 2014). 높은 직업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에 대해 자부심과 헌신도가 높다(유홍준 등, 2014).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정체성 개념보다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호이미지 등의 개념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높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권영은, 김선영, 2018), 높은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나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은 직업에 대한 인식이라는 의미 차원에서 선행연구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호이미지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개념들이 간호직업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이미지 등에 대한 인식이라면, 직업정체성은 간호직업 자체에 대한 직업적 자기인식으로 볼 수 있다. 진로정체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과 직업정체성이 임상 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와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W시, C시, S시, K시 소재의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중간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alpha = 0.05$ , 검정력  $1-\beta = 0.80$ 의 조건하에서, 예측변수(무례함, 직업 정체성, 성별, 연령, 편입생, 재학학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환경만족도)를 선정하여 최소 1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근거로 총 126명의 연구 참여자를 수집하였고 모두 충분한 응답을 보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과거 임상실습을 경험하거나 현재 실습 중인 3,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무례함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Anthony 등(2014)이 개발한 UBCN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20문항을 바탕으로 조수옥과 오진아(2016)가 개발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한국어판 측정도구(K-UBCN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배타(5문항), 멸시(5문항), 거절(3문항)의 3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례함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조수옥, 오진아(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2) 직업정체성

직업정체성은 유홍준 등(2014)이 개발한 직업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일체감(3문항), 개인-직업 부합(3문항), 감정이입(3문항)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홍준 외(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각각 하위요인이 개인-직업 부합 .93, 감정이입 .89, 일체감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ava (1991)가 개발하고 김순례와 이종은(2005)이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실습교육 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글 폼 설문지를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대상, 수집된 자료의 엄격한 관리, 익명과 비밀 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 등을 설문 앞에 명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의사가 있는 대상자만 '동의함' 버튼을 통해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직업정체성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직업정체성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 126명 중 여학생이 8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36.5%, 4학년이 63.5% 이었다. 나이는 22살 이하가 53.2%, 23세 이상이 46.8% 이었으며, 편입 여부는 '예' 27.0%, '아니오'가 73.0%이었다. 입학 동기는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50.0%, '적성이 맞아서' 24.6%, '부모님이나 타인의 권유' 10.3%, '봉사직을 갖기 위해' 8.7%,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6.3%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보통 이하'가 37.3%, ' 좋음'이 62.7%였고, 전공만족도는 '보통 이하'가 31.0%, ' 좋음'이 69.0%였다. 임상실습만족은 '나쁨'이 19.8%, '보통'이 34.1%, ' 좋음'이 46.0%였으며 임상실습환경만족은 '나쁨'이 24.6%, '보통'이 33.3%, ' 좋음'이 42.1%로 나타났다[표 1].

#### 2.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직업정체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가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2.40점(SD=0.73)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멸시(2.79±0.96), 배타(2.76±0.94), 거절(2.08±0.9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정체성은 5점 만점에 3.42점(SD=0.8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일체감(2.83±1.1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N=126)

특성	범주	n(%)
성별	남자	14(11.1)
	여자	112(88.9)
나이	22세 이하	67(53.2)
	23세 이상	59(46.8)
편입여부	예	34(27.0)
	아니오	92(73.0)
학년	3학년	46(36.5)
	4학년	80(63.5)
입학동기	적성이 맞아서	31(24.6)
	봉사직을 갖기 위해	11(8.7)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8(6.3)
	부모님이나 타인의 권유	13(10.3)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63(50.0)
대인관계	보통 이하	47(37.3)
	좋음	79(62.7)
전공만족	보통 이하	39(31.0)
	좋음	87(69.0)
임상실습만족	나쁨	25(19.8)
	보통	43(34.1)
임상실습환경만족	좋음	58(46.0)
	나쁨	31(24.6)
임상실습환경만족	보통	42(33.3)
	좋음	53(42.1)

개인직업부합(2.66±1.36), 감정이입(2.47±1.13)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2.82점(SD=0.52)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환자와의 갈등(3.06±0.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2.83±0.94), 대인관계 갈등(2.76±0.83), 실습업무부담(2.45±0.98), 실습교육환경(2.43±0.91)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직업정체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N=126)

변수	범위	M±SD
무례함	1-5	2.40±0.73
배타	1-5	2.76±0.94
멸시	1-5	2.79±0.96
거절	1-5	2.08±0.93
직업정체성	1-5	3.42±0.80
개인직업부합	1-5	2.66±1.36
감정이입	1-5	2.47±1.13
일체감	1-5	2.83±1.15
임상실습스트레스	1-5	2.82±0.52
실습교육환경	1-5	2.43±0.91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1-5	2.83±0.94
실습업무부담	1-5	2.45±0.98
대인관계 갈등	1-5	2.76±0.83
환자와의 갈등	1-5	3.06±0.88

〈표 3〉 대상자의 일반적·전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 차이

(N=126)

특성/범주	임상실습스트레스	
	M±SD	t/F(p)
성별	남자	2.46±0.57
	여자	2.87±0.50
나이	22세 이하	2.77±0.54
	23세 이상	2.89±0.50
편입 여부	예	2.85±0.41
	아니오	2.81±0.56
학년	3학년	2.72±0.51
	4학년	2.88±0.53
대인 관계	보통 이하	2.82±0.51
	좋음	2.83±0.54
전공만족도	보통 이하	2.99±0.53
	좋음	2.74±0.50
임상실습만족도	나쁨 <sup>a</sup>	2.98±0.68
	보통 <sup>b</sup>	2.90±0.45
	좋음 <sup>c</sup>	2.70±0.48
임상실습환경만족도	나쁨 <sup>a</sup>	3.04±0.59
	보통 <sup>b</sup>	2.96±0.42
	좋음 <sup>c</sup>	2.58±0.47

Post-hoc test: Scheffe test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성별( $t=-2.82, p=.006$ ), 전공만족도( $t=-2.46, p=.015$ ), 임상실습만족도( $F=3.34, p=.039$ ), 임상실습환경만족도( $F=10.8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M=2.87$ )가 남자( $M=2.46$ )보다, 전공만족도 '보통이하( $M=2.99$ )'가 좋음( $M=2.7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실습만족도의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후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환경만족도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임상실습환경만족도가 '나쁨'( $M=3.04, p<.001$ )인 집단과 '보통'( $M=2.96$ ,

$p=.002$ )인 집단이 ' 좋음'( $M=2.58$ )인 집단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 4.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직업정체성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스트레스는 무례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619, p<.001$ ).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직업정체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8, p=.387$ )[표 4].

〈표 4〉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성간의 상관관계

(N=126)

	무례함 r(p)	직업정체성 r(p)	임상실습스트레스 r(p)
무례함	1		
직업정체성	-.07 (.872)	1	
임상실습스트레스	.62 (<.001)	.08 (.387)	1

〈표 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영향요인

(N=126)

변수	B	SE	Standardized $\beta$	t(p)
상수	1.943	.176		11.07 (<.001)
무례함	.397	.055	.551	7.19 (<.001)
성별	.044	.124	.026	0.355 (.723)
전공만족도	-.050	.090	-.045	-0.560 (.577)
임상실습만족도_보통 (기준변수: 임상실습만족 '나쁨')	.034	.127	.031	0.271 (.787)
임상실습만족도_좋음 (기준변수: 임상실습만족 '나쁨')	.099	.142	.094	0.695 (.488)
임상실습환경만족_보통 (기준변수: 임상실습만족 '나쁨')	-.018	.123	-.016	-0.15 (.883)
임상실습환경만족_좋음 (기준변수: 임상실습만족 '나쁨')	-.308	.135	-.291	-2.29 (.024)

Adjusted R<sup>2</sup>: 0.415, F(p): 13.66 (<.001)

### 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중 임상실습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성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환경만족도와 주요변수인 무례함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256~0.846로 0.1 이상이였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182~3.906로 10 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례함( $\beta=.397$ ,  $p<.001$ )과 임상실습환경만족 좋음( $\beta=-.308$ ,  $p=.024$ )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약 41.5%로 나타났다( $F=13.66$ ,  $p<.001$ )[표 5].

## IV.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5점 만점에 2.40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구상미와 김현지

(2020)의 연구 2.63점과 유사하며, 염은이(2019)의 연구 3.02점, 조수옥와 오진아(2016)의 연구 3.03점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이다. 최근에 수행된 김지현 등(2022)의 연구에서는 2.0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준의 무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간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의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무례함과 유사한 개념인 태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무례함 행동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표성이 잘 확보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수준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직업정체성은 평균 3.42점(5점 만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일체감, 개인직업부합, 감정이입 순으로 직업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안정감 있게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직업적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김희수, 2007), 졸업 후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년별로 진로

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평균 5점 만점 중 2.82점(SD=0.52)으로 중간정도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희모 등(2019)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 2.94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위 영역별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환자와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대인관계 갈등, 실습업무부담, 실습교육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보건 의료인들이나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받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임상실습 전에 환자나 의료진들 간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대처 능력을 준비시키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례함'과 임상실습환경만족도 ' 좋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례함'과 임상실습환경만족도 ' 좋음' 중 '무례함'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숙과 박진아(2018)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무례함, 임상실습만족도, 소진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무례함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곽은미 등(2021)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의 무례한 언행을 학습하고 간호사가 된 이후 학습된 부정적 행동을 수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괴롭힘의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염은이, 2019). 이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강지연 등, 2018),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부터 경험하는 무례함에 대한 예방 및 대처전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간호교육기관에서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올바른 인성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업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무례함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전 간호사의 무례함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에 대하여 심리적, 정서적 증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기관에서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임상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실습 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는 직업 정체성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직업정체성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무례함 경험과 임상실습환경만족도 좋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관리방안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좋은 임상실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겪는 무례함 경험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례함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처전략에 대한 훈련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교육자는 보다 지지적이며 수용적인 실습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호사-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겪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지연, 정연진, 공경란(2018). "정체성 위협: 임상실습중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접근." 『대한간호학회지』 제48권 1호: 85-95.
- 구상미, 김현지(202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의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3호: 104-114.
- 궁화수, 장태정, 안나(2020).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회복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15호: 95-109.
- 김명숙, 박진아(2018).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임상실습 만족도, 소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10호: 811-828.
- 김순례, 이종은(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1호: 98-106.
- 김연정(20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우울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17호: 341-357.
- 김지현, 류언나, 송효숙, 한창화(2022).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11호: 808-819.
- 김희수(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성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0권 2호: 35-46.
- 곽은미, 윤희장, 박민애(2021).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2호: 160-168.
- 권영은, 김선영(2018).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4권 1호: 80-88.
- 박광옥, 김영선(20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5권 4호: 2149-2163.
- 박광옥, 김종경(2017).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겪는 무례함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제23권 5호: 524-534.
- 박현주, 안효자(20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눈치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5권 1호: 48-57.
- 오두남, 엄영란, 김춘미, 주세진, 최정현, 박명숙(2016).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대처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2권 4호: 430-440.
- 양희모, 이윤정, 이경주(2019).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12호: 637-648.
- 염은이(2019).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간호사의 무례함, 대인불안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4호: 293-302.
- 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2014).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27권 4호: 617-642.
- 전미경, 오재우(2017).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1호: 339-346.
- 조수옥, 오진아(2016).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한국어판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2권 4호: 537-548.
- 황윤영, 주민선(2021). "현장실습 중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7권 1호: 29-38.
- 형희경, 주연숙, 임신일(2014).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20권 4호: 394-404.
- Anthony M & Yastik J. (201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incivility in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0(3): 140-144.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131-04>
- Anthony, M., Yastik, J., MacDonald, D. A., & Marshall, K. A.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0(1): 48-55.
- Beck, D. L., & Srivastava, R.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Babenko-Mould Y & Laschinger HK.(2014).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p. 11(1): 145-154. <https://doi.org/10.1515/ijnes-2014-0023>

## Abstract

# The impact of incivility and professional ident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hee Choi\*, Dokyeong Kim\*, Jinyoung Kim\*, Seungeun Lee\*, Wonjae Lee\*, Chan ho Jeon\*,  
Younho Choi\*, Sunah Park\*\*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udeness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their professional identit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employed a descriptive survey metho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126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ir 3rd and 4th years at universities located in W City, C City, S City, and K City.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May 11th to May 20th, 2023.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9.0 and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udeness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2.40 \pm 0.73$ , professional identity was  $3.42 \pm 0.80$ ,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2.82 \pm 0.52$ .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rudenes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 $\beta = .397, p < .001$ ) an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 $\beta = -.308, p = .024$ ). These variables explained approximately 41.5% of the variance in clinical practice stress ( $F = 13.66, p < .001$ ).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effective strategies and management approaches are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particularly in addressing the rudenes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Additionally,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the incidence of rudeness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This collaboration can help identify and prevent issues related to rudeness and develop solutions to address them.

**Key words:** clinical practice stress, incivility, professional identity, nursing students

### \* 필자 정보

**박선아**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시뮬레이션 교육, 기본간호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요실금, 간호교육 등이다.

\*E-mail: suna73@gwnu.ac.kr



# 유아의 정서발달 지원 음악프로그램 개발 예비 연구

박영미(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현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지원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예비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즉, 본격적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예비적 교수학습활동시간을 만들고 적용해 봄으로써 정서지원 음악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도록 돕는 활동계획안을 작성, 적용하여 유아의 행동 양상, 반응에 따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유아정서지원 음악활동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발달 도움이 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다.

주제어: 정서지원, 유아 정서발달, 음악프로그램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발달 과정에서 유아기는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제공된 환경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습득해 나가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작점에 놓여 있다. 핵가족화, 가족의 해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이 어렵고, 이에 유아에게는 정서적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아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최근 불안정하고 부정적 정서가 표출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유아들이 가정

나 교육기관,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를 쉽게 접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은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대상 및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 교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의 정서 발달, 정서적 행동에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혹은 교육활동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서발달에 음악이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악은 함께 듣고 즐기며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한 수단이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음악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풍요

로움을 주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해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동시에 마음을 정화시키고 올바른 정서를 지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음악활동은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하게 하는 인간 현상으로서 유아들에게 있어 감정을 전하며, 느낌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수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하는 본능이 있으며, 발달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므로, 음악과 정서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잡한 갈등과 해소, 긴장과 이완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되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분출구를 찾아 표현하게 되는데, 음악 활동을 통한 감정의 표출 경험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긍정적 정서의 함양을 촉진 시킨다. 특히 여러 가지 감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발달단계인 유아기에 음악이라는 자극은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여러 가지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이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의 음악교육 활동 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 기관의 음악 활동은 '새 노래 배우기'의 가창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며(이미경, 2001; 김송란, 1999), 음악활동은 87.5%가 교사 주도하에 대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노래 부르기 및 손유희 따라 하기와 기본 동작 익히기가 전체 음악활동 내용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1회 평균 30분 내외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조현숙, 2014). 김송란(1999)은 유아교육 기관의 음악 활동이 독립적인 활동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과의 연계 혹은 타 영역을 강화시켜주는 보조 활동으로서 음악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활동이 십여 년 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이 교사 중심의 획일적으로 소극적인

상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유아 음악 교육의 소재는 일반 교육의 지루함을 환기시켜 주기 위한 흥미 위주의 소재로 여김으로써 지극히 경과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음악활동의 현황을 보고하는 연구들을 살펴볼 때, 유아 음악 교육 활동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음악활동은 단순한 음악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놀이를 활용한 오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은 음악을 심미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유아의 정서적 능력은 풍요롭게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을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음악활동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예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발달 과정 중에서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도록 돕는 정서지원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유아 정서와 정서발달

정서는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지적 평가에 반응하고 모든 신체기관의 반응을 수반하며, 인지, 느낌, 행동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zard(1991)는 정서란 지각, 사고,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고 구성하고, 안내하는 하나의 느낌으로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Denham(2001)은 정서에 대해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개인이 타인과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시에 중요시되는 개념이며 정서를 표현하기, 이해하기, 조절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서란 '단순히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

의 감정을 예측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반응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발달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김태련, 2004). 또한 전 생애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정서는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정서를 나누고 표현하는 방법이 능숙해 진다. 이와 같이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정서 발달 중 유아의 정서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이영자(1999)는 유아는 영아기의 기본적 정서 경험에서 발전되어 다양한 정서를 체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서란 우리의 지각, 사고,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거나 조절 또는 안내하는 것이며 개인이 타인과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시에 중요시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유아기의 중요한 정서 발달 측면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Bonello(1998)는 정서 표현, 정서 평가, 정서 조절을 유아기의 중요한 정서 발달측면으로 강조하였다. 정서 표현의 발달은 유아가 사회적 맥락을 긍정적·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 정서 발달 측면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정서 평가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 표현과 내적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유아기에 획득된 정서 평가 능력은 대인관계 및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 조절은 정서표현과 내적인 정서 경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데, 부정적 정서 관리가 유아기 정서 조절의 주요 목표이다(Bonello, 1998).

Denham(2001)은 유아의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을 유아기 정서 발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정서발달의 구성요소를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서 발달의 특징을 살펴본다.

### 1) 정서 이해

정서 이해는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내적·외적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안라리, 2005). 장휘숙(2002)에 의하면 2~6세의 유아는 정서 이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타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지식, 즉 마음이론이 발달하면서 정교해지며 정서의 원인과 결과, 행동적 표현을 언급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유아의 이해는 더 정확해지고 복잡해진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ussell(1990)의 연구에서는 유아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은 슬픔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화난 유아는 발길질하기 쉬우며 행복한 유아는 물건을 나누어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사고와 정서가 관련되어 있고,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된 정서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초래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enham(1986)의 유아기 정서 이해 능력과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는 또래가 표현하는 각기 다른 정서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또래에게는 자기도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또래에게는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슬프거나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또래에게는 못 본 척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는 점차적으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발달하게 된다.

### 2) 정서 표현

정서 표현은 자신의 느낌을 타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안라리, 2005). 정서는 얼굴 표정, 언어반응, 신체언어, 활동을 통하여 표현되는데(정명화, 강승희, 김윤옥, 박성미, 신경숙, 신경일, 임은경, 허승희, 황희숙, 2005), 이러한 정서 표현은 학습과 모델링을 통해 배우게 된다. 유아는 기쁨·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 표현과 슬픔·두려움·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만 3~5세경의 유아는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정서표현의 불일치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정서 표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Saarni, 1990).

### 3) 정서 조절

정서 조절은 자신의 감정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한다(안라리, 2005). 유아기는 정서조절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서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은 사회적 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조절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이며, 정서적 자기 규제 능력이란 정서 표현, 특히 부정적 정서 표현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영자, 1999).

Tompson(1991)에 의하면, 정서적 자기 규제능력은 자신의 정서 상태와 강도, 그리고 표현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서적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Wolf(1990)는 유아기의 만족지연 능력의 발달을 제시하였다. 만족 지연 능력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며, 좌절에 수반되는 긴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유아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 표현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자기 규제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정서와 음악

음악은 오랫동안 감정표현과 연결되어 왔으며, 감정의 언어라고도 불려왔다(Winner, 1982). 안재신(1996)은 음악은 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주고 무의식속에서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을 통해서 삶을 감성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유아는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표현할 수 있다. 임은희(1997)에 의하면 음악은 유아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들을 일깨워 주며 주변의 사람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자극하는데,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고 통합하며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조절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정서의 발달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음악경험이 유아가 느끼는 감정표현을 증진시켜 주고, 그 밖의 정서적 느낌을 증진시켜 주는 등 음악 경험을 통해서 유아의 정서 발달이 촉진되어 질 수 있다(김혜경, 2001). 최병철(1999)에 의하면, 유아의 정서 발달에 있어서 음악의 미적 경험은 유아가 긴장을 해소시키고 파괴적 충동을 완화하며 자아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을 정화시켜서 통일과 조화의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음악적 활동은 스스로를 타인의 입장에 서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대인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등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조절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는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학습, 경험하며 그것을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의해 표현된 음악을 듣고 정서를 유추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는 등 음악은 유아의 정서 발달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 측면과 음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서 이해와 음악

유아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감정의 경험을 촉발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경험하게 되며 더 나아가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는 다양한 음색, 화성, 멜로디, 조성으로 구성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을 때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인식하게 된다(정현주, 2005). 이때,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 2) 정서 표현과 음악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하는 내재된 본

능인 음악아(Music Child)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스런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Nordoff & Robbins, 1995). 음악은 자신의 정서, 감정, 느낌과의 만남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상징적으로 재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음악 내에서의 긴장의 고조와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은 삶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과 유사하다(Meyer, 1991).

### 3) 정서 조절과 음악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관련하여 심성경 외(2003)는 음악은 유아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의식하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감정의 표현 및 통제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악기를 두드리거나 리듬에 맞춰서 몸 흔들기 혹은 노래를 흥얼거림으로써 정서적 감수성을 키울 뿐 아니라 이러한 표현적인 음악 활동은 유아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Davis, Gfeller와 Thaut(1999)은 이러한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은 유아가 음악과 신체를 연결하여 표현하기, 감정 상태를 언어화하기, 감정의 상태가 표현된 시각적 그림과 음악연결하기 등의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4) 정서에 영향을 주는 음악적 요소들

리듬, 조성, 강도, 음색 등 음악의 요소들은 인간의 행동 및 정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정현주, 2005). 리듬은 시간적 분할과 관련이 있는데 리듬의 규칙적인 나열은 지지적 정서 및 신체적 항상성을 가져와 예측성을 암시하여 양수 환경에서 경험했던 평정상태를 재경험 함으로써 안정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성의 하위 요소 중 멜로디는 리듬에 공간적인 개념을 추가하여 특정 음의 고저를 가지고 있는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역은 감정의 폭을 의미

하며 순차적 진행, 도약적 진행은 감정을 전개하는 것을 나타낸다. 화성과 화음의 경우 불협화음을 듣게 되면 감정적 맥락을 지지하기보다는 방해받게 되고 협화음을 듣게 되면 해결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감정의 고조, 각성, 해결을 경험하게 한다. 음악에서의 강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그리고 에너지의 강도이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활동의 경우 자신의 표현의 욕구를 악기를 연주하는 강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음색은 표현되는 대상이나 감정의 주체인데, 소리를 통해 자아 표현이 가능하다.

## 3. 유아기 음악활동의 의미

음악은 유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유아들은 일상적인 생활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매일의 활동을 구별 지을 때 일정한 노래나 악기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명절이나 행사,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즐기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며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역사, 지리, 경제 등도 음악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아의 의식 속에서나 생활 속에서 음악은 그들의 삶 자체로서 본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아의 특성에 음악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세문, 기청, 1993).

첫째, 음악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음악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기를 표현하는 음악적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타인의 인간적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둘째, 음악은 인간의 자기표현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음악교육은 모든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다양한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와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음악교육은 청취, 감지, 발견, 구별, 판단, 선택, 배합, 작곡, 연주, 감상, 지식 획득, 기술 연마, 태도 형성, 심미안 형성 등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음악교육은 각 분류와 기본적 개념들이 그 구조

상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음악적 기능을 기르고 삶의 태도와 가치 및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음악의 제 요소가 각기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운영되어 진다.

음악교육은 장래 사회인으로서의 훌륭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것과 음악적 능력을 개발해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김영연, 2002). 이는 유아 음악교육이 단순히 소리나 음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음악적 경험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 음악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음악은 유아가 편안하게 느끼고 즐기며 자신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아 음악 교육은 음악 전문가나 기계적인 연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유아 음악 교육은 단순한 음악적 지식의 습득이라기보다는 청각, 시각, 감각 등의 잠재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나아가 전 영역에 걸친 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유아 음악 교육은 계획된 교육과정에 의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창출된 각자의 음악미에 대한 느낌이 유아의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다시 음악이라는 형태로 재창조되어 표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다 정서적인 생활을 위해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 유아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키워 지속적인 음악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유아의 음악활동은 처음에는 음악을 탐색(exploration), 모방(imitation), 실험(experimentation)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음악을 식별(discrimination), 조직화(organization), 창조(creation)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재조직(reorganization), 생산(product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해 보는 활동으로 발전한다(이영·유애열, 1985). 이러한 유아의 음악적 발달을 고려한 접근이 적기교육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유아 음악교육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 음악교육은 음악적 기능의 훈련보다는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노래 부르기, 소리듣기, 악기탐색 및 악기 다루기, 음악 감상, 창작(음악 창작, 창의적인 동작 표현)과 같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을 즐기고 반응하고 표현하여 유아 스스로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음악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통합적 접근에 의해 전인발달을 돕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III. 연구내용

#### 1. 프로그램 연구 기본 방향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 정서, 흥미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아들이 음악을 놀이를 활용하여 활동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놀이는 곧 유아들의 모든 생활이고 이를 통하여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아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발달, 정서, 흥미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놀이를 활용하여 음악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둘째, 교사의 음악적 전문성이 향상 되도록 체계적인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유아들이 음악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험하게 한다.

넷째, 개발된 정서지원 음악활동에 대해 사전 검증 절차를 갖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진행 중 유아의 행동양상, 반응에 따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유아정서지원 음악활동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현장에 접목시킨다.

## 2.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

### 1) 문헌연구 및 이론적 고찰

유아음악활동과 유아 정서 발달에 관한 문헌 및 이론들에 대해 고찰하여 실제 프로그램에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수립한다.

### 2)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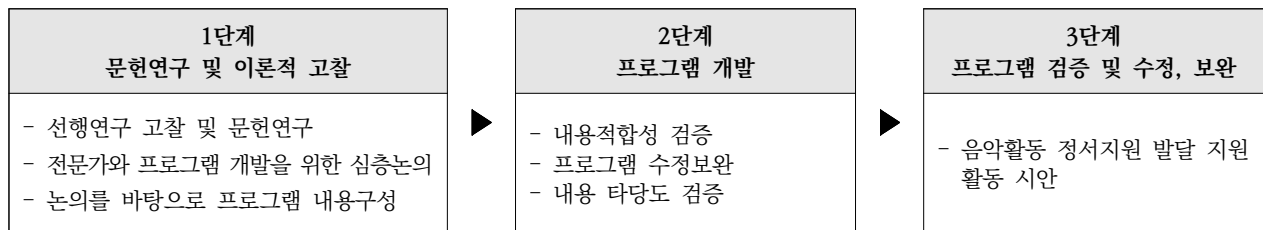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유아정서지원 음악활동의 기본 원리인 유아중심, 과정중심, 관계중심 원리에 근거하여 유아의 요구와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시에는 기존의 음악활동과 차별성을 두어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음악활동을 개발한다. 또한 다양한 악기와 음악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프로그램(1차 시안)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활동 1로서 상호관계 인식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딩동', 활동 2로서 자기표현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작은별', 활동 3은 또래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탐버린'으로 구성 개발하였

다. 구성된 1차 시안은 5명의 10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지닌 영유아교사와 협의하여 수정하였고, 이를 경기도 Y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 75명으로 3학급(민음반, 사랑반, 소망반)에 편성된 유아들에게 적용하였다. 1차 시안 적용 후 교사 평가회에서 1차 시안 적용에 따른 평가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2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2차 시안은 동일 유아에게 적용하여 다시 프로그램 평가와 문제점을 수정하였다.



연구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정서지원을 위한 음악활동 연수 ■ 정서지원 활동의 이해와 실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하여 수업 방법과 교수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 (2) 음악활동을 계획 및 실행을 위한 회의 ■ 구체적인 음악활동을 계획해 보고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 (3) 음악활동 실행 및 수정 후 재실행 정서지원을 위한 음악활동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3개의 활동을 개발한 다음 각 학급에서 활동을 실행해 본다. 실행 후 회의와 프로그램 수정 등을 거쳐 재실행 해 본다.



3) 활동계획안(시안) 및 적용 예시


음악수업 활동계획안(1차시) - 만 5세 믿음반

단위 활동	상호관계 인식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딩동' 1차시	장소	믿음반
목표	연주 활동을 통해 타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형성 할 수 있다.		
활동 과정	<b>교수 · 학습 활동</b>		<b>자료 및 유의점</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핸드벨 악기를 소개하고 악기 소리를 들어본다.</li> <li>2. 악기 연주 경험을 회상하며 악기 이름을 소개한다.</li> <li>3. 악기를 연주하며 교사가 덩동 노래를 불러 본다.</li> </ol>		핸드벨 E음과 A음, 피아노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페르마타 부분에서 교사는 '쉿'이라고 말하면서 잠깐 노래를 멈춘 다음 악기를 건네 줄 유아와 눈 맞춤을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li> <li>2. 눈 맞춤을 한 유아의 이름을 노래에 넣어 '○○이에게'라고 노래하면서 핸드벨 악기를 유아의 손에 건네준다.</li> <li>3. 악기를 받은 유아는 핸드벨을 연주하다가 페르마타 부분에서 멈추고 바로 옆에 앉은 유아에게 이름을 말하면서 건넨다. 모든 유아가 다 해 볼 수 있도록 연주한다.</li> </ol>		핸드벨 
마무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첫 번째는 모든 유아가 악기를 연주 해볼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앉은 친구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두 번째는 주고 싶은 친구에게 악기를 건네주도록 한다.</li> <li>2. 핸드벨을 연주하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하며 친구가 악기를 바로 건네주었을 때와 친구가 악기를 주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이야기 해본다.</li> <li>3. 핸드벨 연주를 하는 유아에게 연주방법을 달리 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빠르거나 소리의 강약의 차이를 두며 연주하고 함께 듣도록 이야기를 한다.</li> <li>4. 활동을 평가한다. 정리시간에 정리를 열심히 하는 유아에게 핸드벨을 건네주고 연주를 하며 정리 시간을 알리는 활동으로 연계한다.</li> </ol>		
평가	<p>반그룹 인원(10명)으로 활동을 진행 하였다. 아이들이 노래가 신이 나서 좋다고 하며 즐겁게 참여하였다. 덩동 노래는 2~3번 정도 듣고는 바로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노래에 맞추어 핸드벨을 연주하면서 주변 친구를 살피며 다음에 건네 줄 친구를 찾았으며 노래가 짧아서 다음 친구에게 건네 주는 게 너무 빨라서 조금 더 연주하고 싶다는 유아가 많아 노래를 두 번 반복해서 부르며 한명 유아가 조금 더 길게 핸드벨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니 더욱 좋아하였다. 처음 악기를 주고 연주하라고 했을 때는 소극적인 표현을 하는 유아도 있었으나 반복하여 활동할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며 처음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연주를 하였다.</p> <p>단순히 핸드벨을 흔드는 것보다 박자나 리듬을 다르게 변형하여 연주하도록 도와주었더니 더욱 즐거워하였고 유아 나름 대로 머리위에서 흔들기 옆으로 흔들기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 등의 창의적인 동작을 첨가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아도 있었다. 또한 자신이 핸드벨을 연주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유아도 있었다.</p> <p>정리시간에 활용하여 활동을 해보니 몇 명의 유아들은 핸드벨 연주를 하려고 더욱더 정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가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에게 핸드벨을 건네주고 연주할 수 있도록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p>		
악보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딩동</b></p> <p style="text-align: right;">남옥선</p>  </div>		

활동  
사진  
자료



음악수업 활동계획안(2차시/수정안) - 만 5세 믿음반

단위 활동	상호관계 인식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딩동' 2차시	장소	믿음반
목표	1. 연주 활동을 통해 타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형성 할 수 있다. 2. 표현생활-예술적 표현 즐기기(단순한 즉흥 연주를 해본다.)		
활동 과정	<b>교수 · 학습 활동</b>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딩동 노래와 핸드벨 악기 연주를 회상한다. 2. 교사가 먼저 딩동 노래를 부르며 악기 연주를 한다.		핸드벨 E음과 A음, 피아노
전개	1. 대그룹으로 모인 유아에게 모든 유아가 한번 씩 다 해볼 수 있도록 딩동 노래를 부르며 핸드벨 연주를 하도록 한다. 2. 한명의 유아를 친구들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딩동 노래에 맞추어 핸드벨을 연주하게 한다. 앞으로 나온 유아는 핸드벨 연주를 마치고 다음 유아에게 핸드벨을 건네 줄 때에는 다음 건네 줄 유아의 특징을 말해주어 여러 명의 친구들 중에서도 교사가 제시하는 특징을 가진 유아를 선택하도록 한다. 3. 핸드벨을 건네받고 앞으로 나온 유아들은 반그룹으로 딩동 노래를 부르며 핸드벨을 연주한다. 4. 연주하는 유아는 창의적인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다양하게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 상호작용해주고 앉아서 지켜보는 유아들도 연주하는 친구의 연주 모습을 따라하거나 반응 하도록 돕는다. 5. 노래를 작게 부르면 핸드벨 연주를 작게 연주하기, 크게 부르면 크게 연주하기, 빠르게 부르면 빠르게 연주하기, 느리게 부르면 느리게 연주하기, 머리위로 흔들기 한손으로 연주하기등 유아의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핸드벨을 연주하도록 상호작용해주며 새로운 창의적인 연주방법에 반응 해준다. 6. 앞으로 나온 유아는 연주를 마치고 들어가면 앞에 나와서 해보지 못한 유아들도 앞으로 나와서 같은 방법으로 연주를 해본다.		핸드벨 
마무리	1. 활동을 평가한다. 2. 모두 한 번씩 핸드벨을 받아서 연주 했을 때와 핸드벨을 받지 않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 평가한다.		
평가	대그룹으로 진행하니 소그룹으로 진행 했을 때와는 다르게 앉아서 지켜보는 유아들이 약간 산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1차시 때보다 2차시 때 유아들의 창의적인 연주에 더 많은 반응을 해주니 유아들도 즐기며 다양한 창의적인 연주 방법을 생각해 내어 활동에 참여 하였다. 또한 소극적인 표현으로 연주하던 유아도 적극적으로 연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 지원과 경청을 하여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핸드벨을 건네줄 유아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을 제시해주고 그 특징에 해당하는 친구를 고르라고 할 때 특징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유아 눈에 쉽게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먼저 제시하여 쉽게 다음 친구를 고르도록 도와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추상적인 특징을 제시하면서 핸드벨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였다. “착한 00”, “씩씩한 00이” 등 한 아이가 “머리가 긴 00야~ 나무도 잘그리는 00야”라고 하자 한두명씩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래의 강약에 따라서 연주도 강약으로 연주하는 모습과 머리위로 흔들기 한손으로 연주하기 등 유아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핸드벨을 연주하도록 상호작용해주며 새로운 창의적인 연주방법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상호관계 인식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으로 유아들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아갔다. 음악활동 안에서 친구와 공유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래 친구들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유아들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의 방법과 또래 내에서의 적절한 사회관계 기술을 터득해 가는 듯 보였다.

악보

**딩동** 남옥선

딩 - 동 - 딩 - 동 - 아름다 - 운 벨 소리 - 랄랄라

5  
딩 - 동 - 딩 - 동 - ㅇㅇ이 - 에게 -

활동  
사진  
자료



##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프로그램의 계획과 활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술경험 교육과정과 그에 따르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유아음악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기에 있어 정서지원의 필요성과 유아 음악활동을 제공해야 할 당위성을 알게 되었으며, 기존의 새 노래 지도,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음악활

등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또한 활동의 양적인 측면 외에 활동의 구성, 교수 방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시행 후 평가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2차로 시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도모하였다.

유아의 음악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및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 해 본 결과 유아기에 있어 정서지원의 필요성과 유아 음악활동을 제공해야 할 당위성을 알게 되었

으며 음악활동의 내용과 함께 발달적, 교육적 효과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먼저, 유아들은 상호관계 인식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딩동'을 통해서 소리의 탐색과 소리 만들기, 악기 이름 소개하기, 악기 다루기, 음악 감상하기 등 자발성과 주도성이 증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아의 상호관계 인식을 통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다. 유아들은 소리 탐색과 악기 다루기의 탐색적인 수준에서 좀 더 발전하여 악기다루기를 이용해 확장된 연주를 하였다. 이러한 유아들의 상호 관계 인식을 통해 타인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놀이형식으로 발현되었다. 이와 함께 유아들은 악기연주를 통해 자신의 발달적 특성과 타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즉, 유아들은 자신들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발달영역 간의 음악활동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음악적 도구를 활용해 나타냈으며 자신의 언어발달 수준에서 요구되는 방향을 음악적 상황에서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안에서 유아들은 음악의 적극적인 체험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상호관계 인식의 중요성이 나타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아들은 악기연주를 활용해 가면서 교육영역간의 통합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리듬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음악을 감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교육 영역적 요소를 접목시키고 다른 교육영역에서의 경험과 활동을 음악과 연계하였다. 특히 음악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또래와의 음악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유능감을 키워가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악기연주를 통해 특정한 주제를 다양한 활동영역과 연결시켜 긍정적인 관계적 학습을 촉진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사회적 관계와 인지적 탐구경험에서 발휘할 수 있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신주영, 2008).

악기를 통한 음악활동에서 나타난 통합적 음악교육의 의미는 먼저 음악이 놀이와 대화, 노래, 신체동작, 악기 연주 등 총체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활동이 유아의 다채로운 활동 안에서 더욱 활성화 되었듯이

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은 음악교육의 영역과 발달, 정서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유아들은 악기연주를 가지고 단순히 소리내기와 기계적인 연주가 아니라 악기를 심리적 표현 동기로 소리내 보고, 노래 부르기에 맞춰보며, 자신이 들었던 소리를 재생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해가면서 리듬, 강약, 템포, 음색등을 개념화하고 신체와 언어적 상호작용과 표현력, 인지적 탐구능력 및 사회 정서적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다.

또한 누리 교육과정과 그에 따르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유아기에 있어 정서지원의 필요성과 유아 음악 활동을 제공해야 할 당위성을 알게 되었으며 기존의 새노래지도,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음악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활동의 구성, 교수 방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제언

유아정서지원을 위한 음악활동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하여 유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가 발달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교사들은 음악활동에 대한 새로운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노래, 악기연주, 음악감상, 신체 표현 등 유아 음악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들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음악활동을 통한 능동적 학습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음악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음악을 즐기고, 음악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곽봉애(2010)의 주장과 같이 유아의 음악교육은 음악적 지능과 예술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통합적인 음악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리듬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즉흥연주가 가능한 다양한 음악적악기들을 통하여 유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아들의 정서지원이 가능한 음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존의 교수 방법에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여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할 것이며 다양한 음악이나 매체, 표현 방법들을 고안함으로 하여 음악교육과정에 근거한 정서지원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고안하고자 한다. 정서지원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단기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곽봉애(2010). 통합적 리듬악기 지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악 능력 및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란(1999). 유아교육기관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연(2002).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김태련(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혜경(2001). 유아음악교육 2000. 서울: 창지사.

신주영(2008). 통합교육을 위한 음악극 학습지도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성경 외(2003). 유아음악교육. 서울: 양서원.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재신(1994).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이영옥(1999). 유아음악활동의 현장 실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자(1999). 이영자, 이종숙, 이옥, 신은수, 이정옥(199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혼합연령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서지능 발달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3-24.

이영, 우애열(1985).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용성 출판.

이미경(2001). 유치원 음악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은희.(1997). 불안,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음악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현숙(2014). 아동의 놀이활동과 음악과의 현황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Bonello, P. J. (1998).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with ADHD: The contribution of symptom seve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_\_\_\_\_ (2001). Dealing with feelings: Foundations and consequence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5-10.

Davis, W., Gfeller, K. & Thaut, M.(1999).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2nd Ed.)*. Dubuque, IO : McGraw-Hill companies, Inc.

Izard, C. E.(1997).Emotions and facial expressions: A perspective from differential emotions theory. In Russell J. A., & Fernandez-Dols(Eds). *Th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yer, L. B.(1991).음악의 의미와 정서. (신도웅 역). 서울: 예술.(원저 1956 출판).

Nordoff, P. & Robbins, C.(1995).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New York: John Day Company.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Tompson, R. A. (1991).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 269-307.

Winner, E., & Martino, G.(2000). Giftedness in non-academic domains: the case of the visual arts and music. In Heller, K. A., Monks, F. J., Sterberg, R. J., Subotnik, R. F.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2nd ed.). Oxford: Elsevier Science Ltd.

Wolf(1990), *The psychology of music*. New York: Ronald Press.

## Abstract

# Preliminary study on development of music program to support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Park, Youngmi, Kim, Hyeon Jeong

(Professor, Early Childhood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usic program for emotional support of young children. In other words, the purpose is to confirm the direction of the emotional support music program by creating and applying a preliminary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plan prior to full-scale program development. To this end, an activity plan was created to help children recognize that they and others are different, empathize with and understand their own and others' emotions, and express and regulate them appropriately. After applying this, the program was continuously modifi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child's behavior patterns and reactions. Through this preliminary study, we will focus on developing a continuous program that will help children's emotional stability and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music activities for children's emotional support.

**Key Words:** emotional support,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music program

---



##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

김보미 · 김예진 · 박다은 · 송수연 · 조유진 · 최윤희 · 김현성(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김은주(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국문초록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 인간의 사고능력을 모사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1세대 인공지능 기술인 퍼셉트론(Perceptron), 2세대 인공지능 기술인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그리고 현재의 3세대 딥러닝(Deep-Learning)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후로 2016년에 등장한 알파고(AlphaGO)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2020년대에 이른 오늘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급부상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중요한 덕목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는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리터러시에서 다양한 산업과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확장되어 지금은 '미디어나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의 현황과 연관성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점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W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이었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W시 소재의 4년제 대학의 재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진행을 허락받고 대상자를 모집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대학커뮤니티, 단체메신저에 게시하였으며 구글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원하는 참여자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ANOVA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3.26 \pm 0.48$ 점, 긍정적태도  $3.89 \pm 0.47$ 점, 부정적태도는  $2.99 \pm 0.67$ 점이었다. 디지털리터러시의 하위영역 1, 개인창작 및 공감능력은  $2.95 \pm 0.94$ 점이었고, 하위영역2, SW/앱 이용능력은  $4.30 \pm 0.67$ , 하위영역3,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은  $4.59 \pm 0.56$ , 하위영역4,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은  $3.85 \pm 0.65$ , 하위영역5, 윤리적 행동능력은  $4.57 \pm 0.60$ , 디지털리터러시 총점은  $4.03 \pm 0.40$ 점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 디지털리터러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공지능의 인식,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본 경우에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가 선행연구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 특성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도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미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인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대학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 인간의 사고능력을 모사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1]. 인공지능 기술은 1세대 인공지능 기술인 퍼셉트론(Perceptron), 2세대 인공지능 기술인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그리고 현재의 3세대 딥러닝(Deep-Learning)으로 발전되어 왔다[1]. 이후로 2016년에 등장한 알파고(AlphaGO)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2020년대에 이른 오늘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급부상하였다[1].

최근 인공지능 Chat GPT의 출현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발전은 행정, 법률, 교육, 보건, 간호 등 모든 분야의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서 환자와 질병에 대한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응용하고 다루어, 여기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2]. 특히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킨 비전, 뷰노 등의 헬스 케어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생활 습관 정보 제공을 통해 질병 발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6]를 통해 AI는 의료 영상 분야, 원격 의료 분야, 정밀 의학, 예측 분석, 간호정보시스템 등에서 활용되어 의료서비스와 생명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 가운데 이제 과학의 한 영역에서 발생한 국소적 도구의 지위를 넘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스템이 되고 있다[3].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중요한 덕목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는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리터러시에서 다양한 산업과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확장되어 지금은

'미디어나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의미로 발전하였다[10].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 대학생들은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사회와 산업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공계열 관련 전공생뿐 아니라 모든 전공의 대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이나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6]. Wagner and Sherwood(1969)는 학습자가 정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정보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적고, 정보 기술의 활용이나 상호작용을 선호하며, 정보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있어 태도와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선행연구로는 한국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11],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12] 등 일부 연령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만을 단편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이 주로 있으며 AI 태도 및 효능감 변화[13],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14] 등 이공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시행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단대별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8], 대학생의 AI 리터러시 역량 신장을 위한 교양 교육 모델 [1], 대학생의 정신건강, 디지털 사회자본,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폰 의존도, 학습몰입과의 구조적 관계[9]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비교하며 변화하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의 현황과 연관성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점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으며 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디지털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각성하고 향후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디지털리터러시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디지털리터러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W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프로

램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0.05$ , 검정력  $1-\beta=0.95$ 의 조건 하에서 선정하여 11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5%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2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3. 측정 도구

### 1)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은 Shinnars 등 (2020)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를 개발자에게 허락받고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8였다.

### 2)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는 Schepman과 Rodway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범위의 직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현재 이슈화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개발자와 한국어판 도구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긍정적 태도 11개 문항과 부정적 태도 7개 문항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 혹은 긍정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긍정적 태도 .86과 부정적 태도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2, .82였다.

### 3)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정미현 등이 미래사회

를 대비한 핵심역량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상정하고, 이를 자가 진단하거나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를 개발한 것으로,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개발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5문항, SW/앱 이용 능력 6문항,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5문항,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5문항, 윤리적 행동 능력 4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산출 결과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W시 소재의 4년제 대학의 재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진행을 허락받고 대상자를 모집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대학 커뮤니티, 단체메신저에 게시하였으며 구글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원하는 참여자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 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 인원, 연구과정, 연구기간,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철회 등을 앞에 설명서로 넣어 명시하여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은 '예' 버튼을 눌러 설문을 시작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인 통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익명성이 보장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한 도중에

도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 6.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끼리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78명(67.2%), 남학생이 38명(32.8%)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7명(23.3%), 2학년 28명(24.1%), 3학년 32명(27.6%), 4학년 29명(25.0%)이었다. 전공계열 별로 인문사회계열 30명(25.9%), 자연계열 8명(6.9%), 공학계열 10명(8.6%), 보건계열 62명(53.4%), 예체능계열 6명(5.2%)이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6명(31.0%)이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6명(48.3%) 있었고 총 8개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대상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각각 Chat GPT가 48명(41.4%), MS Bing가 2명(1.17%), 피그마, Chat GPT 매트랩, 은행어플상담, AI 프로그램, 삼성 빅스비, Wombo Art가 각각 1명(0.9%)이었다.

학과별 분포는 간호학과 51명(44.0%), 광고영상미디어학과 8명(6.9%), 컴퓨터 공학과, 사회복지학과, 기계공학과, 경영학과, 임상병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기계공학과, 경영학과, 임상병리학과가 각각 3명(2.6%)이었고,

영어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찰법학과, 물리치료학과, 화학과, 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소프트웨어학과가 각각 2명(1.7%)이었고 식품영양학과, 유아교육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공공인재학과, 태권도학과, 철학과, 정보통계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스마트팜학과, 역사문화학과, 보건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재활상담학과, 치위생학과가 각각 1명으로 (0.9%)이었다(Table 1).

[Table 1] 일반적 특성 (N=116)

특성	구분	n(%)
성별	남자	38(32.8%)
	여자	78(67.2%)
학년	1학년	27(23.3%)
	2학년	28(24.1%)
	3학년	32(27.6%)
	4학년	29(25.0%)
계열	인문사회계열	30(25.9%)
	자연계열	8(6.9%)
	공학계열	10(8.6%)
	보건계열	62(53.4%)
	예체능계열	6(5.2%)
교육 여부	예	36(31.0%)
	아니오	80(69.0%)
사용 여부	예	56(48.3%)
	아니오	60(51.7%)

## 2. 대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

대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총점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6 \pm 0.48$ 점, 긍정적태도 평균 점수는  $3.89 \pm 0.47$ 점, 부정적태도는  $2.99 \pm 0.67$ 점이었다. 디지털리터러시의 하위영역 1, 개인창작 및 공감능력의 평균 점수는  $2.95 \pm 0.94$ 점이었고, 하위영역 2, SW/앱 이용능력의 평균 점수는  $4.30 \pm 0.67$ , 하위영역 3,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의 평균 점수는  $4.59 \pm 0.56$ , 하위영역 4,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의 평균 점수는  $3.85 \pm 0.65$ , 하위영역 5, 윤리적 행동능력의 평균 점수는  $4.57 \pm 0.60$ , 디지털리터러시 총점은  $4.03 \pm 0.4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인공 지능 인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N=116)

	구분	Mean	SD
태도	인식총점	3.26	0.48
	긍정적	3.89	0.47
	부정적	2.99	0.67
디지털 리터러시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2.95	0.94
	SW/앱 이용 능력	4.30	0.67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4.59	0.56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3.85	0.65
	윤리적 행동 능력	4.57	0.60
	총점	4.03	0.40

## 3.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상관관계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 $r=.044, p=.644$ ). 인식 총점과 긍정적 태도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r=.523, p<.001$ ) 인식 총점과 부정적 태도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r=-.115, p=.213$ )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1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 않았고 ( $r=-.091, p=.334$ ).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2 (SW/앱 이용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r=.041, p=.665$ ).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3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 $r=.032, p=.732$ ).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4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r=.240, p=.01$ ).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이 증가할수록 인식 능력도 약간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5 (윤리적 행동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004, p=.963$ ).

위의 결과에 따라 인식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리터러시 D1, D2, D3, D5

[Table 3]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상관관계

(N=116)

	인식 r(p)	긍정적 태도 r(p)	부정적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총점 r(p)	디지털 리터러시1 r(p)	디지털 리터러시2 r(p)	디지털 리터러시3 r(p)	디지털 리터러시4 r(p)	디지털 리터러시5 r(p)
인식	1								
긍정적태도	.523** (<.001)	1							
부정적태도	-.115 (.213)	-.172 (.060)	1						
디지털리터러시 총점	.044 (.644)	.280** (.002)	-.134 (.145)	1					
디지털리터러시1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091 (.334)	-.147 (.109)	.201* (.027)	.403** (<.001)	1				
디지털리터러시2 (SW/앱 이용 능력)	.041 (.665)	.349** (<.001)	-.150 (.101)	.763** (<.001)	.021 (.827)	1			
디지털리터러시3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032 (.732)	.295** (.001)	-.144 (.115)	.707** (<.001)	.004 (.968)	.673** (<.001)	1		
디지털리터러시4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240** (.01)	.254** (.005)	-.199* (.029)	.455** (<.001)	-.200* (.031)	.219* (0.018)	.144 (.124)	1	
디지털리터러시5 (윤리적 행동 능력)	.004 (.963)	.182* (.048)	-.264** (.004)	.464** (<.001)	-.184* (.049)	.256** (.006)	.356** (<.001)	.312** (<.001)	1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연관성이 매우 약하거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식의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4(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이 증가할수록 인식 능력도 약간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이 인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간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r=.280, p=.002).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1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147,

p=.109)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2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r=.349, p<.001)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3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95, p=.001).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4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r=.254, p=.005),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5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182, p=.048).

다음은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간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r=-.134, p=.145).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1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r=-.201, p=.027$ )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2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 $r=-.150, p=0.101$ )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3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r=.144, p=.115$ ).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4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r=-.199, p=.029$ ), 부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5간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64, p=.004$ ) (Table 3).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더 높았다 ( $t=2.25, p=.026$ ).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73, p=.533$ ). 계열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고( $F=2.28, p=.064$ ), 인공지능 교육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28,$

$p=.774$ ). 인공지능 사용 여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68, p=.490$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3.61, p<.001$ ). 학년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11, p=.348$ ). 학과 계열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03, p=.095$ ). 인공지능 교육 여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29, p=.258$ ). 인공 지능 사용 여부에 따라 인공 지능을 사용한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t=30.47, p<.00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0, p=.988$ ). 학년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F=.47, p=.704$ ). 학과 계열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F=.70, p=.595$ ). 인공지능 교육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7, p=0.163$ ). 인공 지능 사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0.47, p<.001$ ) (Table 4).

[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N=116)

특성	구분	인식		긍정적태도		부정적태도	
		M±SD	t/F	M±SD	t/F	M±SD	t/F
			(p)		(p)		(p)
		Scheffé		Scheffé		Scheffé	
성별	남자	34.08±6.15	2.253	4.11±0.52	13.61	2.99±0.74	.000
	여자	31.94±4.00	(.026)	3.78±0.41	(<.001)	2.99±0.63	(.988)
학년	1학년	33.15±3.91		3.93±0.41		2.99±0.58	
	2학년	31.86±5.92	.736	3.81±0.41	1.11	3.01±0.53	.470
	3학년	32.13±3.70	(.533)	3.83±0.48	(.348)	2.89±0.65	(.704)
	4학년	33.48±5.77		4.00±0.55		3.02±0.88	
계열	인문사회계열	33.93±4.31		3.84±0.38		3.00±0.59	
	자연계열	31.38±3.42		3.92±0.52		2.95±0.61	
	공학계열	35.3±5.44	2.288	4.17±0.72	2.027	2.84±1.10	.698
	보건계열	32.03±5.09	(.064)	3.90±0.44	(.095)	2.98±0.64	(.595)
	예체능계열	29.67±3.88		3.52±0.36		3.40±0.57	
인공 지능 교육 여부	유	32.83±4.68	.287	3.96±0.53	1.29	3.12±0.63	1.97
	무	32.55±5.01	(.774)	3.86±0.44	(.258)	2.93±0.68	(.163)
인공 지능 사용 여부	유	32.96±5.73	.684	4.11±0.44	30.47	2.83±0.72	6.64
	무	32.33±3.99	(.490)	3.69±0.41	(<.001)	3.69±0.67	(.011)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5-1, 5-2) 성별, 학년별, 계열, 인공 지능 교육유무, 인공 지능 사용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D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t=3.75, p<.001$ ) 프라이어

[Table 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개인 창작 및 공감, SW/앱 이용 능력,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 $N=116$ )

특성	구분	디지털리터러시1 (개인창작 및 공감능력)		디지털리터러시2 (SW/앱 이용 능력)		디지털리터러시3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	
		M±SD	t/F	M±SD	t/F	M±SD	t/F
			(p)		(p)		(p)
		Scheffé		Scheffé		Scheffé	
성별	남자	12.61±4.66	3.745	26.79±3.63	1.781	23.5±2.24	1.106
	여자	15.88±4.31	(<.001)	25.42±3.99	(.078)	22.95±2.64	(.271)
학년	1학년	14.67±4.49		25.81±4.28		23.63±2.24	
	2학년	14.5±4.72	0.504	26.18±3.68	0.478	23.11±2.57	0.511
	3학년	15.66±4.63	(.680)	26.28±4.1	(.698)	22.84±2.57	(.676)
	4학년	14.31±4.95		25.17±3.67		23±2.73	
계열	인문사회계열	14.77±4.24		24.9±4.03		23.2±2.47	
	자연계열	13.63±2.88		25.75±4.4		23.38±1.92	
	공학계열	12.3±5.17	1.211	27.9±3.96	1.28	24.2±1.75	1.004
	보건계열	15.21±5	(-.31)	26.11±3.7	(-.282)	23.03±2.65	(.409)
인공 지능 교육 유무	예	14.78±5.39	-0.05	26.14±4.45	0.493	23.19±2.79	0.186
	아니오	14.83±4.34	(0.96)	25.75±3.68	(0.623)	23.1±2.41	(0.853)
인공 지능 사용 여부	예	14.39±5.16	-0.93	26.48±3.76	1.637	23.43±2.46	1.238
	아니오	15.2±4.17	(.354)	25.3±4.01	(.104)	22.85±2.56	(.218)

[Table 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프라이어시 보호 능력, 윤리적 행동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총점) ( $N=116$ )

특성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4 (프라이어시 보호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5 (윤리적 행동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총점	
		M±SD	t/F	M±SD	t/F	M±SD	t/F
			(p)		(p)		(p)
		Scheffé		Scheffé		Scheffé	
성별	남자	20.21±3.2	2.129	18.39±2.27	-0.048	101.5±9.16	0.011
	여자	18.88±3.13	(.035)	18.42±2.17	(.962)	101.48±9.2	(.991)
학년	1학년	18.56±3.63		18.04±2.2		100.46±7.97	
	2학년	19.64±2.91	0.779	19±1.49	1.610	102.43±7.57	0.950
	3학년	19.72±3.03	(.511)	18.66±2.13	(.191)	103.16±9.04	(.419)
	4학년	19.28±3.25		17.9±2.7		99.66±11.38	
계열	인문사회계열	19.87±2.26		18.53±2.22		101.27±7.67	
	자연계열	19.75±3.45		19.13±1.46		101.63±6.65	
	공학계열	20.4±3.78	1.056	16.6±2.88	2.627	101.4±11	0.189
	보건계열	18.97±3.39	(.382)	18.66±2.04	(.038)	101.89±9.84	(.944)
인공 지능 교육 유무	예	20.06±3.35	1.678	18.23±2.7	-0.58	102.26±11.18	0.596
	아니오	18.99±3.09	(0.096)	18.49±1.95	(0.563)	101.15±8.16	(0.553)
인공 지능 사용 여부	예	20.05±3.35	2.442	18.59±2.02	0.858	102.95±9.49	1.681
	아니오	18.63±2.91	(.016)	18.24±2.36	(.393)	100.1±8.65	(.096)

[Table 5-2-1] 디지털리터러시5(윤리적 행동능력)에 따른 계열 비교

(N=116)

종속변수	(I) 계열	(J) 계열	평균차이(I-J)	표준오차	CTT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디지털리터러시5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59167	.84991	.975	-3.2546	2.0713
		공학계열	1.93333	.77993	.197	-.5103	4.3770
		보건계열	-.12240	.47630	.999	-1.6148	1.3699
		예체능계열	1.20000	.95522	.812	-1.7929	4.1929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59167	.84991	.975	-2.0713	3.2546
		공학계열	2.52500	1.01316	.192	-.6494	5.6994
		보건계열	.46926	.80316	.987	-2.0472	2.9857
		예체능계열	1.79167	1.15354	.661	-1.8226	5.4059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1.93333	.77993	.197	-4.3770	.5103
		자연계열	-2.52500	1.01316	.192	-5.6994	.6494
		보건계열	-2.05574	.72871	.101	-4.3389	.2274
		예체능계열	-.73333	1.10299	.979	-4.1892	2.7226
보건계열	인문사회계열	.12240	.47630	.999	-1.3699	1.6148	
	자연계열	-.46926	.80316	.987	-2.9857	2.0472	
	공학계열	2.05574	.72871	.101	-.2274	4.3389	
	예체능계열	1.32240	.91387	.719	-1.5409	4.1857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1.20000	.95522	.812	-4.1929	1.7929	
	자연계열	-1.79167	1.15354	.661	-5.4059	1.8226	
	공학계열	.73333	1.10299	.979	-2.7226	4.1892	
	보건계열	-1.32240	.91387	.719	-4.1857	1.5409	

시 보호 능력(D4)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13, p=.035$ ). 인공 지능 사용 여부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D4) ( $t=2.44, p=.016$ )는 인공 지능을 사용한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한 사후 Sheffe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2-1).

####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6 \pm 0.48$ 점이었다. 간호대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14]에서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2 \pm 0.58$ 점으로 본 연구 참여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 혹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는  $3.89 \pm 0.47$ 점, 부정적 태도 점수는  $2.99 \pm 0.67$ 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4]에서 측정된 점수인 긍정적 태도 점수,  $3.68 \pm 0.46$ 점과 부정적 태도 점수,  $3.05 \pm 0.55$ 점보다 긍정적 혹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SW/앱 이용능력의 평균 점수는  $4.30 \pm 0.67$ ,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의 평균 점수는  $4.59 \pm 0.56$ ,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의 평균 점수는  $3.85 \pm 0.65$ , 윤리적 행동능력의 평균 점수는  $4.57 \pm 0.60$ 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반면, 개인창작 및 공감능력의 평균 점수는  $2.95 \pm 0.94$ 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19]에서 대학생들의 경우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4.83), 윤리적 행동능력(4.71), SW/앱 이용 능력(4.65),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4.11)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반면, 개인창작 및 공감 능력(3.07)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디지털리터러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의 상관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5]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의 증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감소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긍정적 태도 총점과 디지털리터러시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도를 알아보려고 수행한 연구[16]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정보탐색, 이용, 구매의도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프라이버시 보호능력(디지털리터러시4)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수용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18]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침해 경험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디지털리터러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학년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공지능 사용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수용태도가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4, 14]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남학생의 긍정적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인공지능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이 수업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인식, 수용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는 3학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의 인공지능 수용태도가 4학년과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를 분석한 결과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문항(D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D4)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19]에서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D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계열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SW/앱 이용 능력'과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학자연과학계열이 인문사회과학계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점점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디지털리터러시 역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높은 디지털리터러시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최근 챗지피티의 확산과 인공지능의 영역의 확대의 시점에 대학생들은 어떤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하며 어떤 태도와 적응력을 가져야할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디지털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각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가 선행연구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 특성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 정도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미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1] 박윤수,이유미 (2021). 대학생의 AI 리터러시 역량 신장을 위한 교양 교육 모델.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5(2), 423-436.
- [2] 김학균 (2016). 4차 산업혁명의 명암. 마이더스, 2016 11, 84-87.
- [3] 이찬규 외 (2021). 대학생의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4] 서연희, 안정원 (2022). 한국어판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한국간호교육학회지,28(4),357-367.
- [5] 전해정, 인공지능과 대중의 인식의 관계, LG 전자 소셜매거진
- [6] J. Lee & V. J. Shute. (2009). The influence of noncognitive domains on academic achievement in k-12. ETS Research Report Series, 2, i-51
- [7] 김소희, 이기혜 (2022). AI로 인한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대학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8(4), 23~46.
- [8] 김태영 (2022). 단대별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 인문사회 21, 13(3), 137-152.
- [9] 김윤정 (2022).대학생의 정신건강, 디지털 사회자본,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폰 의존도, 학습몰입과의 구조적 관계.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2(11),427-444.
- [10] 김경희, 김광재, 이숙정 (2019).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한국방송학보, 33(4), 5-36.
- [11] 김성원, 이영준 (2020). 한국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2), 1-13
- [12] 김성원, 이영준 (2020).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23(3),17-30.
- [13] 한정윤 (2020). AI 프로젝트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수준 및 프로젝트 흥미에 따른 AI에 대한 태도 및 효능감 변화.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4(4), 391-400.
- [14] 서연희, 조경아 (2022).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수용태도가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연구학회지, 6(3), 81-90.
- [15] 황서이, 남영자 (2020).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감정, 수용의도 관계에서 위험인식의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8),350-358.
- [16] 황영훈, 박수아, 최세정 (2020).비이용자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미디어 경제와 문화,18(1),31-71.
- [17] 권미혁, 고영희(2023). 수용자관점의 인공지능 인식에 대한 연구. 현상과인식, 47(1), 73-106.
- [18] 장창기, 성옥준 (2022).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정보화정책,29(1),60-83.
- [19] 정미현, 김재현, 황하성 (2021).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의 개발 및 예측타당성 검증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2(4), 51-63.

## Abstract

#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ttitude towar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Digital Literacy

Jeong, Kyung-hee (Director, Haneulchae Daycare Center) and Kim, Hyeon Jeong (Professor, Early Childhood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ir digital literacy. AI technology, evolving from Perceptron to Deep Learning,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especially with AlphaGO in 2016, making it a critical general-purpose technology. Digital literacy, crucial in the AI era, now refers to the ability to effectively use and understand various digital media and tools.

Conducted among 120 students at a university in W city, the research used surveys to assess their AI perception, attitude, and digital literacy. Results indicat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I perception, positive attitude, and digital literacy, while negative attitudes correlated negatively. The study found that male students and those with AI experience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AI. The research suggests a need for further examination of AI and digital literacy usage and ethical considerations.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Perception, Attitude, Digital Literacy, University Students

### \*필자 정보

**김보미, 김예진, 박다은, 송수연, 조유진, 최유희, 김현성:**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023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의 프로그램 과정 중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한국아동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한 논문이다. 대학생들의 인공지능에 관한 최근 경향과 디지털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연구였으며 최근 들어 긍정적인식과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은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분야는 아동간호학과 간호교육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Healthcare, 2023)", "Development of pediatric simulation based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BMC Nursing, 2023)", Types of Empathy Among Certified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2023) 등이 있다. (26403)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150, 보건복지관 308호 033)760-8650, 010-8908-2338

\*E-mail: kimeju@gwnu.ac.kr

##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대학생의 관점

이행옥(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현재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가족관계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전통적이었으나, 가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이러한 인식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은 대학생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미래 가족에 대한 태도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성인이 초기인 대학생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미래 가족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가족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가족 다양성, 전통적 가족, 교육

###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가족구성원 일부가 따로 사는 분거 가구의 증가도 가족 변화의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전통적 이미지로 핵가족을 떠올리는 것이 고정 관념임을 보여준다(한국여성연구소, 2014). 통계청(2018)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8.6%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인가구를 넘어섰다. 즉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035년에는 전체가구의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 가족의 구조와 형태, 기능, 가치와 인식 등의 차원에서 가족 및 가정생활의 역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여성 취업의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족 및 가정생활 관련 가치와 인식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족 관련 주요 트렌드 및 현상이기도 하다(이기숙 외, 2021). 가족 관련 현상의 변화가 부각되면서 가족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혈연, 결혼 외의 방식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발적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다. 결혼한 남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구조의 가족들이다.

따라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현재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 II. 본론

### 1. 가족구조와 형태의 변화

가족의 전통적 정의는 가족은 공동의 거주와 경제적 협력을 하며, 자녀출산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집단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양자)로 구성된 집단(Murdock, 1949; 유영주 외, 2022재인용)이다.

한편 전통적 가족정의를 현대사회의 가족변화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족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애정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 헌신하고 자원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Olson과 Defrain, 1999; 유영주 외, 2022재인용)으로 기본적 가족구성 요건 외에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현대적 가족정의를 시사한다.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규모의 축소로, 1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 2010년 2.69명, 2017년 2.47명(통계청, 2018)으로 가족의 소규모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은 2005년 이전에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에는 1인가구로 변경되었다. 또한 세대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2005년 16.2%에서 2017년 28.6%로 증가였고, 주된 세대 유형인 2세대 가구는 2005년 55.4%에서 2010년 51.3%로 계속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3세대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구 분화가 계속 진행(통계청, 2018)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가족의 다양성

가족에 대한 현대적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혈연, 결혼 외의 방식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 유영주 외(2022)는 다양한 가족에는 자발적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있다고 하였다. 즉 결혼한 남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구조의 가족들이다. 따라서 가족(the family)라는 획일적 정의가 아닌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괄하는 가족들(families)로 정의(유영주 외, 2022)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조흥식 외(2020)는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와 다양성을 더욱 추구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제도화된 가족보다는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추구하게 한다고 하였다.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동거부부, 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에 의한 재결합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주말가족 등 비동거가족, 공동체거주가족, 장소의 초월성을 갖는 원격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조흥식 외, 2020).

따라서 현대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외형적으로 가족의 형태 변화와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 3. 연구방법

가족관계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수강전의 가족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족 다양성 교육이후 현재의 가족과 미래의 자신의 가족과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진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5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4. 가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

##### 1) 전통적 가족의 모습들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엄마와 아빠,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예요.” (남 OO) 라고 참여자는 설명하였다.

“엄마와 아빠, 아들, 딸 4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이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예요” (정 OO) 라고 참여자는 설명하였다.

“엄마와 아빠,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예요.” (양 OO) 라고 참여자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모습은 부부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은 공동의 거주와 경제적 협력을 하며, 자녀출산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집단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Murdock, 1949;유영주 외, 2022재인용)이

라는 전통적 가족정의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족의 다양한 모습들

수업을 수강한 이후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 되었다.

‘미소 짓는 노부부’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 중 노인 가족의 사진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가족은 노부부가 몸을 서로의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안정감과 여유가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가족의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노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가구들의 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sup>1)</sup>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0년의 독거노인 가구는 543,787가구에서 현재 2023년은 1,993,334가구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세대는



[사진1] 미소 짓는 노부부

1)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사진2]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족

자녀의 교육이나 혼인 등으로 노후준비가 늦고, 공적연금의 늦은 시행 등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해요.<sup>2)</sup> 노인 빈곤율(2017년 기준)은 43.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5.5%에 비해 28.3%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노후소득의 감소가 빈곤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된 사회적 구조와 인식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노인 빈곤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와 같이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남 OO)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족’은 참여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 중 다문화가족의 사진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가족은 미소짓는 가족의 모습이 국적이 다른 것은 틀림이 되지 않다고 말하며 현재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인상 깊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점점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며 주변에서 종종 보이는 가족형태가 되어가며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을 이룬 모습을 보니 적응해나가는 과정은 긴 시간이 걸리고 정말 힘들고 아무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의<sup>3)</sup> 2018년과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2018년 306,995 가구에서 2021년 346,017 가구로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제일 많지만 그 외에도 부부와 그들의 부모 또는 형제와 같이 사는 가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2021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58%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 내용은 빈약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착장려금이나 긴급생활자금 등 여러 지원금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

2)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4>

3)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9](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9)

4) [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74&list\\_no=390852&seq=1](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74&list_no=390852&seq=1)



[사진3] '즐거운 해변, 우리들'

와 자녀의 교육을 통해 사회 및 학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정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즐거운 해변, 우리들’은 참여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 중의 입양 가족의 사진이다.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해변에서 서로 손을 잡으며 뛰고 있는 모습으로 등을 돌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상상이 들어서 인상 깊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e나라 지표<sup>4)</sup>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 아동 수는 2019년 387명에서 2022년 182명, 국외 입양 아동 수는 2019년 317명에서 2022년 14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sup>5)</sup>로 하여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을 담아 건전한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입양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sup>6)</sup>으로 출산 신고를 한 아이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입양이 어려워져서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엄격한 입양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양 가족을 문제가 있는 가족, 이상한 가족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 3)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가족과 삶의 모습

‘노을 속 입맞춤하는 부부’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 유형 중 부부 가족의 사진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5)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7418>

6)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NFPTE2>



[사진4] 노을 속 입맞춤하는 부부

“결혼을 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격과 개그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만 아이를 가지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7) ‘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라고 해요. 아이를 가지지 않아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이징연구소<sup>8)</sup>는 최근 각 나라의 양육비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한국은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으로 1인당 GDP의 7.79배가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이 연구소의 분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4690만 원)의 7.79배인 3억 6500여 만 원을,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양육비로 쓰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산 의지가 비싼 양육비로 인해 꺾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출산 장려를 위해 근본적인 지속 가능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또한 여성이 출산 후 경력 단절이 되어도 다시 일할 수 있게 정책이나 인식 개선도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남 OO)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들’은 참여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유형 중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족의 사진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 모두가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참여자가 평소에 가족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던 가족의 형태라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말한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저는 20~30년 후에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아이의 엄마가 되고 맞벌이 가족으로 남편과 같이 돈을 벌며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족관계학 수업을 듣고 난 후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런 일반적인 형태에 고정되어있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해지고 변함에 따라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다양한 가족들이 증가하게 되면 저출산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고, 고령화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지만 부양의무에 대한 생각이 변화해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에서 수발하는 방식은 증가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돌봄이나 정서적부양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또한 여성들은 점차 가정 밖의 일을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양성평등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앞으로 가족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생각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정 OO)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사진5]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들

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356&cid=43667&categoryId=43667>

8) <https://www.jmbc.co.kr/news/view/32771>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는 네 명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 밤에 불을 켜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으로 참여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유형 중 1인가족의 사진이다. 따뜻한 불과 은은한 조명, 편안하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훈훈함과 즐거움이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어린 시절 가족이 다 같이 간 캠핑이 기억에 남아요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뒤로 어딜 돌아다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자유로운 삶을 싶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 여유가 없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변하는 유행들과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세상과 특정 세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매체를 보면 답답한 심정이 들어요. 다들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3년 우리나라의 행복순위가 57위로 OECD 회원 국가에서 매우 낮아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여유로

운 생각과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경제가 안정되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생활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식사를 하거나 취미활동을 같이 할 때는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양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사진 출처>

- 1) <https://blog.naver.com/jirisan72/20055397039>
- 2) <https://blog.naver.com/film1982/221368304175>
- 3) 허프 포스트코리아, '세이브더칠드런' 제4회 아동권리영화제를 개최한다 2018.11.07.(김도훈)
- 4) <https://blog.naver.com/jia2879/70178710573>
- 5) <https://blog.naver.com/damda-onul/223065362077>
- 6) <https://img.lovepik.com/photo/20211210/medium/lovepik>

### III. 결론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의 다양성 교육 수강 전에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사진6]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적 가족이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혈연관계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면서 가족의 변화와 가족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즉 가족에 관한 교육은 대학생이 형성하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가족과 삶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에서 정해 놓은 이상적 가족의 기준에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을 통하여 가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여성연구소, 2014).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가족과 삶의 모습에는 자녀를 가진 맞벌이부부 가족 형태도 있었고, 덩크족과 1인 가족이 있었다. 덩크족(DINK)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로,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가지지 않아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며 풍족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다(유영주 외, 2022). 또한 1인 가족은 2017년 28.6%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인가구를 넘어섰다(통계청, 2018). 따라서 1인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해체가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지원한데도 전통적 핵가족이 아닌 더 넓은 의미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미래의 다양한 삶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전통적 핵가족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의 가족이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의 위기와 해체가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22),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기숙, 박충선, 권희경, 김순남, 김영주(2021), 『가족과 젠더』, 창지사.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2020), 『가족복지학』, 학지사.
- 한국여성연구소(2014), 『젠더와 사회』, 동녘.
-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356&cid=43667&categoryId=43667>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 <https://www.jmbc.co.kr/news/view/32771>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7418>
- [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74&list\\_no=390852&seq=1](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74&list_no=390852&seq=1)
-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9](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9)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NFPTE2>
-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4>

---

## Abstract

### A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 on family diversity

Hangok Lee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urrent families and to seek directions to form positiv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family diversity. As for the research method,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for students taking family relations class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was traditional before taking education, but this perception changed in various ways after they took education about family. In particular, education on family diversity influenced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and their attitude toward their future families in various direction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families, which is in their early adulthood, determines their attitude toward their future families and directions of life. Therefore, education that provides university students with attitudes toward family diversity is necessary.

**Key words:** Family Diversity, Traditional Family, Education

---

<b>*필자 정보</b>
<b>이행옥:</b>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가족복지 및 노인복지이다. *E-mail: holee1@gwnu.ac.kr



##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의 맥락-패턴 분석<sup>1)</sup>

박수지(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 양상을 종사자와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실제로 아이돌보미의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역동성을 가지고 기능하였는지를 맥락-패턴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기관 유형별 형평성 고려, 현실성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측면의 제재, 부정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회서비스 종사자, 아이돌보미, 고용변화, 맥락-패턴 분석

### I. 서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현장의 화두가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 중 중요한 논의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 국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키워드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을 주요한 정책 의제로 다뤘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2017년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2022년까지 약 34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일자리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17. 10. 18.) 실제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괄목할만한 양적인 증가를 이루어냈다. 산업통계분석시스템(2023)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규모가 2018년 204만 6천명에서 2022년 271만 4천명으로 약 66만 8천명 증가하여 2018년의 3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ww.istans.or.kr/mainMenu.do)

한편 양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와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의 변화 또한 추구하였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돌봄서비스 현장의 휴게시간 도입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 조치들이 실제로 서비스 현장의 종사자 고용 현실을 개선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1) 본 논문은, 안수란 외(201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변화 연구』의 <제5장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에 대한 질적연구> 중 본인이 집필한 <제2절 돌봄분야 고용변화의 맥락과 패턴>의 '3. 육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를 중심으로'의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대책의 현장과의 불협화음에 관한 지적이 있다. (안수란 외, 2019)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 양상을 종사자와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즉 2020년 이전 추진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역동성을 가지고 기능하였는지 그리고 그 밖에 종사자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질적연구방법인 맥락과 패턴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특수산업 분류의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중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중 인터뷰 대상자는 정책 변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분야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종사자 외 기관장을 연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종사자 고용이 거시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은 기관운영이나 해당 업무 담당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다. 한편 종사자 고용 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일 경우는 기관장 대신 실무담당자로 대체하였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담당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의 기관이 노인 및 장애인, 아동, 산모·신생아 종사자를 중복으로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돌봄 분야 해당 기관장의 집단 인터뷰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3명의 개별 심층인터

뷰와 돌봄서비스 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 15명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아이돌보미 종사자 특성

사례 구분	분야		성별	연령	직업	경력
1	돌봄	아동	여	60대 이상	아이돌보미	11년 4개월
2	돌봄	아동	여	50대	아이돌보미	11년
3	돌봄	아동	여	60대 이상	아이돌보미	1년 3개월

출처: 안수란 외(2019, p. 153)에서 재구성

<표 2> 기관장 및 실무자 특성

사례 구분	분야		대상 구분	성별	연령
1	돌봄	노인	기관장	여	40대
2	돌봄	노인	기관장	여	50대
3	돌봄	노인	기관장	여	50대
4	돌봄	노인	기관장	남	50대
5	돌봄	노인	기관장	여	40대
6	돌봄	노인	기관장	여	50대
7	돌봄	산모·신생아	기관장	여	50대
8	돌봄	산모·신생아	기관장	여	40대
9	돌봄	산모·신생아	기관장	여	50대
10	돌봄	산모·신생아	운영기관 담당자	여	50대
11	돌봄	아동	운영기관 담당자	여	50대
12	돌봄	장애인	기관장	여	40대
13	돌봄	장애인	운영기관 담당자	여	40대
14	돌봄	장애인	운영기관 담당자	여	40대
15	돌봄	장애인	운영기관 담당자	여	50대

출처: 안수란 외(2019, p. 154)에서 재구성

### 2. 자료수집 방법

질적 분석에서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FGI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기관장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1회, 2~3시간 내외 진행하였다. 종사자는 모두 1:1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1회,

〈표 3〉 면접 질문지 구성

구성	질문 내용
I. 종사자 근로현황	- 근무기관 특성(기관 규모, 운영주체, 주요 사업) - 제공서비스 특성(서비스 종류, 서비스 이용자 특성) - 임금 및 근로조건(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인적자원관리)
II. 고용 변화의 패턴과 맥락	- 현재 일을 시작한 배경 - 직업 경력 - 일, 임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변화 - 변화에 따른 기관과 종사자의 대처 - 향후 계획
III. 고용의 의미	- 일의 의미 - 사회서비스를 바라보는 기관의 관점 - 기관 및 종사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 -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
IV. 고용 전망 및 제안	-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망 - 좋은 일자리에 대한 평가 및 인식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법, 정책, 제도, 지침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출처: 안수란 외(2019, p.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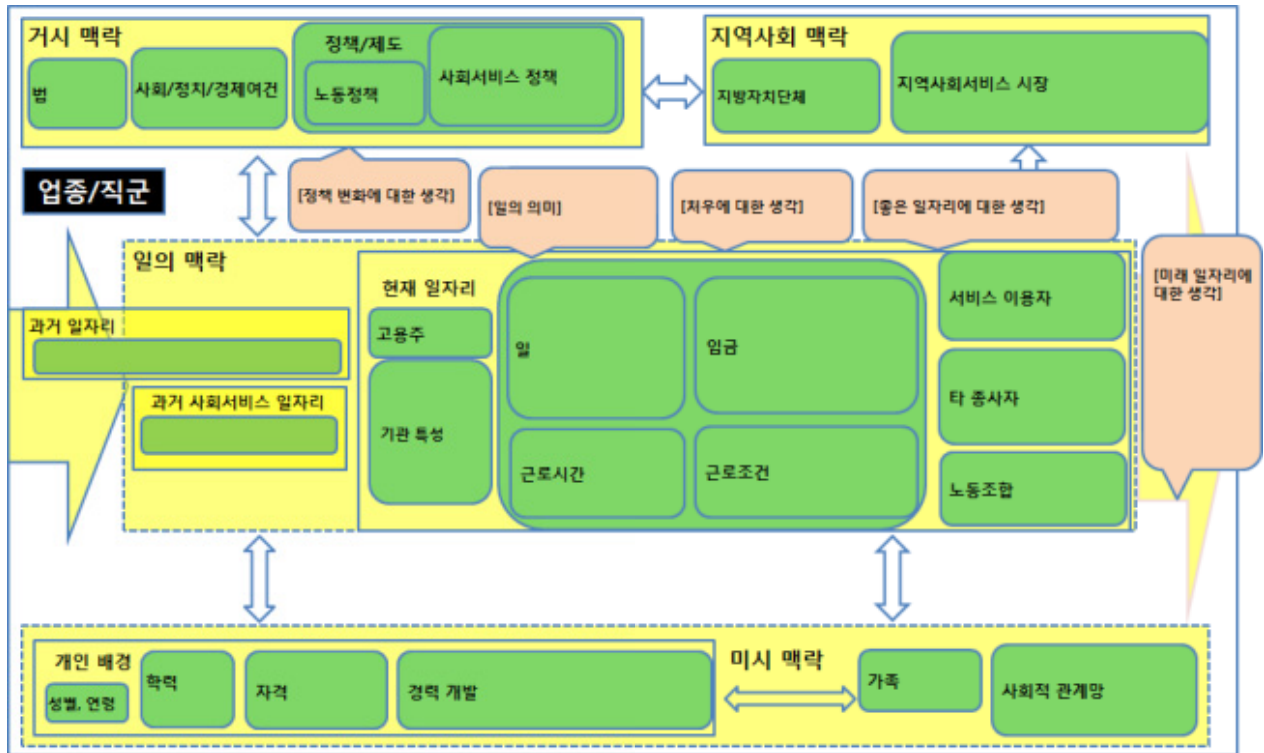
1~2.5시간 진행되었다. 면접은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상담실 또는 기관 근처의 카페 등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종사자 근로 현황, 고용 변화의 맥락과 패턴, 고용의 의미, 고용의 전망 및 제안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 전 연구의 목적, 연구 결과의 활용, 연구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숙지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맥락-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방법으로 권지성(2018)이 개발한 ‘맥락-패턴 분석’을 활용하였다. 맥락-패턴 분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현상을 본질, 사물, 의미의 층위로 구분한다. 둘째, 연구 현상은 공간 차원의 맥락과 시간 차원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맥락이란 생태체계 관점과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는 사전 정의를 토대로 한 개념으

로서,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의 구조 내에서 구체적인 사물과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넷째, 패턴이란 발달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내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사물과 의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넷째, 이 분석방법은 맥락과 패턴이라는 두 가지 차원과 본질-사물-의미라는 세 가지 현상의 층위를 기본 분석틀로 유지하면서 개별 현상에 맞게 적용하고 변형해 갈 수 있다. (안수란 외, 2019) 여기서 사물이란 ‘일과 물건을 아우르는 말’로 인간이 감각기관과 지각능력을 통해 관찰하고 경험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며, 의미란 ‘사물이나 현상의 뜻이나 가치’로 사물에 부여한 뜻이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종사자의 급여 인상은 ‘사물’이며, 급여가 인상되어 ‘일을 좀 더 가치있게 생각한 것’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맥락-패턴 분석은 타 질적 연구방법과 달리 사물과 의미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과 의미 수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를 분석하여 거시적 차원의 정책변화가 서비스 현장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하여 분석해



[그림 1]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변화의 맥락-패턴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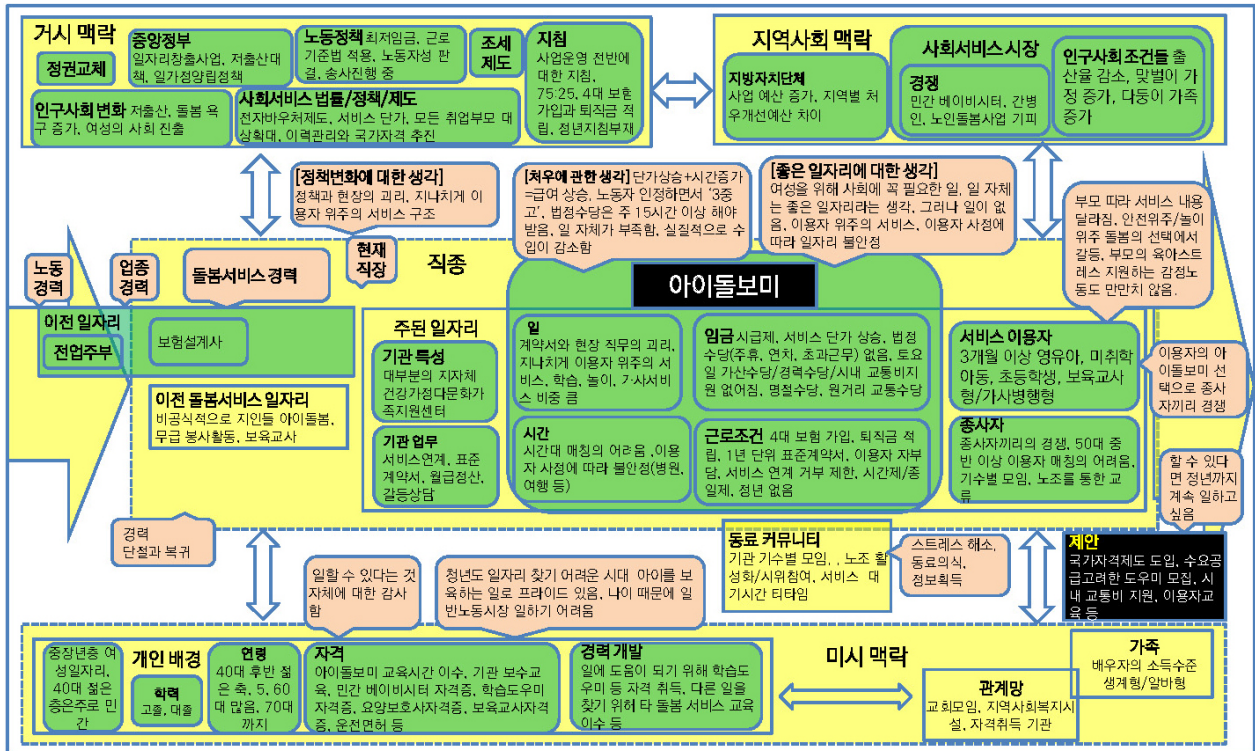
출처: 안수란 외(2019, p. 161)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개별 심층인터뷰와 초점 집단인터뷰 녹취 자료를 통해 맥락-패턴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고용 변화의 맥락은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맥락, 지역사회 맥락, 미시 맥락, 일의 맥락으로 살펴보았다. 거시 맥락은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법·제도·정책으로 알아보았다. 지역사회 맥락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서비스 시장,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 등의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미시 맥락은 종사자 개인의 배경과 가족, 관계망 등의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일의 맥락은 이전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구분하고, 현재 시점의 일자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관, 고용주, 일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서비스 이용자, 다른 종사자 등의 항목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맥락과 맥락을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종사자 고용의 패턴을 설명하였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맥락과 맥락 내의 하위 구성요소(사물), 하위 구성요소가 지닌 의미는 도형과 색깔을 통해 구분하였다. 맥락은 노란색의 각진 네모( ) , 하위 구성요소는 초록색의 모서리가 둥근 네모( ) , 하위 구성요소가 지닌 의미는 살구색의 말풍선( )으로 표시하였다.

#### 4.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의 맥락과 패턴

다음의 [그림 2]는 개별 심층인터뷰와 초점 집단인터뷰 녹취록 자료를 분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의 맥락-패턴을 도식화한 것이다.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의 인터뷰 녹취록 분석을 통해 상단의 거시 맥락과 지역사회 맥락의 객관적인 사실 즉 '사물'을 추출하였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하단의 미시 맥락에서 아이돌봄의 고용현장(임금, 근로조건, 일, 시간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에는 거시 맥락, 지역사회 맥락과 미시 맥락을 종합하여 이를 시간적으로 연계하는 일의 맥락 즉 고용변화의 패턴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그림 2]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의 맥락-패턴 개관

단계에서 인터뷰 참여자가 아이돌봄의 고용변화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 즉 '사물'에 대해 어떤 주관적인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지 도출하였다.

1) 고용 변화의 맥락

가. 거시 맥락

거시맥락에서 아이돌봄의 고용여건에 영향을 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정부가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고 서비스 기관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업 내용(시급, 활동, 교육, 수당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와 달리 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센터에 플러스 보조도우미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서비스 단가로 기관 내 직원 임금을 충당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서비스 운영자와 종사자가 자신의 소속감을

모두 여성가족부에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종사자의 경우도 기관을 통해 표준계약을 작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부와 계약을 하고 급여 또한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2016년 광주 아이돌봄 소송의 결과로 2018년 법원은 아이돌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관에게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처우를 보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2018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의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과로 2019년 2018년 1심 결과를 뒤집고 아이돌봄을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아직 현장에서의 변화는 미미해 보인다. 2) 인터뷰 참여자들은 노동자의 인정을 떠나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이

2) 대법원은 지난 2023년 8월 2019년의 2심을 뒤집고 아이돌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3.8.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나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종사자들이 연차, 주휴, 초과 근무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급여를 올려준다는 의미 이외에 실제 수당이 가진 의미를 아이 돌봄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을 실행할 경우도 하루 8시간 제공되는 영유아종일서비스에 아이돌보미를 두 번 배치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아이돌보미 자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이돌보미는 기관의 일정시간 교육 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이 없다. 사업 초창기 부모는 정부 서비스를 신뢰하여 아이를 맡겼지만 최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의 아이돌보미 자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스스로 담보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학습 돌봄 자격증을 따고 독자적인 놀이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홍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 나. 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맥락에서는 아이돌보미 고용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지자체 정책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센터를 지정하고 사업을 위탁 및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관리와 아이돌봄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운영 담당자와 종사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자였다. 이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역사회 여성단체나 사회복지관 혹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지자체 개입의 여지가 더욱 적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

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최근 다둥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 저출산정책으로 계속해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이돌보미 채용 또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인구 35만 00시의 경우 2019년 지자체로부터 약 43억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액수는 그 동안 매해 증가했으며 서비스 종사자의 채용 또한 매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이 늘어난 만큼 아이돌보미 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 수요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고 또한 종사자 모집 기준(인원 수, 자격 조건 등)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지원자를 보면 지원의 특별한 기준이 없다보니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아이를 좋아하는 중장년의 경력단절 여성이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모가 50대 중반 이상의 아이돌보미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시간대를 보더라도 이용자인 부모와 아이돌보미의 시간이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다. 미시 맥락

미시맥락은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배경과 가족, 관계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종사자 배경의 하위 맥락으로는 학력 및 자격, 경력개발 등이 있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여성이 100%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 중반이 젊은 층이고 50대가 가장 많으며 60대 또한 다수였다. 정년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70대 종사자까지 있었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의 대학 졸업자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종사자의 약 1/3가량이 전문대 이상의 대졸자라고 보았다. 이는 타 돌봄 서비스에 비해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학력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과거 직장 경력을 보면 다수가 전업주부였으며 상당수가 타 돌봄 사업 즉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이돌봄비 중 민간 영리기관 베이시터 경험을 가진 자의 비중이 대략 10%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아이돌봄비의 서비스 시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준비하는 종사자도 상당수 있어 보인다. 일정 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 예상한 수입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 오후에 비는 시간을 활용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센터가 사업 초창기 다른 일을 허용하지 않다가 노조가 생기고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종사자가 다른 일 하는 것을 2~3년 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다.

또한 아이돌봄비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종사자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수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주수입이 따로 있는 경우 서비스 시간 확보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직장에 매이지 않고 시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라. 일의 맥락**

다음에서는 아이돌봄비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의 맥락을 근무내용, 임금 및 근로시간, 기관/동료/이용자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아이돌봄비의 근무여건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아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일이 이용자 자택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부모가 원하는 바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일의 범위가 가족의 가사지원서비스까지 넓어져 있었다. 특히 이용자의 아이돌봄비 면접과 선택이 서비스 시간 확보에 결정적이다 보니 종사자는 현장에서 육아와 관련된 일 이외의 일을 스스로 찾아 해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서비스 계약과 해지가 거의 서비스 이용자의 손에 맡겨 있다 보니 이용자가 시간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현재 이용자가 당일 서비스를

취소하여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 패널티라고 해봤자 서비스 한 시간의 비용지불이 전부다.

아울러 이 일은 부모를 상대해야 하다 보니 감정노동 또한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예를 들어 초산에 쌍둥이를 키우느라 집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엄마를 토닥이고 지지해주는 일도 육아를 함께 하는 아이돌봄비의 몫이었다. 쌍둥이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비의 육체노동 강도가 심해 아이돌봄 시간을 1.5배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늘어나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부담도 1.5배 증가하다보니 부모가 쌍둥이 중 한 명만 센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 명은 부모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쌍둥이 일을 모두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 육체노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 밖의 어려운 근무조건으로는 부모가 밤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잠 자는 시간 이용자의 자기부담을 줄이고자 취침 시간을 자의적으로 예상하여 서비스 시간을 줄여 신청하는 경우를 들었다. 법규상 아이가 잠을 자더라도 자리를 떠나는 것은 방임과 유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보니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 옆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이용자 패널티는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밖에는 없다.

한편 종사자들은 최근 부모가 집에 CCTV등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핸드폰 앱으로 집안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끔씩 음성으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도 하는데 무척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최근 이용자의 카메라 설치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

둘째, 아이돌봄비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급제 구조에서 근로시간은 곧바로 수입을 결정한다. 아이돌봄비가 시간제로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아이의 학교 등원과 하교 지원이다. 아침에 등원시키는 일은 보통 7시~9시, 하원은 4시~6시

진행된다. 그리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봐주게 되면 하교를 포함하여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듯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 시간대는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보니 시간제 아이돌보미는 등, 하원 일을 하면서 다른 시간대 서비스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시간대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다. 종일서비스를 원한다 하더라도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도 요즘 서비스 시간 확보가 되지 않아 아침에 등원 일하고 낮 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낸 후 오후가 되어서야 하교 일하러 가는 날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최근 아이돌보미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사업 초창기와 다르게 이용자 연계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원하는 만큼 서비스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관 또한 매해 1~2회씩 꼬박꼬박 아이돌보미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 공급 과잉이다. 아이돌보미가 일하기 원하는 시간대가 서로 겹쳐서 일을 찾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현재는 일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보니 근래 서비스 단가가 올랐지만 수입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시간제 아이돌보미 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낮다고 하였다. 대략 월 60~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가장 빈번하다고 하였다. 종일제로 연계되어 하루 7시간 일하고 추가로 아침 등원 2시간을 일해야 매일 총 9시간 주 45시간 정도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수당이 늘어나지 않겠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답을 주었다.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법정수당이 생기면서 이전에 있던 토요일 가산수당, 시내 교통비, 경력수당이 없어져 오히려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가산수당, 교통비, 경력수당이 없어진 '3중고'를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휴게시간의 경우도 현장에서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서비스 시간을 예전에는 30분 초과되면 한 시간으로 보았는데 2019년부터 30분 단위 그대로 산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보니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빼야 하기 때문에 3시간 30분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늘었다는 것이다.

셋째, 기관/동료/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이돌봄사업이 시작되고 초창기 5~6년은 서비스 종사자가 센터에 방문해 활동일지를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일지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류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보수교육 기관도 센터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어서 센터에 갈 일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아이돌보미는 기관 내 직원들과 소원해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들끼리도 볼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였다. 최근 서비스 시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종사자 간의 경쟁도 생겨서 아주 친한 2~3명 이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다고 하였다. 기관과의 교류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예컨대 비용이나 시간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이 서비스 내용에 관한 것이고 서비스 내용에 관한 갈등은 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오는 어려움으로 아이양육 태도에 관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아이돌보미 일은 크게 영유아를 돌보는 일과 취학 전 아동 돌보는 일 그리고 초등학생 돌보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경우 아이와의 소통도 힘들고 또 부모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쉽다. 아이 양육과 관련된 갈등은 아이를 안전위주로 돌보느냐 아니면 놀이 위주로 돌보느냐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안전 위주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데 부모의 요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일자리에 대한 생각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일이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질문에 기관 운영자는 모두 아니라는 의견을

주었다. 아이돌보미가 정부의 일을 하고 있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흐름에 동참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지만 지나치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이 힘든 것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되었다.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일반시장에 훨씬 더 큰 민간 시장이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종사자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시기 아이돌보미는 민간 서비스로 일을 종종 옮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에 서비스 종사자는 최소한 이용자와 연계만 많이 된다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종사자들은 더욱이 일자리를 4대 보험 가입이 되고 퇴직금 적립도 되는 좋은 일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도 있었다. 민간 베이비시터와 다르게 정부 기관에서 교육받고 신원을 보장받는 선생님으로서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에 매이지 않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일자리여서 좋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편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 정부가 시급을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급을 올려주기 위해 이용자의 자기부담도 늘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급이 올라가기 보다는 서비스 시간 확보가 용이해져서 이전처럼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고 싶다고 하였다.

## 2) 고용 변화의 패턴

종합하여 볼 때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고용 변화의 패턴은 '서비스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 아이돌보미 사업은 민간 서비스 시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돌보미는 베이비시터와 달리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일자리창출사업이 시장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되다보니 종사자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어 일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전에는 서비스 이용자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여 평판을 좋게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일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 해주는 차원이었다면, 요즘은 자비를 들어 학습도우미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노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된 노동자로서의 권리 확보 과정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와 비교될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이력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 또한 향후 정부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I. 결론

돌봄서비스 기관 운영자와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에서 돌봄서비스 시장의 기관 유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개인사업장 등으로 공급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모델로 이미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고려하였다. 그렇다보니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의 비현실성, 기관 유형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즉 기관 유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현장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인 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아울러 서비스 단가 상승 폭도 커져 종사자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또한

서비스 종사자의 법정수당 지급 권리를 보장하여 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돌봄 현장에서는 서비스 단가 인상과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의 적용이 종사자의 수입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졌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폭만큼 서비스 단가가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법정수당이 적용되어 이전에 기관에서 지급하던 처우개선 수당, 경력수당 등이 없어져 종사자 수입이 줄기도 했기 때문이다. 종사자들은 특히 휴게시간, 주52시간 특례 제외 등과 관련해 정책 결정자들이 돌봄서비스 현장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서비스 시간 확보가 어려운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 법정수당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더구나 법정 휴게시간의 적용은 오히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의 매커니즘은 정부의 처우개선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수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계약상의 업무내용을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측면의 제재가 필요하였다. 재가 돌봄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개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던 용역서비스가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일은 아직도 비공식적 서비스로 공공의 개입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일을 모두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종사자들도 서비스 계약 내용과 현장의 업무가 다른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장의 근무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종사자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정해진 일 이외의 일을 하게 될 때라고 푸념하고 있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다둥이 가정 혹은 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등록된 아이의 업무 이외에 다른 아이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되어 종사자에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돌봄서비스는 대부분 자택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로 일의 범위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노동권의 핵심이다. 계약서 상의 직무가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용자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돌봄서비스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각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기관 운영자와 대부분의 종사자는 돌봄서비스 일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돌봄서비스 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이 일이 최저임금 인근의 일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처우가 개선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보다 월등히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일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인 만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사회가 알아주는 것이었다. 이 일은 이용자의 몸 가꾸기, 화장실 사용, 식사하기, 주변 정리하기 등 신변잡기를 지원하는 일이어서 일 자체만으로도 종사자의 자존심을 낮출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집안의 허드렛일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아줌마라는 인식을 없애야 하고 그래서 이용자로부터 최소한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않는 일터가 되도록 이용자 인식과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자격기준의 재정비,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지성(2018).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맥락-패턴 분석 방법』. 서울: 학지사.
-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문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문

- 〈매일노동뉴스〉,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2023.8.21.)
- 안수란·김유휘·권지성·박수지·조동훈·김용환·남재욱·하태정(201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변화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자리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2017. 10. 18.).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세종: 일자리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istans.or.kr/mainMenu.do> (2023. 12. 22. 인출)

---

## Abstract

# Context–pattern analysis of employment changes for child care service workers

Park, Susi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child care service workers among social service workers and patterns of chang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argeting workers, agency heads, and staff in charge.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ocial service policy implemented under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we investigated through context and pattern analysis how this actually functioned in the labor field of child care workers. In the conclusion, the need to consider equity by type of institution in the care service field, improve realistic treatment of workers, sanctions on the user side, and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was presented.

**Key words:** social service workers, child care workers, employment changes, context-pattern analysis

---

<p><b>*필자 정보</b></p> <p><b>박수지:</b>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Justus-Liebig 대학에서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서비스정책(sockal service policy), 장애인복지, 사회적경제 등이다.</p> <p>*E-mail: susiepark@gwnu.ac.kr</p>
--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진로정체성간의 관계

김예진 · 유수빈 · 이소윤 · 이수진 · 이슬기 · 조세은 · 편도준(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장수정(교신저자,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국문초록

**Purpose:** 진로정체성은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성이자 자신의 목표와 적성 등 개인이 가진 뚜렷하고 일관된 개념이다. 진로정체성이 높을수록 간호직에 성공적인 입문하는데 도움이 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려면, 우선적으로 진로정체성과 연관된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개인 특성인 간호사 이미지, 환경적 배경 요소인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Method:** 연구참여자는 W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 4학년 166명이며, 온라인(Google) 설문을 통해 자료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였다.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5.0 software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와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Result:**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55 \pm 0.52$ 점,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3.93 \pm 0.50$ 점, 진로정체성은 평균  $3.06 \pm 0.77$ 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변수의 상관관계는 각각  $r = .284$  ( $p < .001$ ),  $r = .363$  ( $p < .001$ )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Conclusion:** 본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Key Word :** 간호, 학생,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대학 생활을 통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을 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적 욕구 흥미 적성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과 준비 행동 등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다.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향상시키고 진로 결정을 한 후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해 나가도록 돕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일 수 있다(김동원, 2013).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대학에 입학하는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입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특히 진로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과 성찰을 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전혜영, 2018, 정영주, 2021).

그 중에서도 간호학과는 전공 특성 상,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과 취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활동안 진로와 취업 문제를 깊이 고민할 기회가 타 전공에 비해 더욱 적은 편이다(정영주, 2021). 그러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간호전문직을 간접경험하는 것은 환자 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 간호업무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문인오, 이경완, 2010). 나아가 취업 후 간호직이라는 전문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박형숙 외, 2018), 높은 조기 이직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문인오, 이경완, 2010). 반대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즉, 진로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Holland 외, 1980), 향후 간호사로서 직업적 발전을 해나가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홍은정과 이지아, 202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 정도

를 파악하고 진로정체성과 연관된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진로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 나가고, 향후 신규간호사가 됐을 때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로정체성과 연관된 변수들을 생각할 때, 한 개인의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Lent 등(1994)의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전혜영, 2018).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는 진로를 위한 행동들은 개인 특성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봤고 개인의 인지가 과소 평가되었으나(김봉환, 김계현, 1997),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발달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인지적인 판단이 포함된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하였다(Lent 외, 1994). 즉, 개인 특성과 환경 배경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직업적 흥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개인의 직업적 흥미 발달은 개인의 진로선택에 관련된 목표와 활동 선택, 미래의 직업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김봉환 외, 2015).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과 환경 배경을 중심으로 진로정체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팀은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한 간호사 이미지를 개인 특성으로 보았다. 이미지(image)는 한 대상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이다(김형자와 김현옥, 200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방법 및 태도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이현정, 2014). 또한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면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간호사의 위치와 역할, 이미지는 간호대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원옥과 강현숙, 2004). 또한, 본 연구팀은 임상실습 만족도

를 환경적 배경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만족도를 진로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으로 간주하였다(전혜영, 2018). 대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과는 다르게 학교 생활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등의 다차원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경맥락 변인으로서의 학교만족도는 대학생의 환경적 배경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유정희, 박희수, 2015). 이를 간호대학생에게 대입해 보면,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간호 지식, 기술, 태도를 경험하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간호사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게 되므로(이외신, 임정혜, 2021), 임상실습 만족도를 환경적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개인 특성으로서의 그들이 인식한 간호사 이미지, 환경적 배경으로서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W시 소재 4년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으면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 수 산출에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양측 검정,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30, 검정력 95%를 적용한 결과, 최소 134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7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총 170부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4부를 제외하고 총 16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여, 최소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일반적 특성

나이, 성별, 학년,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누적 성적, 종교, 전공 선택의 이유,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기관의 특성, 최근 1년 내 가족 내 입원 경험 유무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결자와 강현숙(1984)이 개발한 임상만족도 측정도구와 이성은(2001)의 임상실습만족도 도구를 이순희 등(200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3개, 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6개, 실습 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9개,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7개,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3개,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3개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이순희 등(2004)이 수정·보완했을 당시 Chronbach's alpha = .91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25로 나타났다.

### 3) 간호사 이미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양일심(1998)이 개발한 도구를 이순희 등(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사의 전통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12개, 사회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6개, 전문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6개, 개인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3개 등 총 28개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hronbach's alpha = .940이었다(양일심, 1998).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11개, 사회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5개, 전문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6개, 개인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3개 등 총 2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hronbach's alpha = .923이었다.

### 4) 진로정체성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등(1980)이 개발한 직업정체감(My Vocational Situation) 도구를 김봉환과 김계현(1997)이 한국 대학생에 맞게 변안한 것을 권윤희와 김정남(2002)이 다시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매우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긍정형 질문인 6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점수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윤희와 김정남(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899였다.

## 4. 자료수집 방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였다. 해당 지역 대학교 간호학과와 social network service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구 목적, 방법, 내용 등이 포함된 모집공고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모집 공고글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설문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설문 URL(구글 양식)을 공유하였다. 설문 URL 첫 화면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 연구 절차와 내용, 이익과 보상, 위험,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보관, 중도 철회 또는 중단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등에 관한 설명문을 게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사례 제공을 위한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수집된 참여자의 연락처는 사례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후, 2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례로 제공하였고, 연락처는 컴퓨터의 완전 삭제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수준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의 차이를 t-test,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사후 검사로 Scheffé's 검정을 실시하였다.
- 3)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43명(86.1%), 남성 23명(13.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 103명(62.0%), 3학년 63명(38.0%)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입학 당시, 전공 지망 순위는 1지망이 106명(63.9%)으로 가장 높았으며, 2지망 27명(16.2%), 순위권 외 23명(13.9%)이 뒤를 이었다. 누적 성적은 3.5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166)

변수	구분	N	%	
연령	21~25세	131	78.9	
	26세~30세	29	17.5	
	31세 이상	6	3.6	
성별	남성	23	13.9	
	여성	143	86.1	
현재 재학 중인 학년	3학년	63	38.0	
	4학년	103	62.0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1지망	106	63.9	
	2지망	27	16.2	
	3지망	10	6.0	
	순위권 외	23	13.9	
누적 성적	3.0 미만	8	4.8	
	3.0~3.5 미만	39	23.5	
	3.5~4.0 미만	84	50.6	
	4.0 이상	35	21.1	
종교	천주교	16	9.6	
	기독교	28	16.9	
	불교	9	5.4	
	기타 종교	1	0.6	
	종교 없음	112	67.5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3	1.8	
	불만족	10	6.0	
	보통	42	25.3	
	만족	78	47.0	
	매우 만족	33	19.9	
전공 선택의 이유**	간호직에 대한 동경	37	23.3	
	가족 및 선생님의 권유	26	15.6	
	높은 취업률	62	37.3	
	다른 의료직 전공 진학 실패	5	3.0	
	전문직	21	12.7	
	성적에 맞춰서	11	6.6	
최근 1년 내 직계 가족 내 입원 경험 유무	있다	66	39.8	
	없다	100	60.2	
임상실습 기관별 실습 횟수**	1차	0회	131	78.9
		1회	17	10.3
		2회	12	7.2
		3회	4	2.4
		4회 이상	2	1.2
	2차	0회	35	21.1
		1회	38	22.9
		2회	42	25.3
		3회	42	25.3
		4회 이상	9	5.4
	3차	0회	21	12.7
		1회	40	24.1
		2회	35	21.1
		3회	38	22.9
		4회이상	32	19.2

이상 4.0 미만'이 84명(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이상 3.5 미만'이 39명(23.5%), '4.0 이상'이 35명(21.1%)으로 나타났다. 112명(67.5%)이 종교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기독교 28명(16.9%), 천주교 16명(9.6%) 순이었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높은 취업률'이 62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직에 대한 동경' 37명(22.3%), '가족 및 선생님의 권유' 26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공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만족'이 78명(47.0%), '매우 불만족'이 33명(19.9%)으로,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전공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직계 가족이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66명(39.8%)이었다. 임상 실습기관별 실습 횟수를 묻는지에 대한 질문에, 3차 병원의 경우 1회 실습이 40명(24.1%), 3회(22.9%), 2회 35명(21.1%) 순이었고, 2차 병원의 경우 2회와 3회가 각각 42명(25.3%), 1회가 38명(22.9%)으로 나타났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수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 정체성 수준은 <표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5±0.52점이었고, 하부 요인별로는 '실습 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3.83±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3.68±0.62점,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51±.80 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3.35±0.76점,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28±1.00점 순이었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3±0.50점이었으며, 하부 요인별로는 '전문적 이미지 요인'이 평균 4.26±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이미지 요인'이 평균 3.53±0.83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06±0.77점으로 나타났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t=3.28, p=.001$ ),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F=3.97, p=.009$ ), 전공만족도( $F=9.67,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간호학과 지망 순위가 1지망인 경우가 2지망 이상의 경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만족한 경우와 매우 만족한 경우가 매우 불만족한 것과 불만족한 것에 비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표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수준

(N=166)

변수	하부 요인	M±SD	Ranking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 교과에 대한 만족도	3.83±0.70	1
	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	3.72±0.53	2
	실습 지도에 대한 만족도	3.35±0.76	5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	3.68±0.62	3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	3.28±1.00	6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	3.51±0.80	4
간호사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3.97±0.59	2
	사회적 이미지	3.71±0.63	3
	전문적 이미지	4.26±0.56	1
	개인적 이미지*	3.53±0.83	4
진로정체성	-	3.06±0.77	-

\*역환산 문항

〈표 3〉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N=166)

변수	구분	Mean±SD	t or F	p-value
연령	21~25세	111.22±16.87	2.012	.137
	26세~30세	108.00±17.19		
	31세 이상	98.17±13.88		
성별	남성	120.65±14.68	3.28	.001
	여성	108.50±16.75		
현재 재학 중인 학년	3학년	108.17±15.90	-1.20	.233
	4학년	111.42±17.55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1지망 <sup>a</sup>	113.51±16.77	3.97	.009
	2지망 <sup>b</sup>	104.74±15.33		
	3지망 <sup>c</sup>	104.60±14.38		
	순위권 외 <sup>d</sup>	103.70±17.52		
누적 성적	3.0 미만	101.63±17.68	.89	.447
	3.0~3.5 미만	108.90±16.30		
	3.5~4.0 미만	111.12±17.36		
	4.0 이상	111.34±16.65		
종교	천주교	107.13±16.73	-.30	.762
	기독교	110.00±22.36		
	불교	112.56±11.57		
	기타 종교	112.00		
	종교 없음	110.46±16.03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sup>a</sup>	75.33±23.69	9.67	<.001
	불만족 <sup>b</sup>	96.40±16.03		
	보통 <sup>c</sup>	107.83±15.09		
	만족 <sup>d</sup>	110.26±14.56		
	매우 만족 <sup>e</sup>	120.36±14.56		
전공 선택의 이유	간호직에 대한 동경	115.65±15.89	1.50	.182
	가족 및 선생님의 권유	107.42±17.69		
	높은 취업률	108.89±16.16		
	다른 의료직 전공 진학 실패	105.60±16.26		
	전문직	110.81±15.29		
	성적에 맞춰서	102.82±23.97		
	기타	120.50±14.48		
최근 1년 내 직계가족 입원	있다	110.58±19.23	2.15	.145
	없다	109.93±15.39		
임상실습 기관별 실습 횟수	1차	0회	2.11	.082
		1회		
		2회		
		3회		
		4회 이상		
	2차	0회	1.40	.238
		1회		
		2회		
		3회		
		4회 이상		
3차	0회	1.55	.191	
	1회			
	2회			
	3회			
	4회 이상			

####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는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F=4.68, p=.004$ ), 전공 만족도( $F=5.46, p<.001$ ), 최근 1년 이내 직계 가족의 입원( $t=4.74,$

$p=.03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과 지망 순위가 1지망인 경우가 2지망 이상의 순위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한 경우에 비해 그보다 높은 경우, 최근 1년내 직계가족의 입원을 경험한 경우에 간호사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N=166)

변수	구분	Mean±SD	t or F	p-value
연령	21~25세	98.66±12.98	.28	.753
	26세~30세	97.31±12.27		
	31세 이상	95.50±9.96		
성별	남성	102.65±14.76	1.77	.078
	여성	97.62±12.28		
현재 재학 중인 학년	3학년	96.87±12.06	-1.1	.255
	4학년	99.19±13.09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1지망 <sup>a</sup>	101.00±12.71	4.68 b,c,d<a	.004
	2지망 <sup>b</sup>	93.52±11.25		
	3지망 <sup>c</sup>	94.60±9.37		
	순위권 외 <sup>d</sup>	93.17±12.67		
누적 성적	3.0 미만	31.25±10.69	1.45	.230
	3.0~3.5 미만	96.62±15.09		
	3.5~4.0 미만	98.88±13.14		
	4.0 이상	100.46±8.11		
종교	천주교	103.06±9.93	1.21	.227
	기독교	97.46±15.57		
	불교	103.22±9.90		
	기타 종교	95.00		
	종교 없음	97.48±12.45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sup>a</sup>	84.67±13.87	5.46 a<b,c,d,e	<.001
	불만족 <sup>b</sup>	93.10±11.97		
	보통 <sup>c</sup>	93.69±12.68		
	만족 <sup>d</sup>	99.24±11.93		
	매우 만족 <sup>e</sup>	104.82±11.58		
전공 선택의 이유	간호직에 대한 동경	101.30±12.69	1.06	.391
	가족 및 선생님의 권유	98.23±9.84		
	높은 취업률	97.69±13.33		
	다른 의료직 전공 진학 실패	89.4±16.09		
	전문직	99.81±11.74		
	성적에 맞춰서	94.00±14.83		
	기타	96.00±14.58		
최근 1년 내 직계가족 입원	있다	99.80±14.43	4.74	.031
	없다	97.33±11.43		
임상실습 기관별 실습 횟수	1차	0회	1.03	.392
		1회		
		2회		
		3회		
		4회 이상		
	2차	0회	1.19	.318
		1회		
		2회		
		3회		
		4회 이상		
3차	0회	.53	.717	
	1회			
	2회			
	3회			
	4회 이상			

## 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성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성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진로정체성은 학년( $t=-3.31, p=.001$ ), 누적 성적( $F=4.76, p=.003$ ), 전공 선택의 이유( $F=5.18,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누적 성적이 3.0 미만에 비해 그 이상의 경우, 전공 선택의 이유가 가족 및 선생님의 권유, 다른 의료직 전공 진학 실패, 성적에 맞춘 경우에 비해 간호직에 대한 동경, 높은 취업률, 전문직인 경우 진로정체성 점수가 높았다.

&lt;표 5&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성의 차이

(N=166)

변수	구분	M±SD	t or F	p-value	
연령	21~25세	42.21±10.78	.96	.384	
	26세~30세	45.21±10.63			
	31세 이상	44.17±11.74			
성별	남성	42.70±11.44	-.05	.958	
	여성	42.83±10.71			
현재 재학 중인 학년	3학년	39.37±11.38	-3.31	.001	
	4학년	44.91±9.88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1지망	44.32±11.00	2.43	.068	
	2지망	41.89±9.94			
	3지망	38.40±8.61			
	순위권 외	38.83±10.44			
누적 성적	3.0 미만 <sup>a</sup>	30.3±9.91	4.76	.003	
	3.0~3.5 미만 <sup>b</sup>	41.59±10.92			
	3.5~4.0 미만 <sup>c</sup>	44.56±10.90			
	4.0 이상 <sup>d</sup>	42.80±8.67			
종교	천주교	48.94±12.89	.25	.804	
	기독교	41.79±12.06			
	불교	38.22±8.97			
	기타 종교	32.00			
	종교 없음	42.65±10.04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31.00±1.00	.07	.790	
	불만족	34.20±12.04			
	보통	35.00±8.43			
	만족	51.82±9.16			
전공 선택의 이유	매우 만족	42.81±10.78	5.18	<.001	
	간호직에 대한 동경 <sup>a</sup>	47.03±10.84			
	가족 및 선생님의 권유 <sup>b</sup>	39.73±9.77			
	높은 취업률 <sup>c</sup>	70.82±9.99			
	다른 의료직 전공 진학 실패 <sup>d</sup>	34.80±7.98			
	전문직 <sup>e</sup>	50.19±7.81			
	성적에 맞춰서 <sup>f</sup>	36.00±11.15			
기타 <sup>g</sup>	44.50±14.53				
최근 1년 내 직계 가족 내 입원 경험 유무	있다	42.68±11.71	-.12	.904	
	없다	42.89±10.18			
임상실습 기관별 실습 횟수	1차	0회	43.33±10.99	1.39	.240
		1회	40.76±10.24		
		2회	41.17±9.89		
		3회	34.25±5.32		
		4회 이상	53.00±2.83		
	2차	0회	42.34±12.14	2.03	.093
		1회	39.45±11.54		
		2회	42.52±10.73		
		3회	45.98±8.40		
		4회 이상	45.33±9.39		
3차	0회	37.52±9.96	2.00	.096	
	1회	42.50±11.14			
	2회	43.23±11.96			
	3회	43.03±10.71			
	4회 이상	45.94±8.70			

〈표 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간의 상관관계

(N=166)

변수	상관관계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
임상실습 만족도	1		
간호사 이미지	.52(<.001)	1	
진로정체성	.28(<.001)	.36(<.001)	1

### 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 정체성 간의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52, p<.001$ ),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 $r=.28, p<.001$ ),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성도 서로 양의 상관관계( $r=.36, p<.001$ )를 보였다. 즉,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 점수가 높았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 점수가 높았다.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의 개인 특성인 간호사 이미지, 환경적 배경으로서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는  $3.55 \pm 0.52$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서영숙, 정추영, 2020; 송채은 등, 2020)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평가, 실습지도, 실습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영숙과 정추영(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습지도와 실습시간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많은 과제물과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습지도와 실습시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3.93 \pm 0.50$ 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이민희, 김영숙, 2022)의 결과( $3.99 \pm 0.67$ 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미지 중 '전문적 이미지'가 평균  $4.26 \pm 0.62$ 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를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개인적 이미지 요인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 $3.53 \pm 0.83$ 점)를 보였는데, '간호사가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한다', '이기적이다', '불친절하다'와 같은 부정적 질문들로 구성된 요인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다. 그러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점수가 측정된 것은 간호대학생들 사이에서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 점수는 평균  $3.06 \pm 0.77$ 점으로,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 점수는 이민희와 김영숙(2020)의 연구에서 평균  $2.92 \pm 0.57$ 점, 서영숙과 정추영(2020)의 연구에서  $2.49 \pm 0.47$ 점이었는데, 이 점수들은 4점 척도로 산출된 것이므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다만, 이 선행연구들의 진로정체성 점수가 대략 중간 이상의 수준에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성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특성 변인들은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전공만족도, 누적 성적, 전공 선택의 이유였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의, 수행도가 높은 학생들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고, 인지하는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진로정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대상자가 주변의 권유나 성적에 맞춰 입학한 경우보다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은 결과(박형숙 외, 2018)와 유사하며,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정점숙 등(2014)의 연구,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진로탐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문인오, 이경완,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전공 선택 시, 내적 동기가 클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기 전 자발적 지원 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박형숙 외, 2018). 또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숙지하고 해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박형숙 외, 2018).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의 이미지,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연구 변수 간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성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두 변수 간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서영숙, 정추영, 2020),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직업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정도가 높다고 한 연구 결과(최정, 하나선, 2009)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가시켜 진로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서영숙, 정추영, 2020)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성 확립을 위해 학과 내 교육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모델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민희, 김영숙, 2022).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성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권경남과 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성에 영향요인을 작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서영숙과 정추영(2020)의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성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성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진로정체성이 높을 경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며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교내의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의 다양한 역할과 모델을 포함한 간호전문직으로서 우수한 사례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동기 등을 고려하여 상담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3, 4학년층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제시한 개인 특성과 환경적 배경의 일부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과 연관된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향후에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포함하여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세 가지 모형을 검정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VI. 참고문헌

- 권경남, 최은희(2010).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집: 19-28.
- 권윤희, 김정남(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집: 216-229.
- 김동원(2013). “성격 특성과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0집: 607-625.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 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9집: 311-333.
- 김원옥, 강현숙(2004). “임상실습시기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 변화”,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0집: 41-47.
- 김형자, 김현옥(2001).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7집: 97-110.
- 문인오, 이경완(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집: 83-91.
- 박형숙, 윤정미, 이선녀, 이숙련, 이미순(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43집: 35-45.
- 서영숙, 정추영(202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제8집: 1377-1385.
- 송채은, 김명류, 김순영(2020).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5권: 287-298.
- 양일심(1998).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4집: 289-306.
- 유정희·박희수(2015).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로분석-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집: 323-347.
- 이민희, 김영숙(2022).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8집: 248-258.
- 이성은(2001).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모성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7집: 333-348.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제10권: 219-231.
- 이외선, 임정혜(2021).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집: 479-488.
- 이현정(2014). “간호학생이 지각한 첫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 『동서간호학연구지』 제20집: 129-135.
- 전혜영(2018).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진로발달의 구조적 관계”,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5. 23. 469-492.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정영주(2021).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제38집: 1709-1720.
-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집: 27-36.
- 조결자, 강현숙(1984).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14집: 63-74.
- 최정, 하나선(2009).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전문직사회화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5집: 54-63.
- 홍은정, 이지아(2022).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문화기술의 융합』 제8집: 93-102.
- John Holland, Denise Gottfredson, Paul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39(6): 1191-1980.
- Robert Lent, Steven Brown & Gail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e's Image, and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Kim, Yejin\* · Lyu, Subin\* · Lee, SoYun\* · Lee Sujin\* · Lee, Seulgi\* · Cho, Se Eun\* · Pyoun, Dojun\* · Chang, Soo Jung\*\*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Career identity is a concept encompassing one's self-identity related to occupation, personal goals, and aptitude. A high level of career identity is conducive to a successful entry into the nursing profession. To enhance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identity.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elucidat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ceived nurse's image), and environmental factor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their career identity.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66 nursing students in their 3rd and 4th years from a university, W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0th to May 19th, 2023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e's image, and career ident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5.0,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with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a mean score of  $3.55 \pm 0.52$ , nurse's image with a mean score of  $3.93 \pm 0.50$ , and career identity with a mean score of  $3.06 \pm 0.77$ .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s well as nurse's imag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ith  $r = .284$  ( $p < .001$ ) and  $r = .363$  ( $p < .001$ ), respectivel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xplore and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enh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nurse's image for the advancement of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e's image, Career identity

## \*필자 정보

김예진, 유수빈, 이소윤, 이수진, 이슬기, 조세은 편도준(이상 7명, 가나다 순): 강릉원주대 보건복지대학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장수정(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 간호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분야는 성인(노인)간호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만성질환자(치매, 당뇨) 간호, 노인요양시설 실무, 생애말기 환자 간호, 질적 연구방법론, 측정도구 개발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Professional socialization of hospital nurses: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BMC Nursing, 2023), "Registered nurses' experiences of end-of-life care in nursing homes of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Healthcare, 2022) 등이 있다.

\*E-mail: sjchang@gwnu.ac.kr

## 보건복지연구

인쇄일: 2023년 12월 24일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소장 박수지

편집인: 학술부장 한종화

기획부장 유선영

위원 장수정

위원 이선영

간사 박아름

발행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주소: 264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전화: 033-760-8907

팩스: 033-760-8861

이메일: pr0489@gwnu.ac.kr

출판등록: 2016년 10월 4일 제 419-2016-000024호

ISSN: 2508-6529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